

기본연구
2009-07

기본연구
2009-07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

박철희

2009.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095-6 03350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www.cdi.re.kr

기본연구 2009-07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

박철희

발 간 사

정보혁명과 교통수산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와 지방화의 진전 속에 도시는 국가경쟁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많은 도시들이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인프라를 갖추어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도시들도 도시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하여 그 도시만의 이미지 형성하고 브랜드화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이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증진시키고 정주성을 높여 안정적인 도시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 활동의 증진과 도시에서 생산, 유통하는 제품들에 신뢰도를 높여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인 접근으로 실질적인 도시이미지를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이미지 형성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요소와 주체 간에 상호 협력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 만들기적 실천과 마케팅 등이 수반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을 제시하고,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도시이미지 형성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앞으로 충청남도과 중소도시의 도시이미지 상을 정립하는데 있어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와 연구진, 자문교수, 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충남의 도시들이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2009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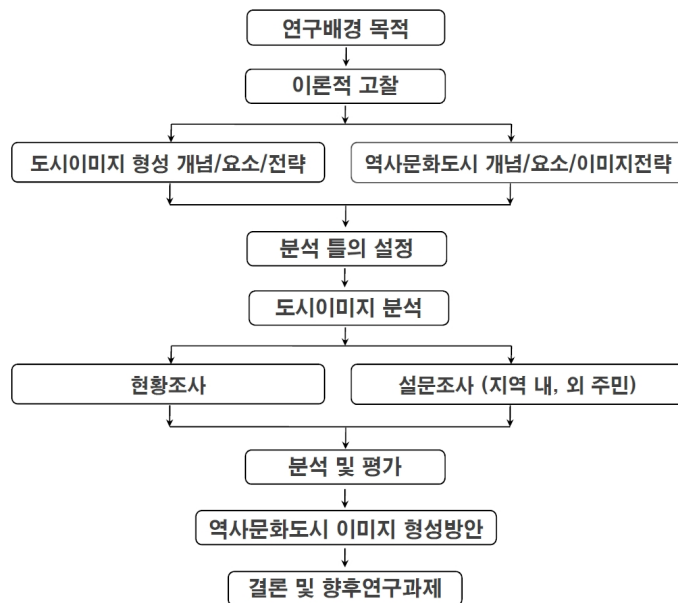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연구요약

1.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소도시의 도시이미지 상을 정립하는데 있어, 기존에 연구되었던 이미지 형성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을 만들고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이미지 형성의 방법 모형을 도출하며, 둘째, 도출된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형성방안을 제시하며, 도시이미지 상은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다. 공간적으로는 도시 이미지상을 역사문화도시로 목표로 하는 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으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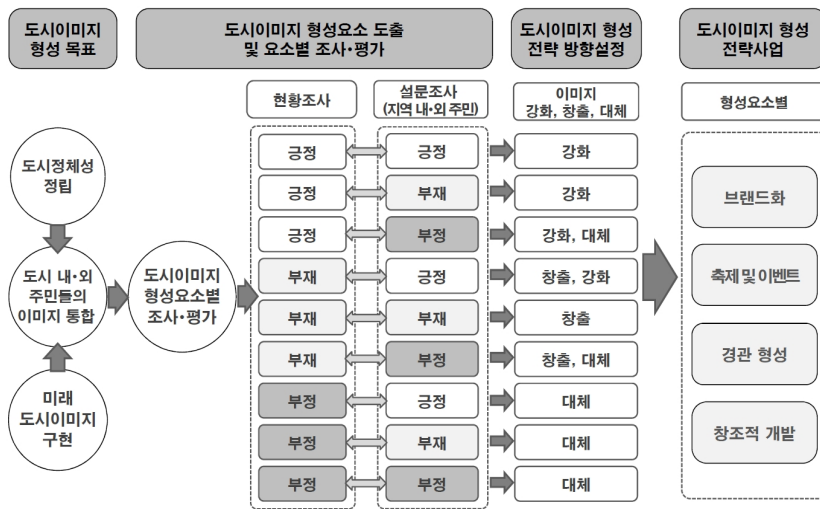
[그림 요약-1] 연구흐름도

2. 분석 틀의 설정

1)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의 설정

도시이미지 형성의 개념, 형성요소 및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요약-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도시이미지 형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 첫째, 해당도시주민들이 해당 도시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당도시주민들이 인식하는 도시이미지 상을 해당도시 외 주민들이 공유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래의 도시이미지 상이 해당 도시 내외 주민들에게 공유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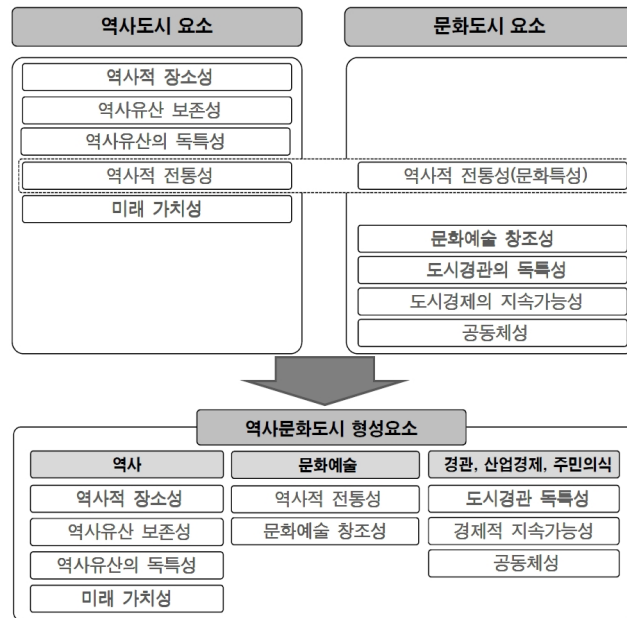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적용 절차는 첫째, 그 도시의 미래 도시이미지 상을 도출하며, 둘째, 도시이미지 상을 구현하는 형성요소를 도출하고, 셋째, 도출된 형성요소를 바탕으로 현황 및 이미지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며, 넷째,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사업을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요약-2]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도출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분석결과, 역사, 문화, 경관, 경제산업, 주민의식 등 총 5개 부문, 31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최종 도출하였다.



[그림 요약-3] 역사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형성 요소

3. 도시의 미래상 및 현황 조사분석

1) 부여 미래도시이미지 상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 부여주민들은 부여가 역사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반면, 부여 외 지역주민들은 부여가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여,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여의 미래도시이미지 상으로서의 역사문화도시 형성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현황 및 설문조사

현황조사와 설문조사(지역 내외 주민) 분석결과, 부여는 역사부문에서 우수한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경관, 경제부문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부문별로, 역사부문은 이미지 강화·대체전략이 필요하며, 문화부문은 이미지 강화·창출, 경관, 산업·경제부문은 이미지 창출, 주민의식부문은 이미지 창출·강화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요약-3>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방향

부문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현황조사	설문조사 (평균)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역사	문-11. 부여 역사도시로서의 장소성	궁정	약간궁정, 궁정(3.94)	강화
	문-12.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 보유	궁정	약간궁정, 궁정(4.29)	강화, 대체
	문-12.1.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재는 진정성	궁정	약간궁정, 궁정(4.29)	강화
	문-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궁정	약간부정, 보통(3.05)	대체
	문-13.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을 유지	보통	보통 (3.06)	창출
	문-13.1.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도시구조	미흡	약간미흡, 보통(2.79)	창출
	문-14. 부여 역사문화유산 또는 전통의 학문적 또는 교육적 가치	궁정	약간궁정, 궁정(4.07)	강화
문화 예술	문-2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	궁정	궁정 (3.97)	강화
	문-21.2. 부여의 역사적 전통의 전승 또는 창조적 변화 발전	미흡	미흡, 약간미흡(2.61)	창출
	문-22.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	미흡	약간미흡 (2.79)	창출
	문-22.1. 문화예술 인력	보통	미흡 (2.46)	창출
	문-22.2. 문화시설 보유	미흡	약간미흡, 미흡(2.31)	창출
	문-22.3. 문화예술 활동	보통	약간미흡 (2.78)	창출
	문-22.4.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지원을 위한 법제도	미흡	미흡 (2.58)	창출
경관	문-31.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	미흡	미흡 (2.64)	창출
	문-31.1.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경관정비	미흡	미흡 (2.53)	창출
	문-31.2. 주요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미흡	미흡 (2.57)	창출
	문-31.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미흡	미흡 (2.37)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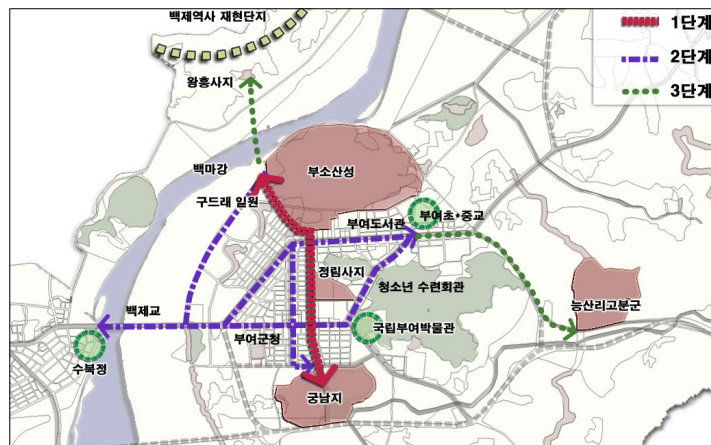
<표 요약-3>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방향(계속)

부문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현황조사	설문조사 (평균)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산업	문-41. 부여 대표 문화(콘텐츠)산업	미흡	약간미흡 (2.85)	창출
경제	문-41.1.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	보통	보통 (2.88)	창출
	문-41.2. 문화산업지원 법제도, 재원, 인력	미흡	미흡 (2.38)	창출
	문-41.3.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	미흡	미흡 (2.68)	창출
주민 의식	문-51. 부여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		보통 (3.02)	창출, 강화
	문-51.1. 부여주민들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궁정 (3.37)	강화
	문-51.2. 역사문화도시를 부여의 미래 대표이미지로 인식		궁정 (3.47)	강화
	문-51.3.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에 참여		약간궁정, 보통 (3.28)	강화
	문-51.4.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미흡 (2.75)	창출

4. 도시이미지 형성방안

분설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별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역사부문에서 현재 부여는 충분한 역사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보다는 보유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를 통한 문화재의 브랜드화 작업이 필요하며, 아울러 역사공간에 대한 장소마케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가지 중심, 문화재 중심의 정비보다는 이미지 강도가 높은 수변자원인 백마강(금강)과 궁남지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사업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 수변자원과 역사문화유산 연계네트워크 구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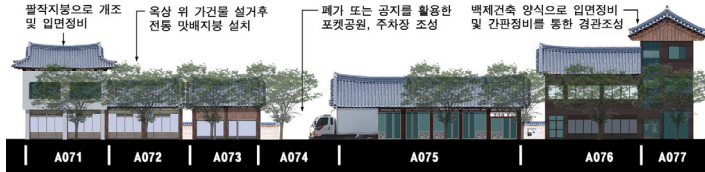
문화예술부문은 우선 역사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정책입안자인 공무원과 주민들이 새로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이 문화관광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부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육성을 하여야 하며, 우선 종합적인 육성계획 하에 지원법제도, 재원확보를 통해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경관부문에서 부여는 시가지 내에 중요한 역사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살려 문화재 주변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정비사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고도보존법과의 연계, 부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문화재 정비사업의 연계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 정비부와 도시과의 통합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2] 부여 시가지 도시경관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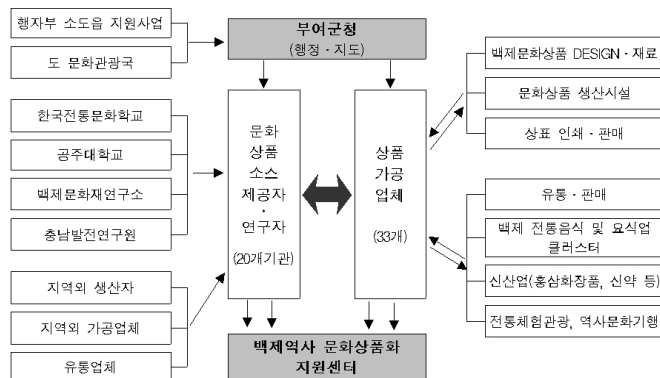
■ 조성후 거리 모습

- ▶ 용도 : 전통을 소재로 한 기념품, 민구, 사무연구센터, 전통음식점의 유도, 유치 → 용도 특성화를 통한 상가 활성화
- ▶ 경관 : 백제양식의 지붕, 입면, 색채 등으로 건축물을 정비, 전통 수종 식재 → 백제시대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산업경제부문에서는 현재 소도읍 사업으로 수립된 문화상품화 육성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도시차원에서 영세한 문화상품업체를 벤처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고, 백제 역사재현단지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제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림 13]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체계(안)



주민의식부문에서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차원의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의 발판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 례

제 1 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3. 연구추진과정	4
4. 용어의 정의	5
1) 지역(地域)	5
2) 도시(都市)	5
3) 이미지(image, 心像, 形象)	5
4) 정체성(identity, 正體性)	6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1.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	7
1) 이미지 개념	7
2) 도시이미지 개념	8
2. 도시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9
1) 도시이미지 형성의 개념	9
2)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10
3) 도시이미지 형성 전략 및 사업유형	12

3. 역사문화도시에 관한 연구	16
1) 역사도시의 개념 및 요소	16
2) 문화도시의 개념 및 요소	20
3) 역사문화도시의 개념 및 요소	24
제 3 장 분석 틀의 설정	26
1. 분석 내용과 절차	26
2. 분석내용별 분석방법	28
1)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도출방법	28
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조사평가 절차 및 방법	31
3)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 도출	32
제 4 장 사례조사	34
1. 조사개요	34
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 사례	35
1) 고도의 이미지를 강화한 교토	35
2)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 볼로냐	44
3)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한 가나자와	52
3. 조사 종합	61
제 5 장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조사 분석	62
1. 현황조사분석	62
1) 역사 - 역사적 장소성, 보존성, 독특성, 미래가치성	62
2) 문화·예술 - 문화적 전통성, 문화예술기반	73
3) 경관 - 도시경관의 독특성	77
4) 산업·경제 - 문화(콘텐츠)산업에 의한 경제적 지속성	80
5) 분석종합	83
2. 도시이미지 조사분석	85

1) 부여 도시이미지 조사 - 1차 예비설문	85
2)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조사 - 2차 설문	91
제 6 장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방안	103
1. 기본방향	103
2. 도시이미지 형성방안	106
1) 역사부문	106
2) 문화예술부문	107
3) 역사문화적 도시경관 정비	108
4) 역사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111
5) 도시 미래이미지의 공유	114
참고 문헌	115
부록 1. 부여군 일반현황	117
부록 2. 부여 도시이미지 분석을 위한 예비 설문 조사	126
부록 3. 부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127
부록 4. 부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2차) 내용 분석	132

표 차 례

<표 2-1> 분야별 이미지에 대한 정의	8
<표 2-2> 도시공간 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11
<표 2-3> 도시브랜드, 관광, 경영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12
<표 2-4>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유형	14
<표 2-5>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사업유형 및 수립방향	15
<표 2-6> 역사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	18
<표 2-7> 역사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	19
<표 2-8>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비교	21
<표 2-9>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 및 주요내용	23
<표 2-10> 문화도시 요소	24
<표 3-1>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28
<표 3-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세부평가항목	29
<표 3-3> 현황조사 방법	32
<표 4-1> 사례조사 항목 및 내용	34
<표 4-2> 교토 경관정비 지구지정현황	39
<표 4-3> 역사도심 zone의 재개발 수법의 타입분류	46
<표 4-4> 코마치나미보존지구의 보조금 지원 내역(가나자와시)	54
<표 4-5> 가나자와의 주요 교육·체험공간	57
<표 4-6> 전통산업 유형	58
<표 5-1> 부여의 도시연혁	63

<표 5-2> 부여 인물들	63
<표 5-3> 부여 문화재 현황	64
<표 5-4>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존상태	65
<표 5-5> 공연예술인력 현황	74
<표 5-6> CT(Culture Technology) 관련 연구기관	74
<표 5-7>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	75
<표 5-8> 문화예술 단체 및 회원	75
<표 5-9> 부여군 문화시설 현황	75
<표 5-10> 문화제 및 문화행사 현황	76
<표 5-11> 문화상품 개발 가능 업체(백제문화관광 기념품 관련업체 현황)	80
<표 5-12> 문화상품 개발 가능 업체(백제문화관광 기념품 관련업체 현황)	81
<표 5-13> 충남 CT산업 현황	81
<표 5-14> 부여 문화상품화사업계획 주요사업 및 예산	82
<표 5-15> 역사문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 현황분석 종합	83
<표 5-16> 부여 연상이미지 요소	86
<표 5-17> 부여 연상이미지 요소 종합	87
<표 5-18> 부여의 미래도시이미지 상에 대한 설문분석	90
<표 5-19>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통계분석	92
<표 5-20> 역사문화도시 형성요소에 대한 부여주민과 지역 외 주민 간의 인식 비교분석	95
<표 5-21> 역사적 장소에 대한 이미지 요소	98
<표 5-22>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미지 요소	99
<표 5-23> 역사적 인물에 이미지 요소	99
<표 5-24> 독특한 역사유산 이미지 요소	100
<표 5-25> 독특한 역사적 장소 이미지 요소	100

<표 5-26> 역사문화적 전통 이미지 요소	101
<표 5-27> 대표적인 문화자원 이미지 요소	101
<표 5-28> 대표적인 도시경관 이미지 요소	102
<표 5-29> 미래 문화산업 관련 문화자원 이미지 요소	102
<표 6-1>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전략 방향과 정의	103
<표 6-2>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방향	104
<표 6-3>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역사부문	107
<표 6-4>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문화부문	108
<표 6-5>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경관부문	110
<표 6-6>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산업·경제부문	113
<표 6-7>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주민의식부문	114

그림 차례

[그림 2-1] 도시이미지 형성과 마케팅 전략의 관계	9
[그림 2-2] 도시이미지 형성전략의 방향과 내용	13
[그림 2-3] 역사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형성 요소	25
[그림 3-1]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26
[그림 3-2] 분석내용과 절차	27
[그림 3-3] 부여 역사문화도시이치지 형성요소 현황 및 설문조사평가 절차	31
[그림 3-4]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33
[그림 4-1] 교토시의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및 풍치지구 현황	37
[그림 4-2] 교토시의 전통산업진흥 기본이념 및 목표	40
[그림 4-3] 토리노(Torino)市の 도시마스터플랜에서의 도시 조닝규제와 area 규제	46
[그림 4-4] 수복 타입	48
[그림 4-5] 보전 타입	48
[그림 4-6] 개조 타입	48
[그림 4-7] 볼로냐의 상징인 포티코	50
[그림 4-8] 하사시차야가이 2001년 중요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	53
[그림 4-9] 하쿠만고쿠 축제 홍보포스터	55
[그림 4-10] 하쿠만고쿠 축제	55
[그림 4-11] 하쿠만고쿠 축제의 가가사다리 오름 공연	56
[그림 4-12] 가나자와 전통예능자들의 전통공연	56
[그림 4-13] 시민예술촌 전경1	57

[그림 4-14] 시민예술촌 전경2	57
[그림 5-1] 용도지구계획도	66
[그림 5-2] 조선시대 부여의 고지도	68
[그림 5-3] 조선시대 부여의 고지도	68
[그림 5-4] 일제시대 부여지도	69
[그림 5-5] 일제시대 부여의 토지구획 정리도	70
[그림 5-6] 백제의 산경문전과 백제금동대향로	73
[그림 5-7] 1967년 부여의 항공사진	77
[그림 5-8] 혼잡한 도로경관	78
[그림 5-9] 정림사지 북쪽 가로모습	78
[그림 5-10] 정림사지 앞 주작대로 가로 현황	79
[그림 5-11] 부여중학교 앞 가로변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현황	79
[그림 6-1]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방안 도출 모형	103
[그림 6-2] 부여 시가지 도시경관 정비(예시)	109
[그림 6-3] 부여 역사문화유산 연계네트워크 방안	110
[그림 6-4] 역사문화자산의 문화산업 응용분야 및 콘텐츠 소재 (연화화생, 청동제모형탑 등)	111
[그림 6-5]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체계-단기 (안)	112
[그림 6-6]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체계-장기 (안)	112
[그림 6-7]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직 체계 (안)	113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식정보, 교통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시가 국가경쟁력의 주체가 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확산으로 자치단체들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탈산업화의 진전, 기업의 자율성 강화, 자본과 인구의 이동성 강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 도시 정부는 도시생존전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 많은 도시들은 도시만의 고유한 이미지 형성과 정체성확보와 브랜드화¹⁾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CI(Corporate Identity), 슬로건 위주로 접근하여 실제적인 도시이미지를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지금까지 국내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미지 전략은 도시의 슬로건, 심벌, 때로는 랜드마크적 경관 조성을 통한 도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1) 세계화와 지방화가 어우러진 이른바 '세방화'의 물결 속에 '도시브랜드'가 국제 경쟁력을 가르는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국가브랜드를 세계 15위권에 진입시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그 '알맹이'라 할 도시브랜드 육성에는 손을 놓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국가브랜드를 도시 단위에 적용한 '하위 개념'으로 여기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우수 도시브랜드들의 가치는 국가브랜드를 뛰어 넘는다. 도시브랜드들이 모여 내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은 국가브랜드가 아니라 도시브랜드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다. (파이낸셜뉴스, 2009.8.2)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 2007년 현재 약 127조원으로 도쿄 668조원의 5분의 1, 런던 399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합친 브랜드 가치 역시 182조원에 그쳤다.

● 2008년 주요국 국가 및 도시브랜드 순위비교

국가	브랜드 순위	도시	브랜드 순위
프랑스	2	파리	1
영국	3	런던	3
이탈리아	6	로마	4
미국	7	뉴욕	5
한국	33	서울	44

주: 서울은 2007년 기준, 자료: 안홀트, GIK로퍼

접근은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제고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바람직한 도시이미지 형성은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나, 단순한 장소마케팅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도시 내 주민과 외 주민들에게 인식될 때 비로써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정체성이 확립되며, 도시가 브랜드화 됨으로서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바람직한 도시이미지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봄으로써, 충청남도 내에 있는 도시정부에 바람직한 이미지 형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형성이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이미지 형성에 대한 방법론의 정립이다. 기존 도시이미지 정립은 단순한 축제행사, 랜드마크 조성 등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정낭비, 경관저해 등 오히려 초기보다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이미지 형성모형을 정립하고 제시한다.

두 번째는 정립된 도시이미지 형성모형을 바탕으로, 방법론을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인 부여에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도시이미지 형성의 접근방향과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도시이미지 형성 방법론이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여러 도시에 소개함으로써 이미지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16개의 시군이 있으나, 시간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1개 시군을 선택하여 수행하였

으며, 대상도시를 부여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시간적 범위 : 2009년 현재를 기준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각과 인지를 통한 도시이미지 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도시이미지 형성모형을 정립한다.

두 번째,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구성요소(역사유산)에 대한 도출과 평가를 통해 형성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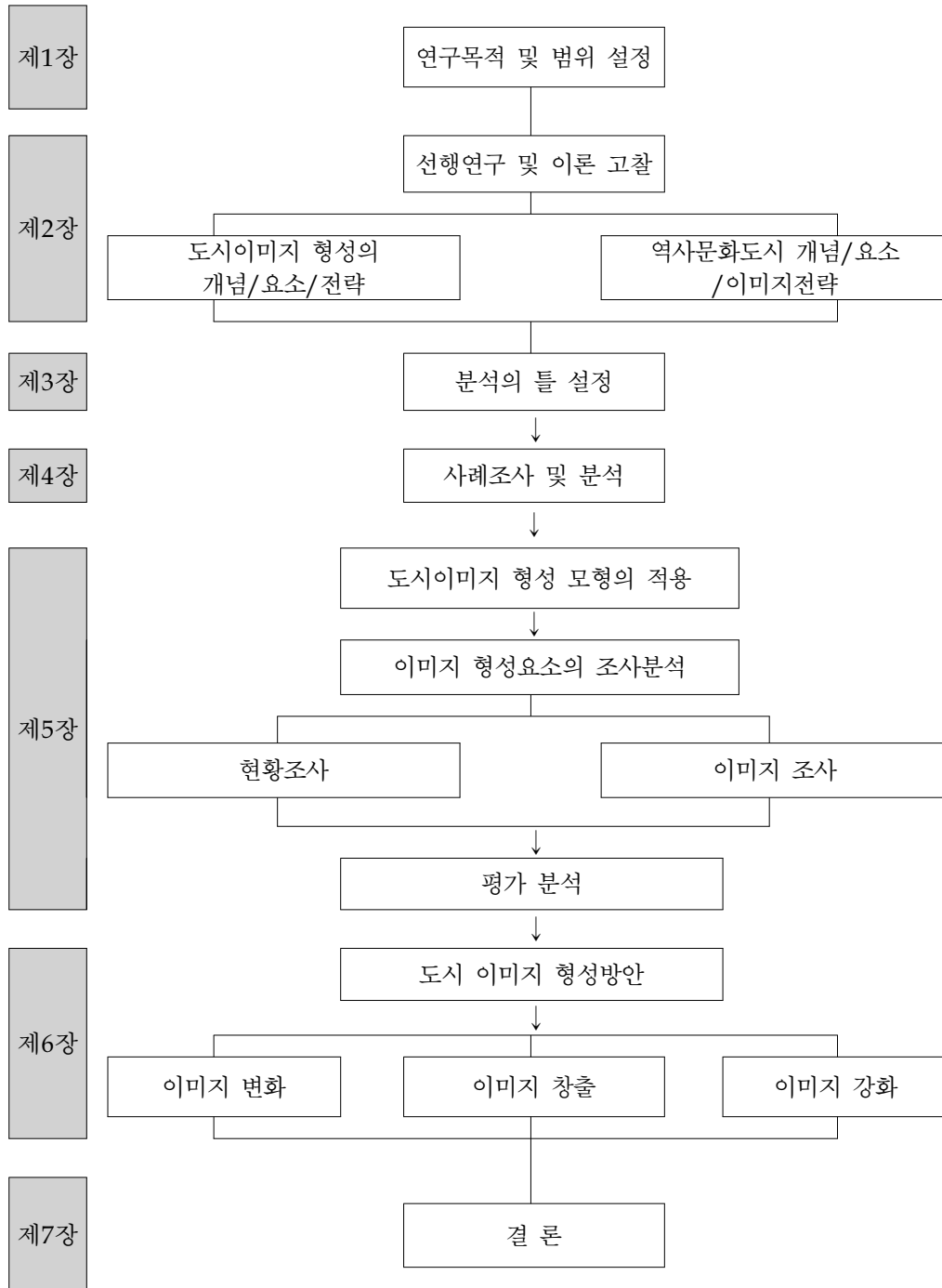
- 도시이미지 형성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 미래 또는 지향하고자 하는 도시이미지 상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방안을 연구하였음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단계에 의해 추진한다.

부 문	접근방법		분석방법
선행연구검토 및 이론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이미지와 형성에 대한 개념 정립 - 역사문화도시 개념 및 요소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문헌 고찰 • 전문가 자문협의
분석의 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와 전략의 관계 정립을 바탕으로 한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정립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의 적용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문헌 및 현장답사 - 고지도, 고문헌, 시군지, 보고서 - 수치지도 및 전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현장조사 • 분야별 전문가 조사
	도시이미지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도시 내외 주민들이 해당도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도/평균 분석 • T-test통한 인식차이 분석
이미지 형성 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요소별 현황조사와 이미지 조사의 비교분석을 통한 형성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강화, 변화, 대체, 창출

3. 연구추진과정



4. 용어의 정의

1) 지역(地域)

사전적 의미에서 지역이란 토지의 구역, 땅의 경계, 또는 그 안의 땅이라 정의하고 있다.²⁾ 즉, 좁은 범위에서부터 넓은 범위까지의 공간적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은 도시, 농촌, 어촌 모든 공간적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계획에서의 지역(region)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수개의 지방행정단위에 걸쳐있는 공간적 범역을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며, 특정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인 범역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지역이란 용어의 의미지 공간적 포괄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의 이미지로서 도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도시(都市)

사전적 의미에서 도시란 일정지역의 정치·경제·문화상의 중추를 이루는 취락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즉, 도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집과 건물(建物)이 많으며, 정부(政府)의 기관(機關)과 사업체(事業體)가 많고 학교(學校)·병원(病院)·오락(娛樂) 시설(施設) 등(等)의 문화(文化) 시설(施設)이 집중(集中)되어 있는 지역(地域)을 의미한다.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며 사람이 많이 살며 정치·경제·문화상의 중추를 이루는 취락을 형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도시란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며 그 행정구역 내에 정치·경제·문화상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구역 내 및 주변지역을 도시라 정의하고자 한다.

3) 이미지(image, 心像, 形象)

이미지의 어원은 ‘닮은’, ‘삶’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imago이며, 心像, 形象이라 한다. 심상이란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작용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映像)이라 정의하며⁴⁾, 특

2) 민중서림, 국어사전, 1996

3) 민중서림, 국어사전, 1996

4)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심상(記憶心像, memory image)이라 한다. 이러한 심상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한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이전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특수한 재생표상으로서, 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상을 말한다.

형상이란 감각적,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상)으로서, 개념적 사고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감각적·직관적인 존재하는 것이다.⁵⁾

심상과 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공통점은 과거에 경험에 근거한 시지각적 상이며, 차이점은 심상은 구체적인 대상과 함께 비 구체적인 대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형상은 직관적이지만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이미지는 경험에 근거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라 정의하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4) 정체성(identity, 正體性)

정체성의 어원은 identitas, identicus이며 idem, 즉 ‘동일하다’는 뜻으로, 자기동일성과 개별성을 내포하고 하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E.H. 에릭슨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념을 자기동일성, 주체성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어원에서 보듯 아이덴티티의 확립이란 자기를 보는 자기의 눈 즉 자기인식을 자기를 보는 타인의 눈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있다는 말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본질·정체를 잘 알고 내면과 외면을 가능한 일치시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항상 ‘-답다’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목적 또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심상을 형성하기가 쉽다.

5) 에릭슨의 삼각형의 형상은 그려져 있는 삼각형의 그림 그 자체이어야 하며, ‘평행하지 않는 세 개의 직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도형’ 등의 개념적 설명이 아니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1.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

1) 이미지 개념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고민석, 2005)

국외 연구에서 리프만(1922)은 이미지는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머리속의 그림’이라 정의하였으며, 코틀러(1988)는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신념, 태도, 인상들의 총체적인 집합체’, 보울딩(1995)은 ‘각 개인에 세계에 대해 갖는 마음속의 그림’이며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각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이해로 구성된다고 말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김정호(2005)는 이미지란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관한 경험과 지각을 통해서 의미화되고 연상에 의해 형성되고 각인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고민석(2005)은 장소마케팅 측면에서 이미지란 심리적인 개념작용, 지각 또는 관념의 결과물로서 임의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인 지식, 인상, 상상력, 감정 등이 표출된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미지란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되고 형성된 실상과 허상의 집합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실체(reality)의 모방이나 재현된 상(象, represented picture)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⁶⁾는 심리, 경영,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형성된 이미지가 그 대상 또는 환경을 평가하고 선호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볼딩은 ‘The Image’에서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였다. 즉 ‘인간은 실제로 사실인 것(what is actually true)’ 보다는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what we believe to be true)’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6) 이미지(image)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 속에 그려지는 상(象), 심상(心象), 표상(表象), 영상(映像)’(엡센스 영한사전, 2005)이다. 이미지의 개념은 고대 불어의 이마주에서 유래하였으며, 라틴어에서는 동사 ‘imitari(흉내내다)’에 명사형 어미 -aro를 붙인 ‘imago’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7)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인 리프만(Lippman)은 <Public Opinion>에서 이미지를 “우리들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머리 속의 그림(mental pictures in our head)”이라고 하며,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와는 불가피한 차이를 지니게 된다. 이미지와 실체와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근원이 이미지라고 말하였다.

〈표 2-1〉 분야별 이미지에 대한 정의

연구분야	이미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연구
1) 심리학적 관점	◦ 기억된 심리적, 정신적 상
2) 사회심리학적 관점	◦ 주체나 객체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는 정신적인 그림
3) 리더십에서의 관점	◦ 한 사람의 가치관, 생각 및 언어는 물론 일상적 행동이나 직무행동 및 그들의 직무성과와 삶의 모든 업적까지를 다 포함한 한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
4) 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	◦ 이미지는 인지의 하나로서 현실과 시각적, 감각적, 혹은 공간적으로 유사한 정신적 이미지나 생각으로 정의
5) 경영전반에서의 관점	◦ 사람, 회사, 제품에 대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실물에 대해 갖는 상상된 실체
6) 브랜드와 이미지에서의 관점	◦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갖는 나의 모습

자료: 김정호, 이미지 메이킹의 이론과 실제, 높은오름, 2008, p14-17

2) 도시이미지 개념

도시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마케팅, 지리학, 조경학, 도시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도시이미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코틀러(Kotler, 1986)는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지역에 갖는 일련의 신념’이라 정의하였고, Kevin Lynch는 도시이미지란 “어떤 도시주민의 대다수가 공유하는 있는 심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도시이미지의 특징으로 일본의 다나카(1998)는 아이타현의 사이타마 지역이미지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1999)에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른 이미지와 결부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이미지 형성되는 것에서 형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개념과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이미지란 “특정도시에 대해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특정도시 외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며, 특정도시⁸⁾에 가지고 대한 심상(心象)”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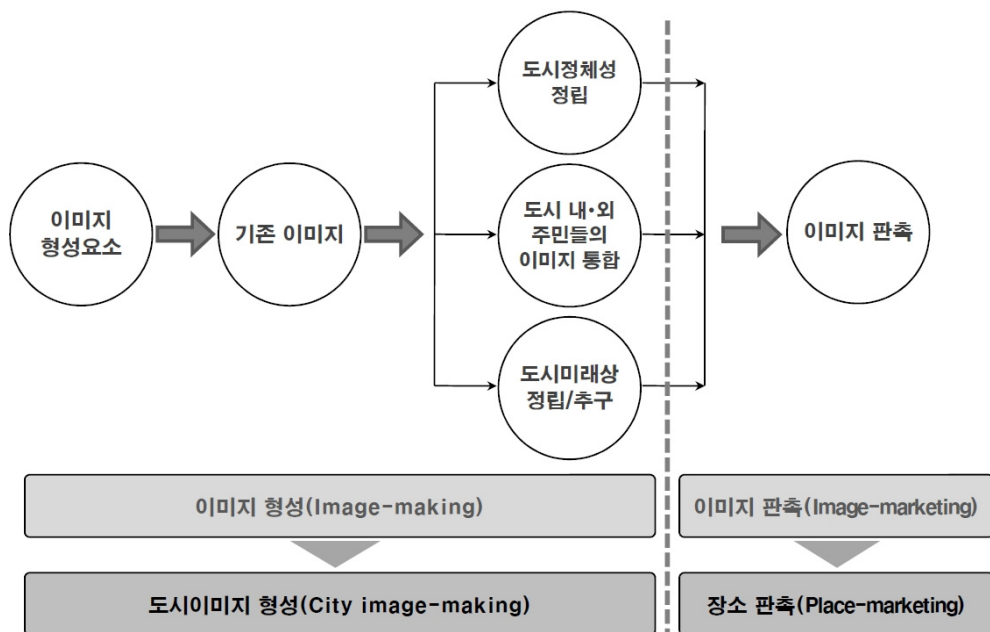
8)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며 사람이 많이 살며 정치·경제·문화상의 중추를 이루는 취락을 형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도시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1) 도시이미지 형성의 개념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도시이미지 형성은 사람들의 도시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시지각적 정보의 단편에 의한 축적과정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형성되게 된다.⁹⁾ 이러한 이미지의 축적 결과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해석 과정을 통하여 행태 반응으로 나타난다. 즉, 사람들은 도시를 동일하게 바라보지만, 지각 대상인 자극의 특성, 동기, 경험 등의 지각적 환경과 관련지어 판단되며, 개인적인 인지 양식의 차이에 의하여 다르게 평가되어진다.

반면, 도시 및 환경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이미지 형성(city image-making)은 도시이미지 구축(city image-building)이며, 이미지 형성차원에서 도시이미지 형성의 개념은 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도시가 추구하는 미래목표를 지역 내외주민과 공유하며,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도시차원의 통합적으로 노력 또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1] 도시이미지 형성과 마케팅 전략의 관계

9)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를 개념화하고, 기억·평가하는가는 지각, 인지,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분석되며, 도시 구성 요소에 따라 심리적 반응과 선호 태도로 표현되어지며, 이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도시이미지(city image) 형성은 형성되는 것이나, 도시 및 환경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이미지 형성(city image-making)이란 도시이미지 만들기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마케팅 또는 장소마케팅(place-marketing)이란 형성되었거나 잠재된 도시이미지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 또는 특정장소를 홍보, 판매함으로써 인지도와 호감도를 증진시켜 방문객을 증대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도시공간측면에서의 연구와 도시브랜드, 관광, 경영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시공간 측면에서 Sitte(1889)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형성요소를 파악하였고, Kevin Lynch(1970)는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를 paths, edges, districts, nodes, landmarks 등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도시민의 인지 구조 속에 자리잡은 인지도를 만들어서 도시이미지를 평가하였다.¹⁰⁾ San Francisco(1970)는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를 도시내부패턴, 도시외부형태, 도시순환체계, 환경의 질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Shiravani(1985)는 측정요소, 비측정요소, 일반요소로, Jon Lang(1994)은 행위와 관련된 환경요소, 환경과 관련된 요소로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를 분류하여 연구를 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승담(2005)이 도시구조물적 요소, 상징적 요소, 문화적 요소, 공간환경적 요소, 도시기능적 요소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는 초기에는 물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물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상징적 요소, 질적인 요소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경영, 관광측면에서의 연구로서 박경애(2004)는 경제수준, 시민성, 보수성, 발전가능성 등으로, 고민석(2005)은 도시개방성, 도시현대화, 도시정체성, 도시안정성 등으로, 김남정(2005)은 실체적, 상징적, 개인경험 요소 등으로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를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경영, 관광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인문사회적 환경요소에 더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초기 연구는 공간분야에서는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영, 관광측면에서는 인문사회적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통합적 접근에 의한 연

10) 케빈 린치의 인지도에 의한 도시이미지 연구는 이후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쳐, Appleyard(1976)는 Lynch의 연구결과를 검증하였으며, Lynch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Nasar(1998)와 Banai(1999)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형성요소의 파악과 분류는 현재적 관점에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요소 중심의 분석과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위해 목표상에 부합되는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전략도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2-2〉 도시공간 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연구자	형성요소	
Sitte(1889)	물리적 요소	• 광장, 가로, 공원, 블록과 이들의 연속성 및 상호관계
Lynch(1960)	이미지 요소	•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지표물(landmark)
	연상학적 인자	• 정체성(identity), 구조, 의미, 시각, 이미지, 이해
San Francisco (1970)	도시내부패턴	• 중심지(focal point), 조망부(view point), 지표물(landmark) 등
	도시외부형태	• 스카이라인, 도시이미지, 정체성 등
	도시순환체계	• 가로 및 도로의 유지관리, 질서, 공간감, 루트 등
	환경의 질	• 자연요소, 오픈스페이스 간의 거리, 가로입면의 시각적 흥미로움, 시각의 질, 소음, 미기후
Shiravani (1985)	측정요소	• 토지이용, 건물형태, 순환 및 교통체계, 오픈스페이스, 보행로, 안내체계 등
	비측정요소	• 접근성, 조화, 시각구조, 감각, 활력, 정체성 등
	일반요소	• 사회정의, 평등, 형평성
Jon Lang (1994)	행위와 관련된 환경요소	•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활동들과 용도, 공공공간의 미적표현, 이용자 관리
	환경과 관련된 요소	• 인공재료(건축물, 광장, 가로, 장치물, 조명 등) • 자연재료(돌, 식물, 토양, 바람, 태양 등)
최승담 박경렬 (2005)	도시구조물적 요소	• 도로, 경계선, 도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상징적 요소	• 기념물, 건축물, 랜드마크, 심벌 등 도시연상요소
	문화적 요소	• 역사, 전통, 생활풍습, 축제 등
	공간환경적 요소	• 오픈 스페이스, 스카이라인 등 경관적 요소
	도시기능적 요소	• 인구, 산업구조, 경제발전 정도 등 사회적 요소

자료 : 윤장우(2001), 김남정(2005), 김훈(2007) 논문을 참조 후 재작성

〈표 2-3〉 도시브랜드, 관광, 경영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

연구자	형성요소			
박경애 (2004)	경제수준	• 경제적 발전, 생활수준, 경제적 안전성, 연구수준		
	시민성	• 친절성, 정직성, 규범준수		
	보수성	• 시민보수성, 정치적 보수성, 배타성, 정체된 도시		
	발전가능성	• 발전가능성, 발전잠재능력		
고민석 (2005)	도시개방성	• 도시내 외적 요인 - 기업환경, 호감도, 친절도		
	도시현대화	• 도시내 내적 요인 - 경제수준, 민주화, 기술수준		
	도시정체성	• 도시외 외적 요인 - 고유문화, 문화수준, 비전		
	도시안정성	• 도시외 내적 요인 - 치안수준, 노사관계, 정치환경		
김남정 (2005)	실 체 적	단위시설(건축물요소)	시설명, 건축물명 등 특정 도시에 존재하는 것	
		장소 요소	장소의 개념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것	
		자연·환경 요소	자연환경, 환경관리와 관련되는 것	
		도시환경 요소	도시환경과 관련된 단체 혹은 복수 개념인 것	
	상 징 적	사회·문화·활동요소	사회, 문화, 활동적 분위기와 관련되는 것	
		공간·지리·위상요소	도시 크기, 위치, 상징성과 관련된 것	
		시대·시계열요소	특정한 시대, 시간적 연속성과 관련된 것	
		도시생활요소	주거·문화 등 기본적 생활 관련된 것	
	개인경험 요소		개인의 경험적 환경에 관련된 것	
장강지 서운석 (2006)	경제적 여건		• 경제수준, 기업환경, 국제화수준, 도시기반시설	
	삶의 질		• 생활환경, 교육, 의료복지, 도시안전, 도시여가	
	시민의식		• 시민의식	
	자연문화		• 문화경관, 환경의 질	

자료 : 윤장우(2001), 김남정(2005), 김훈(2007) 논문을 참조 후 재작성

3) 도시이미지 형성 전략 및 사업유형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은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증진시키고 정주성을 높여 안정적인 도시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의 유치 및 활동 증진하며, 긍정적인 도시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서 생산, 유통하는 제품들에 신뢰도를 높여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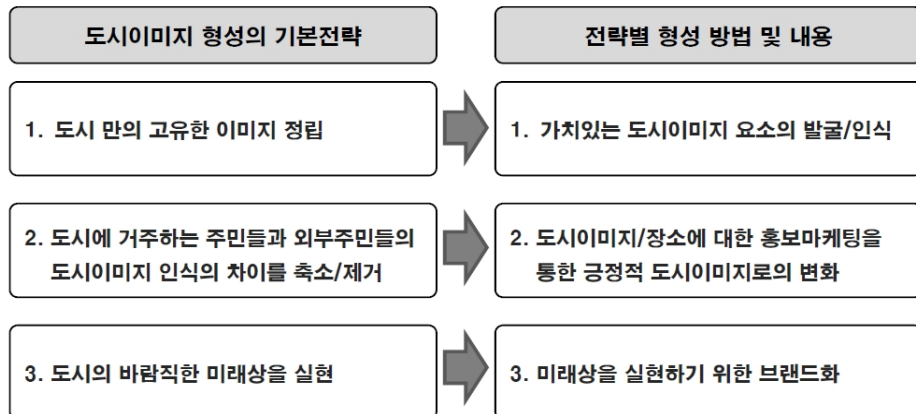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및 환경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이미지 형성(city image-making)에서의 전략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이미지와 왜곡된 이미지 간의 인식차이를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도시는 그 도시가 가져야할 본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도시의 참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요소에 대해 인식을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요소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도도시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둘째는 도시 내 주민들과 도시 외 주민들이 보는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그 도시에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이미지와 외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차이를 보이 것은 흔하다. 이는 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도시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그 도시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지역주민들과 외부 주민들 간의 관심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는 현재의 도시이미지를 이상적인 도시이미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의 도시이미지는 도시의 미래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도시간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도시는 생물과 같이 진화하고 발전해야 하며, 도시만의 특성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

[그림 2-2] 도시이미지 형성전략의 방향과 내용



한편, 도시마케팅(city image-maketing) 차원에서 전략유형에 대한 연구는 이무용(2003), 김세용(2009) 등이 수행하였으며, 이무용(2003)은 브그드 외(Ashworth & Voogd, 1990)의 주장을 빌어 정리한 <표 2-4>와 같이 네 가지로 대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는 전략 형태인 이미지 강화형, 두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유형인 이미지 변화형, 세 번째 유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희박해진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전력 형태인 이미지 창출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4>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유형

구분	이미지 강화		이미지 창출	이미지 대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이미지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하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평범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 부재하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전략
기존이미지 평가	긍정적	중립적	부재	부정적
고객반응 유도	반응강화	반응강화·변화	반응형성	반응변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이미지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문화인프라와 상품에 대한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토달마케팅 전략수립, 이미지마케팅 타겟선정,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통한 목표시장 선정, 그에 따른 상품개발 	

자료 :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 마케팅 전략, 논형, p92을 바탕으로 재작성

도시이미지 형성은 도시 및 환경계획적 측면, 도시마케팅 측면의 전략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 또는 도시에 있어 도시이미지 형성은 도시마케팅 측면 또는 장소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마케팅의 속성이 현재적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살려 판촉에 연결함으로써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상업적 차원의 특정 제품 등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공공적 성격과 장기적 시간의 축적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에 있어서 장소마케팅은 기반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세용(2009)은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연구로서 사업유형별로 성격에 따라, 도시브랜드 사업, 도시축제 및 이벤트, 도시경관 조성, 창조적 도시개발 등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2-5〉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사업유형 및 수립방향

사업유형	성격	수립방향
도시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주: 소프트웨어 -부: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드(CI)제작 및 슬로건 개발 • 상징물 및 랜드마크 조성 • 장소성 증진 • 지역고유의 문화시설 조성 및 특성 보존
도시축제 및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홍보마케팅 -주: 소프트웨어 -부: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도시축제 및 이벤트 개최 - 예: 문화이벤트·축제 및 행사, 장소홍보·관측
도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 하드웨어 -부: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 관리 - 지역성이 반영된 도시경관 형성 • 특색 있는 주거지 경관 조성 • 가로경관 정비 - 가로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 옥외광고물 정비
창조적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및 도심활성화 -주: 하드웨어 -부: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도입한 도시재생 추진 - 집객력 있는 문화시설 도입(박물관, 미술관, 오페라극장, 컨벤션센터 등) - 컴팩트한 도시개발 - 보행 친화적 중심가로 조성 • 주제가 있는 테마도시 조성

자료 : 김세용 외, 도시이미지전략의 유형별 사례연구, 국토계획 제44권 제1호 2009.2을 참조하여 재작성

3. 역사문화도시에 관한 연구

1) 역사도시의 개념 및 요소

(1) 역사도시의 개념

「역사도시(歴史都市)」는 영어로 historic city라 쓴다. city에서 ‘historic’ 적 성격을 가진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는 ‘historic’ 이란 형용사와 유사한 ‘historical’이란 형용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도시라 지칭할 때는 historical city라 하지 않고 historic city라 쓴다. 이는 ‘historical’ 이 「역사적인」, 「역사성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반해, ‘historic’ 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라고 하는 의미한다.¹¹⁾ 즉 영어적 의미에서 역사도시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말한다.

인류는 수천년에 걸쳐 삶의 공간을 만들고 무수히 많은 도시를 창조해 왔다. 그리고 이미 소멸된 도시도 포함하여, 지금까지 건조된 모든 도시가 역사성을 띠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시는 모든 것이 historical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도시로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 즉 historic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도시」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지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극히 일부의 도시에 지나지 않는다.(リムボン, 2006)

국내에서 역사도시에 관련한 개념정의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이론고찰로서 추진되었는데 김동훈(2003), 박훈(2009)은 역사도시란 오랜 세월에 걸쳐 생성된 고유의 역사 환경, 유적, 정신을 가지며 한 장소에 살던 사람들이 문화양식을 유지하며 그들만의 고유 사상을 토대로 살아가는 도시며, 단지 역사유적 만을 가진 도시가 아닌 정신까지도 유지하며 살고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였으며, 주영철(2005)은 역사도시를 역사성을 강조한 개념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로 정의하였고, 최선주(1994)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역사도시란, 역사성을 간직한 환경과 도시가 지닌 역사성이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래의 도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김영대(1992)는 역사도시는 도시 자체가 역사적 가치를 내포한 도시로 단순히 유물이나 유적지 몇 개 있는 도시가 아니라 옛 도읍지가 그러했듯이 과거의 잔존과 양식이 시가지나 도시경관이 이어받은 도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²⁾

11) Historic refers to fame or importance in history and Historical is a less judgemental word that refers to something as a fact or to its connection with history.

12) 물론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역사적 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가치 있는 역사적 축적이 도시문화경관으로 표출되며 살아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지운 외, 2008, 백제 역사문화도시 기본구상, p.85를 참조하여 정리.

최근 도입되어 시행예정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2009.6.9 법률 제9763호)에서는 역사도시와 유사한 용어로서 고도(古都)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고도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원과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역사도시(歷史都市, historic city)란 인류, 국가, 민족에게 있어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물리적(유형), 정신적(무형)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역사도시(historic city)에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환경이란 과거의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적 가치를 포함하여, 인류, 국가, 민족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도시의 요소

역사도시(historic city)의 정의와 규범, 법제도 및 연구에 나타난 역사도시의 요건을 살펴보면, 세계유산 역사도시에 대한 규범(2008)에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역사도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역사도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20세기 신도시를 역사도시로 분류함으로써 역사도시 요건에 있어 시간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규범으로 알 수 있는 역사도시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 시기와 문화적 특징을 가지며,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아 거의 또는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도시, 둘째, 독특한 전통에 따라 발전된 도시¹³⁾, 셋째, 고대도시가 위치한 역사적 중심지역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입지한 현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시, 넷째, 사라진 역사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도시지역, 영역 또는 격리된 구역을 가지고 있는 도시 등을 요건으로 보고 있다.¹⁴⁾

문화재청(2009)의 역사도시와 유사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도를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¹⁵⁾

박훈(2009)은 역사도시의 요건으로서 첫째, 시간적 지속의 역사성, 둘째, 문화적인 지속성이 전통성, 셋째, 진실된 생활공간(환경)이 투영되어 있는 진정성(authenticity), 넷째, 도시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건물군이 존재하고 현재성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때때로 이러한 도시들은 역사적 전성시기에 독특한 자연환경, 공간배치와 및 구조가 있음

14) WORLD HERITAGE CENTR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09, p87-89 참조

15)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있으며 법상 고도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이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정의함으로써 역사도시 환경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림본(2006)은 역사도시의 조건으로 첫째는 문명의 흥망에 관련되는 중대한 역사적 사상에 조우한 경험을 가져, 그 「교훈」을 계승하고 있는 도시, 둘째, 미래를 향해서, 인류가 걸어야 할 이치, 혹은 문명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도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로 조건을 상정하였다.

〈표 2-6〉 역사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

구 분	주 요 내 용	
세계유산 역사도시에 대한 규범 (unesco, 2008)	① 보존성	특정 시기와 문화적 특징을 가지며,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아 거의 또는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도시
	② 전통성	독특한 전통에 따라 발전된 도시, 때때로 이러한 도시들은 역사적 전성시기에 독특한 자연환경, 공간배치와 구조가 있음
	③ 장소성	고대도시가 위치했던 역사적 중심지역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입지한 현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시
	④ 독특성	사라진 역사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도시지역, 영역 또는 격리된 구역을 가지고 있는 도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2009)	① 장소성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
도시공간정치 학적 측면에서 역사도시의 가치설정 방법론 연구 (박훈, 2009)	① 역사성	시간적 지속의 역사성이 있는 도시
	② 전통성	문화적인 지속성이 있는 도시
	③ 진정성	진실된 생활공간(환경)이 투영되어 있는 진정성(authenticity)이 있는 도시
	④ 현재성	도시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건물군이 존재하고 있는 도시
역사도시의 빛과 그림자 (림본, 2006)	① 장소성	문명의 흥망에 관련되는 중대한 역사적 사상에 조우한 경험을 가져, 그 「교훈」을 계승하고 있는 도시
	② 가치성	미래에 인류가 걸어야 할 이치, 혹은 문명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도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연구 검토를 통해 역사도시의 요소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갖춘 도시를 역사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인류, 국가, 민족에게 있어 정치·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여야 한다. 즉 인류, 국가, 민족사회에 문명에 흥망성쇠를 역할을 하였거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였던 장소여야 한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역사유산이 있는 도시로서 문화예술, 경제적 측면에서 귀중하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역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유산¹⁶⁾이 있는 도시로서 후세에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유산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네 번째, 역사적으로 유명한 역사유산이 있는 도시로서, 역사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역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표 2-7〉 역사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

요 건	주 요 내 용	비 고
①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 - 고대도시가 위치한 역사적 중심지역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입지한 현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장소적 요소 - 도시위치, 입지 등
② 보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시기와 문화적 특징을 가지며, 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거의 또는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유적적 요소 - 유적, 문화재 등
③ 독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진 역사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도시지역, 영역 또는 격리된 구역을 가지고 있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적 요소 - 공간구조, 배치, 자연환경 등 - 기념물, 건축물, 건축물군 등
④ 전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전통에 따라 발전된 도시 - 때때로 이러한 도시들은 역사적 전성시기에 독특한 자연환경, 공간배치와 및 구조가 있음 - 문화적인 지속성이 있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적 요소 • 무형적 요소
⑤ 가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유산이 있는 도시로서 후세에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유산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 •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중요성이 잘 알려져 역사도시로서 잘 알려진 도시 - 미래를 향해서, 인류가 걸어야 할 이치, 혹은 문명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도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적 요소 - 사상, 철학, 문학 등 - 인지도, 호감도 등

16)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의 등록기준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1.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결과품을 대표 할 것, 2.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3.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4.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5.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6.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으로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등이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유산에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자료: <http://www.unesco.or.kr>)

2) 문화도시의 개념 및 요소

(1) 문화도시의 개념

문화도시¹⁷⁾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¹⁸⁾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가 갖는 다원성과 다의성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Kroeber와 Kluckhohn(1952)는 문화의 개념을 수집한 결과 무려 175개에 달하는 정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고, 유네스코(UNESCO)도 각 학자들이 논의를 종합하여 문화를 정의하면서 “이것은 이전 정의에 또 다른 하나의 정의를 추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⁹⁾ 다만 문화도시의 다양성과 역사문화도시의 개념과 조건을 정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문화는 “인간에 의해 형성되어 시대 혹은 집단이 공유하는 총체적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 놓은 행동양식,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하나의 사회생활양식 전체를 문화라 할 수 있다.(UNESCO)

이처럼 문화란 본래 전통과 예술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로 매우 광의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적 차원에서의 문화의 의미는 문화도시를 정의하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화도시를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의미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문화라는 용어를 쓰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문화주택 등), 두 번째는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문화인·문화재·문화국가 등), 세 번째는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킨다.²⁰⁾

17)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도시(文化都市)란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라 정의하고 있다.(자료: <http://krdic.naver.com/> 국어사전)

18)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19) 백대흠·김세용, 2008(12),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구청별 문화정책,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12호(통권 242호): p.227에서 인용.

20) 세 번째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문화가 없는 인류가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未開)와 문명(文明:高文化)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

즉, 문화의 언어 의미론적 분류상 문화도시를 정의하면, 철학 · 종교 · 예술 · 과학 등의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을 공유하며, 세련된 생활할 수 있는 예술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도시의 언어 의미론적 개념과는 다르게, 문화도시라는 단어는 유럽도시의 문화적 배경과, 산업쇠퇴에 따른 신성장 동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정책의 수단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표 2-8〉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비교

구 분	문화도시(cultural city)	창조도시(creative city)
발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리나 메리쿠리(Melina Mericuri) - 그리스 장관(영화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 카네기 멜론대학 교수(지역개발학자)
발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 유럽도시의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 신경제체제에 의한 첨단 산업 변환기
주요 적용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 공업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호주, 일본 등 - 첨단 중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 활용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인 도시환경 창출 - 문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인 인구유입이 가능한 지역개발 - 창조성을 창출할 수 있는 인구와 활동, 장소의 개발
주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인 도시기반 환경의 정비 - 역사문화의 보존 - 도시환경의 미관화 · 미학화 - 예술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산업의 유치 및 도시매력 창출 - 오락, 여가, 예술 활동 강조 - 도시 내 다양성 측정 - 산업적 클러스터의 형성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문화적 재생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육성 - 정보통신·사이버산업지구 조성

참고 : 라도삼 2006,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2006.1월호, pp.24.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황동렬(2000)은 문화도시란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등 문화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으며,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도시문화벨트가 1개 이상 존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갖춰진 도시로, 백

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대흠·김세용(2008)은 문화도시를 문화적 기반과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풍부하고, 도시의 모든 문화적 자원들이 충분히 활용가능한 도시라고 개념화하였다. 김효정(2004)은 문화도시란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친환경적 환경조성을 통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였고, 김세용(2007)도 문화도시는 아직은 모호한 개념이나 대체로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방면의 환경조성을 시도하는 도시, 주민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즐길 수 있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주민 스스로가 문화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거버넌스도시라고 정의하였다. 조성룡(2003)은 문화도시란 문화공간이 충분한 곳이 아니라, 도시에 시대적, 문화적 흔적이 쌓이고 인간들의 일상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대가 보태가는 살아있는 도시라고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하였다.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도시란 결국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도시구성원들이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도시경쟁력이 향상된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도시의 개념을²¹⁾ 언어의미적, 도시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지식, 문화예술, 역사문화자원, 환경 등)을 바탕으로 창조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문화도시의 요소

문화도시 개념의 차이에 따라 문화도시 요소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 김효정(2004)은 기존 문화도시의 특징과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기능적 도시기반시설’, ‘개성적인 도시경관’, ‘차별화된 문화·예술인프라’, ‘저(低)속도의 도시교통’ 및 ‘유기적인 성장’을 강조하였고, 라도삼(2006)도 ‘역사성과 정통성’, ‘공동체성’, ‘아름다운 도시미학’ 및 ‘지속가능한 동력’ 제시하였고, 추용욱 외(2006)는 ‘역사성과 정통성’, ‘유기적인 문화인프라와 문화정책’ 및 ‘개성적이며 특징적인 문화공간과 도시경관’을 문화도시의 요소로 보았다.

이 밖에 정주환(2008)은 ‘문화기반’, ‘문화적 정체성’, ‘창조성’ 및 ‘산업화’ 등을 문화도시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21) 문화도시의 개념의 다의성으로 인해, 문화도시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는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문화도시 개념을 단순히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설정한 뒤 외국의 사례를 무작정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세운다고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문화를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표 2-9〉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 및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문화도시 육성방안연구 김효정 외 (2004)	① 기능적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교통, 녹지환경, 고용창출, 교육, 위락시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생할 수 있을 것
	② 개성적인 도시경관	미학적, 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독특한 도시경관을 보유할 것
	③ 차별화된 문화·예술 인프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화시설, 문화·예술품, 문화·예술행위
	④ 저속도의 도시교통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전차, 저상버스 등 저속도의 도시교통시스템 - 여유로운 도시환경
	⑤ 유기적인 성장	친환경적인 도시환경(녹지, 생태하천, 재생에너지 등) 구축을 통한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유기적 성장환경 필요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라도삼 (2006)	① 역사성과 정통성	역사를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② 공동체성	공동의 목표, 공동체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여유, 민주주의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③ 아름다운 도시미학	시민의 일상의 삶과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 인간주의적 도시설계
	④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풍부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산업경제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로 구성
문화도시의 가로경관 재생을 위한 연계전략연구 추용욱 (2006)	① 역사성과 정통성	역사적 유산과 전통적 문화가 도시 곳곳에 묻어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유기적인 문화인프라와 문화정책	과거-현재-미래를 담을 수 있는 문화인프라와 지역문화를 만들고, 문화생산자 및 소비자가 체험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③ 개성적·특징적 문화공간과 도시경관	그 도시만의 문화적 개성과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을 것
문화도시의 요건과 법적과제 정주환 (2008)	① 문화기반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 문화정보시스템, 문화인력, 문화 관련 제도와 조례 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문화적 정체성	지역 만의 전통문화, 문화행사, 문화예술시설, 인물, 사상 및 이미지를 자원으로 한 문화적 정체성이 있을 것
	③ 창조성	공연, 축제, 행사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창조적 문화가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④ 산업화	문화자원, 문화콘텐츠에 기반하여,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 있을 것

기 연구된 문화도시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도시 요건으로 ‘역사성과 전통성’, ‘문화예술 창조성’, ‘도시경관의 독특성’,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등 5가지 속성을 문화도시 요건으로 도출하였다.

〈표 2-10〉 문화도시 요소

구분	김효정 (2004)	라도삼 (2006)	추용욱 (2006)	정주환 (2008)	문화도시 요소	비 고
역사성과 전통성		●	●	●	●	역사성과 전통성
차별화된 문화예술 인 프라	●		●		●	문화예술 창조성
창조적인 문화활동	●			●		
문화적 기반-법제도				●		
개성적 도시경관 -아름다운 도시미학	●	●	●	●	●	도시경관의 독특성
기능적 도시기반시설	●		●			
저속도의 도시교통	●					
유기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	●		●	●	도시경제의 지속가 능성
공동체성		●		●	●	공동체성

3) 역사문화도시의 개념 및 요소

(1) 역사문화도시의 개념

어느 도시나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나, 이러한 광의적 차원의 의미해석은 역사도시와 문화도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역사도시와 문화도시의 개념과 형성요소를 고찰하여 보았으며, 검토결과 역사도시 개념과 문화도시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대부분의 도시들이 문화도시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모두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만큼 현실에서 역사문화도시의 실현은 쉽지 않다.

역사문화도시란 역사도시와 문화도시가 융합되어 형성되는 도시라 할 수 있으며, 도시정책과 계획적 측면에서 역사문화도시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자산의 적극적·창조적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살기좋은 도시, 살고싶은 도시로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문화도시란 도시가 지닌 역사성뿐만 아니라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담보하여야 한다.(김효정, 200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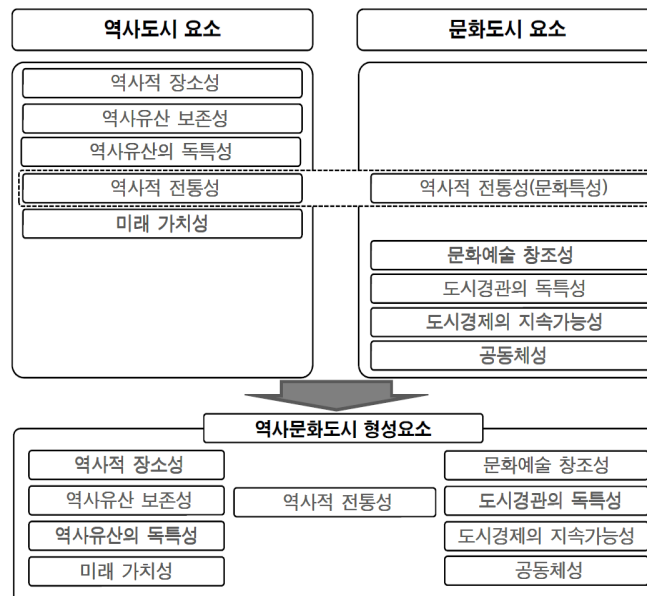
따라서 역사문화도시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창조적, 내생적 발전을 이루는 도시’ 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도시의 요소

역사문화도시란 역사도시와 문화도시를 함축하고 있으며, 역사문화도시 요소는 역사와 문화도시의 2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역사문화도시의 요소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검토결과 역사도시란 역사도시로서, 문화도시란 문화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으며, 요소 중 일부는 역사도시와 문화도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소가 있었다.

역사문화도시의 요건은 8가지 속성으로 구성되며, 역사적 장소성, 역사유산 보존성, 역사유산의 독특성, 역사적 전통성, 미래 가치성, 문화예술 창조성, 도시경관의 독특성,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3] 역사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형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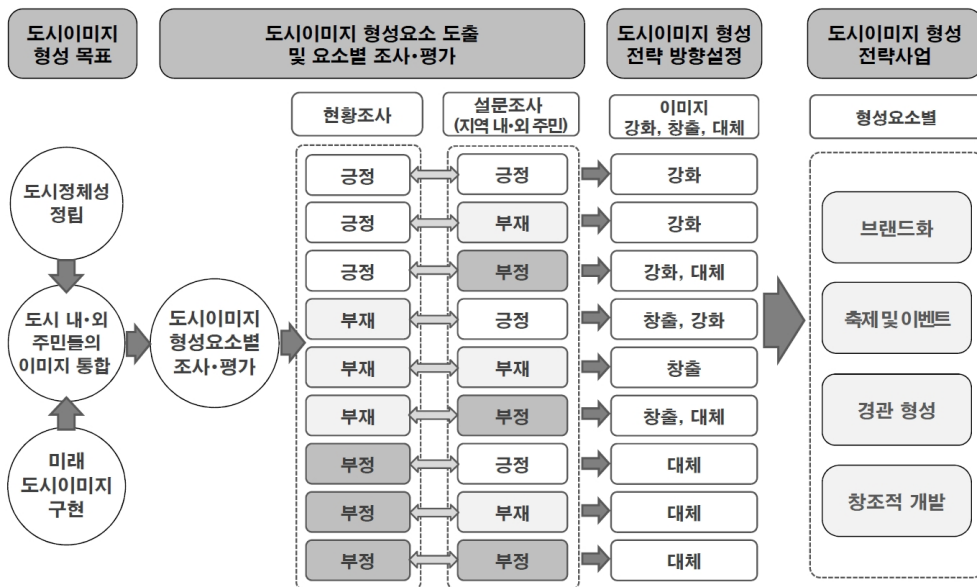
제 3 장 분석 틀의 설정

1. 분석내용과 절차

도시이미지 형성의 개념, 형성요소 및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도시이미지 형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

첫째, 해당도시주민들이 해당 도시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당도시주민들이 인식하는 도시이미지 상을 해당도시 외 주민들이 공유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래의 도시이미지 상이 해당 도시 내외 주민들에게 공유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1]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적용 절차는 첫째, 그 도시의 미래 도시이미지 상을 도출하며, 둘째, 도시이미지 상을 구현하는 형성요소를 도출하고, 셋째, 도출된 형성요소를 바탕으로 현황 및

이미지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며, 넷째,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사업을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1) 미래 도시이미지 상에 대한 의식조사

부여 도시이미지 정립에 있어 ‘역사문화도시’를 미래의 부여 도시이미지로서의 대표성을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도시전체이미지에 대한 조사한다.

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및 평가항목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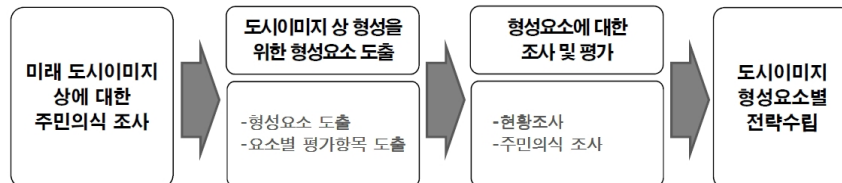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를 바탕으로 세부평가항목을 도출한다.

3)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의 조사 및 평가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를 바탕으로 도시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4) 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전략 검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상을 정립하기 위해 형성요소별 전략 검토한다.



〔그림 3-2〕 분석내용과 절차

2. 분석내용별 분석방법

1)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도출방법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도출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미지 형성요소인 역사부문 4개, 문화부문 2개, 경관부문 1개, 경제산업부문 1개, 주민의식부문 1개 등 총 9개 요소를 바탕으로 세부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의 도출은 2단계에 걸쳐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형성요소를 바탕으로 연구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요소별 세부평가항목 초안을 작성하였다. 다음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세부평가항목을 최종 도출하였다. 분야별로는 역사문화부문 3명, 도시경관부문 3명, 경제부문 3명, 공동체 부문(주민의식) 3명 등 총12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형성요소 조사평가항목은 5개 부문, 31개의 평가항목이 도출되었으며, 형성요소별 세부평가항목과 내용은 <표 3-1>, <표 3-2>와 같다.

<표 3-1>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부 문	형소 요소	항목수	세부평가 항목
5개	9개 요소	31개	
역사	역사적 장소성	4	• 역사적 장소성 -역사적 장소, 사건, 인물
	역사유산보존성	3	• 역사유산 보유 정도 -역사유산의 진정성, 법제도
	역사유산 독특성	2	• 역사적 환경 -공간구조·배치 상 타 도시와의 독특성
	미래가치성	1	• 학문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가치성
문화	역사문화적전통성	3	• 역사문화적 정체성 -고유한 전통의 유무, 전통 계승
	문화예술창조성	5	• 문화예술 창조기반 -인력, 시설, 활동, 법제도
경관	경관 독특성	4	• 독특한 도시경관 -역사도시경관, 연계교통체계, 사회적 약자배려
경제산업	경제적 지속성	4	• 문화(콘텐츠) 산업 -차별화된 문화자원, 산업지원체계, 미래지속성
주민의식	공동체성	5	• 문화적 공동체 의식 -자긍심, 대표이미지인식, 행사참여, 참여기반

〈표 3-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세부평가항목

분야	형성요소	세부 평가 항목 및 내용
역사부문	역사적 장소성	11. 인류, 국가,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인가?
		11.1.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장소는 어디인가?
		11.2.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11.3. 역사도시에서 활동한 역사적 인물은 누구인가?
	역사유산 보존성	12. 특기할 만한 역사적 유적이나 기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인가?
		12.1. 진정성 있는 유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가?
		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역사유산 독특성	13. 역사적 특징을 보여주는 공간상의 구조와 배치 등 역사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인가?
		13.1. 역사도시의 공간구조와 배치 등 타 도시와 비교하여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미래 가치성	14. 도시가 보유한 역사유산 또는 무형의 전통이 인류,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활용되거나, 학문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도시인가?
문화부문	역사문화적전통성	21.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이 있는 도시인가?
		21.1. 고유의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이 있는가?
		21.2. 역사문화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도시인가?
	문화예술창조성	22.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
		22.1. 문화예술(미술, 음악, 서예, 공예 등)인력이 있는가?
		22.2. 문화시설 -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시연장, 문예회관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22.3. 문화예술활동(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이 활발한가?
		22.4. 문화예술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갖추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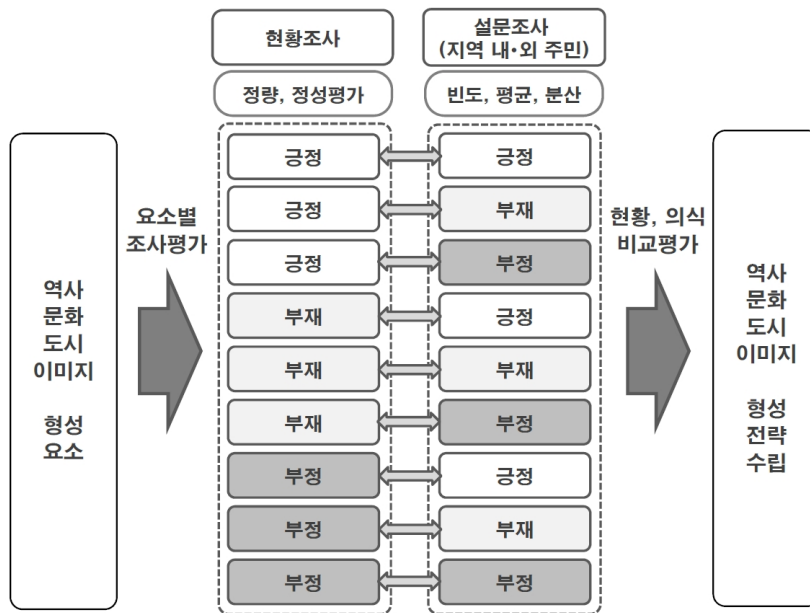
〈표 3-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세부평가항목 (계속)

분야	형성요소	세부 평가 항목 및 내용
경관부문	경관 독특성	31.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건축물, 가로시설물,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는가?
		31.1.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경관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31.2. 주요 역사문화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31.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가?
경제산업 부문	경제적 지속성	41.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있는가?
		41.1.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콘텐츠가 있는가?
		41.2.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재원,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41.3.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컨텐츠 및 산업이 있는가?
주민의식 부문	공동체성	51. 주민들이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51.1. 주민들이 역사문화적 자긍심(애착, 관심 등)을 가지고 있는가?
		51.2. 주민들이 역사문화도시를 그 도시의 (미래)대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가?
		51.3. 주민들이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축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51.4.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의체, 상설기구 등)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조사평가 절차 및 방법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조사는 현황조사와 설문조사로 구성되며, 비교평가를 통하여 이미지 형성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도출한다. 도시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조사평가는 요소별로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별 조사·평가를 시행하나, 목표 도시이미지 상을 만들기 위한 조사평가는 목표 도시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요소별로 주민의식조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형성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현황 및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시행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3]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 현황 및 설문조사평가 절차



(1) 현황조사

대상도시에 대한 현황조사는 이미지 형성 부문별 세부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현황조사는 정량적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정량적 조사가 어려운 부분은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정성적 조사에 있어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표적 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을 사용하여 시행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3〉 현황조사 방법

부 문	형성 요소	조사방법
역사	역사적 장소성	•문헌조사 - 고지도, 고문헌,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
	역사유산보존성	•현장답사
	역사유산 독특성	•전문가 자문
	미래가치성	•전문가 자문
문화	역사문화적전통성	•문헌조사(보고서, 부여군 시책 등)
	문화예술창조성	•전문가 자문
경관	경관 독특성	•문헌조사(보고서, 부여군 시책 등), 현장답사
경제산업	경제적 지속성	•문헌조사(보고서, 부여군 시책 등)
주민의식	공동체성	•설문조사

(2) 부여 도시이미지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부여 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는 도출된 형성요소별로 설문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은 부여주민과 부여 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대상은 설문내용의 전문성과 내용,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주민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여 외 지역주민으로는 예비설문조사 결과 부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도시인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방법을 1대1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3) 현황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비교평가

현황조사, 부여 내·외 주민들간 비교평가가 분석은 빈도,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의 집단통계량 분석을 시행한 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의 인식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한글 SPSS 1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 도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형성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접근 방향을 정립하고,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사업을 도출한다.

(1) 이미지 형성전략의 기본접근방향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은 다음 세가지 기본방향에 의해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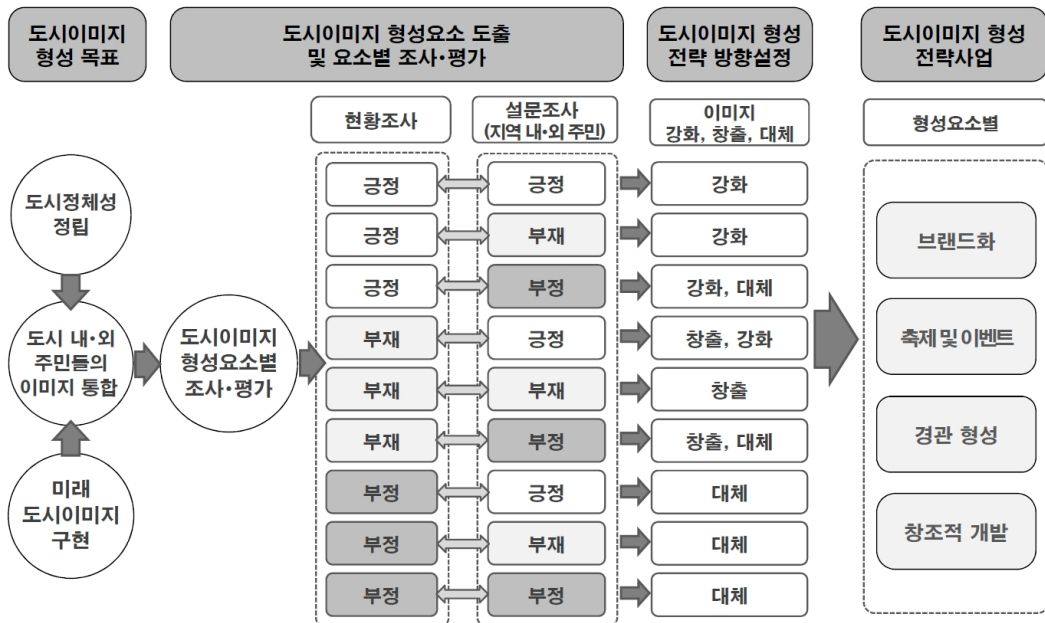
첫째, 부여 주민들이 부여 도시이미지를 역사문화도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부여 외 주민들이 부여를 역사문화도시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래의 부여 도시이미지가 역사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형성요소별 이미지 창출, 이미지 대체, 이미지 강화 전략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 전략은 이미지 강화, 대체, 창출이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은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부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평가 및 전략사업 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3-3]과 같다.

(그림 3-4)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 모형



제 4 장 사례조사

1. 조사개요

사례조사 대상도시로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였다.

대상도시로는 1075년간 일본의 수도의 기능을 하였으며, 문화산업이 발달한 교토, 도시 내 역사적 건축물이 잘 보존·정비되어 있고 전통문화산업이 발달한 가나자와, 세계최초의 법학대학이 설립되어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문화산업이 발달한 볼로냐 등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로 조사된 부문별, 요소별 항목을 바탕으로 정책 및 사업을 조사하였다.

〈표 4-1〉 사례조사 항목 및 내용

부 문	형소 요소	조사 항목 및 내용
역사	역사적 장소성	• 역사적 장소성 -역사적 장소, 사건, 인물
	역사유산보존성	• 역사유산 보유 정도 -역사유산의 진정성, 법제도
	역사유산 독특성	• 역사적 환경 -공간구조·배치 상 타 도시와의 독특성
	미래가치성	• 학문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가치성
문화	역사문화적전통성	• 역사문화적 정체성 -고유한 전통의 유무, 전통 계승
	문화예술창조성	• 문화예술 창조기반 -인력, 시설, 활동, 법제도
경관	경관 독특성	• 독특한 경관 -역사도시경관, 연계교통, 사회적 약자 시설
경제산업	경제적 지속성	• 문화(콘텐츠)산업 -차별화된 문화자원, 산업지원체계, 미래 지속성
주민의식	공동체성	• 문화적 공동체 의식 -자긍심, 대표이미지인식, 행사참여, 참여기반

2.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 사례

1) 고도의 이미지를 강화한 교토

(1) 도시 개요

교토²²⁾는 일본 교토부 남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827.9km²로서 시의 인구는 146만명으로서, 나라, 동경과 더불어 3대 수도이다. 1868년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도쿄로 천도할 때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경제·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공업은 전통 공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색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직조업, 염색업, 식품업 등을 들 수 있다.

위치	일본 교토부[京都府] 남부 (동경 135°45' 17", 북위 35°0' 36")	
면적	827.9km ²	
인구	1,468,065명 (2008)	
꽃	동백나무, 철쭉, 겹벚나무	
나무	수양버들, 다카오단풍, 계수나무	
산업	전통공업·상업과 관광업이 발달	

22) 교토는 794년 50대 칸무천황(737-806)이 수도를 나가오카(784-794)에서 헤이안(平安, 지금의 교토 중심부)으로 옮긴 이래 1869년의 동경천도 이전까지 1075년간 천황이 거처하는 일본의 수도였다. 헤이안 도성은 중국 당나라의 장안(長安)을 본떠 만든 계획도시로 풍수지리설에 근거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여러 물길이 지나는 교토분지에 바둑판 모양으로 건설되었다. 무사들이 정권을 잡은 카마쿠라 시대에는 정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카마쿠라(지금의 동경 근처)로 넘어간 적이 있지만, 96대 고다이고천황이 1333년 무사 아시카가 타가우지와 닛타 요시사다를 이용해 카마쿠라 막부를 타도하면서 교토는 다시 정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회복함. 그 후 무로마치 시대(1392-1573)의 8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자 문제로 오닌의 난(1467-1477)이 벌어지면서 교토 전역이 황폐화되고, 하극상이 난무하는 전국시대(1477-1568)로 이어지면서 교토는 한동안 쇠퇴하였다. 1590년 전국을 통치한 히데요시(1536-1598)와 교토 주민들의 노력으로 재정비되었으나, 1603년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세우면서 교토는 정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에도에 넘기며, 1869년 천황이 동경행거로 옮겨가는 동경천도를 단행하면서 교토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동경에 넘겨주게 됐다.

(2) 추진 배경

교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도시 리이미 프로젝트(Re-image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교토 관광객 수가 프로젝트 실행 이전보다 약 2.5배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교토부, 교토시, 교토상공회의소가 연합하여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적 역할과 기능은 교토상공회의소에서 맡고 있다.

- 교토 도시와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교토부, 교토시, 교토상공회의소간 “교토브랜드추진연락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음

(3) 도시정책 및 특징

가. 역사유산 보존

교토시는 역사적 시가지 구역을 북부·중심부·남부 등 세부분으로 나누고, 북부는 보존, 도심부는 재생, 그리고 남부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집적해 가는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도보존법에 의한 역사적 풍토보존구역과 도시계획상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등 이원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은 문화재보존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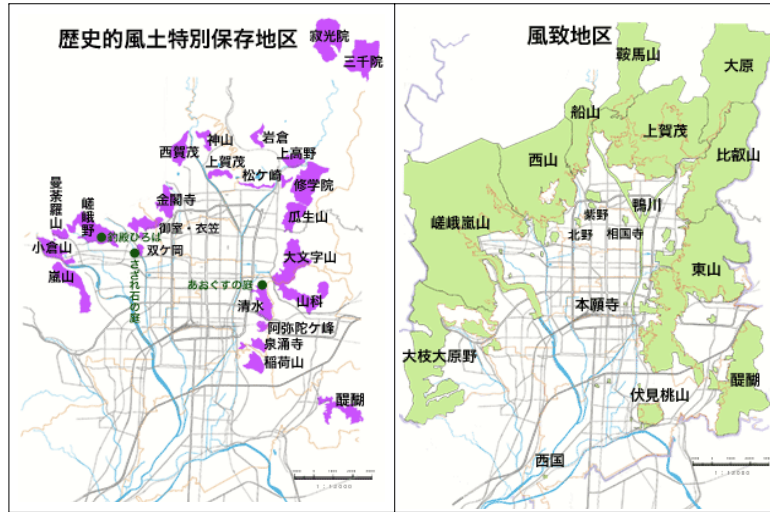
지정현황은 보면, 1975년 국가의 문화재보호법 안에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산네자카²³⁾, 기온신바시²⁴⁾, 사가노, 가미가모 등 4개 지구 14.9ha가 지정되어 있다.

1966년 제정된 ‘고도보존법’에 의해 1966년에 7개, 1969년에 1개의 역사적풍토보존지역을 지정하는 등 역사적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외곽에서 시가지로 순차적으로 지구를 확대하여 현재 14개 지구, 8,513ha에 이르는 면적이 역사적 풍토지구로서 보존되고 있으며 그중 24개 지구 2,861ha가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23) 에도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형태의 상가에 교토의 특산물을 판매해 오며 관광객에게 알려지면서 1972년 시 조례에 의거한 특별보존수경지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문화재인 주요 전통적 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적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개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존수정의 형식을 취하고,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인젠가는 개축되어야 하는 목조건축물이라는 점과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4) 기온신바시는 화재로 모두 소실된 후 메이지시대에 재건된 독특한 건축양식의 찾집이 늘어난 세련되고 통일감 있는 가로 경관으로 유명하다. 찾집은 이곳의 역사적 분위기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은 결국 과다한 상속세로 돌아온다는 것을 자각한 주민에 의해 기온신바시의 보전이 주도되고 있다.

(그림 4-1) 교토시의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및 풍치지구 현황



나. 문화·예술

교토시 문화예술정책은 1993년 책정된 ‘신 교토시 기본계획’ 바탕으로 1996년 6월에 책정된 ‘교토시 예술문화 진흥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랜드 비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래, 교토시의 문화행정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진흥에 중점을 두었으나, “도쿄로의 일극집중이 현저하며, 전국 각 도시들이 적극적인 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모로 문화교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근래에 들어 교토의 문화 창조력이 정체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대적인 지위저하가 역력해지고 있다”라며 문화행정의 후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 창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중 21세기를 전망한 장기적 비전으로, 새로운 예술문화 창조를 지향할 것, 세계예술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것, 예술문화 활동을 생활 및 산업과 연계할 것에 두고, 예술문화진흥방향으로 예술과 육성과 지원, 시민예술 문화활동 진흥, 정보 발신력 강화, 예술·문화교류촉진, 예술문화환경 향상과 그 활용, 예술문화산업진흥과 상호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점시설로서는 ‘교토 예술센터’의 설립하여, 예술문화진흥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토 예술센터’는 활동거점으로서 기능을 갖고 새로운 예술 문화활동의 발표기회 제공 및 젊은 예술가의 제작활동 지원을 하며, 그리고 정보거점 기능을 갖추고 예술문화에 관련된 교토 및 국내외 정보수집·공예·음악·영상연극 등의 서로 다른 분야간의 교류, 국내외 예술가·예술 관계자 및 지역 예술가·예술 관계자의 교류 및 지역 사회를

포함한 시민과 예술가와의 교류를 하는 것을 그 역할로 보고 있다.

‘21세기·교토의 그랜드 비전’ (1999년 책정)은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하는 ‘신기본구상’이다. ‘그랜드 비전’에서의 교토시의 인구감소, 공장·대학 등의 유출, 도심공동화, 산업정체, 그리고 문화력의 상대적 저하 등을 문제로 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1세기의 교토 모습으로 풍성한 창조도시, 신활력 창조도시, 환경 창조도시, 신스톡 창조도시, 문화 창조도시 등 ‘5가지 창조도시’를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기본구상이 ‘창조도시’에서 ‘화사함’과 ‘편안함’이 있는 ‘도시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도시’를 위한 운동은 민간차원에서 교토의 풀뿌리운동으로서 니시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예술문화활동 진흥책은 예술문화 분야 이외에 새로운 산업창출로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교토시에서는 IT와 연계한 ‘교토 디지털 아카이브’를 시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란 지역에 집적한 문화·예술·학술·산업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 기술로 축적하여, 시민과 산업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 경관

교토시 만의 경관적 특성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교토시는 1930년 풍치지구를 지정하고, 1972년에는 시가지 경관의 유지·향상을 목표로 ‘교토시 시가지경관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게 된다. 시가지 경관조례에는 미관지구, 거대공작물 규제지역, 특별보전수경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1995년 3월 시가지경관조례는 ‘교토시 시가지 경관정비조례’로 바뀌고 1996년 5월 미관지구의 확대 지정과 종별(1종~5종)의 증설, 건조물수경지구(建造物修景地區)를 지정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이 조례 등을 참고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경관법’을 공포하였고 이 경관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교토시 경관계획’을 책정하였다.

교토시는 2007년 새로운 경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시책에는 시가화 구역 전역에 대한 높이규제²⁵⁾가 재검토되었고, 디자인 기준이 재검토되었으며, 풍치지구나 경관지구²⁶⁾ 등이 확대되었

25) 건축물 높이규제의 강화하는 것으로 상업·업무의 중심지구라 하더라도 삼면의 산맥에 의한 경치, 인접지구의 마치나 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높이를 45m에서 31m로 강화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건폐율,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선택한다. 매시브한 건물을 막기 위해 일부 높이를 낮추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다. 또한 전통가옥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높이를 유도하고, 휴먼 스케일의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준높이 31m였던 지역을 15m로 강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마찌야의 난개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6) 경관지구(미관지구)의 신설: 시가지 전역에 대하여 경관지구로 지정하였다. 종전의 미관지구는 건축법에 의한 것으로 보전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경관지구는 경관법에 의한 것으로 현재는 보전적 성격이 있는 것은 미관지구, 형성해야할

다. 또한 전망경관과 차경(借景)을 보전²⁷⁾하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이 강화²⁸⁾되었고 전통 가옥(마찌야) 등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재생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고도지구,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고 시가지경관정비조례, 풍치지구조례, 옥외광고물조례, 자연풍경보전조례가 개정되었고 전망경관창생조례, 고도지구특례허가수속조례 등이 신설되었다.

〈표 4-2〉 교토 경관정비 지구지정현황

지구명	지정면적	
	지구수	면적(ha)
미관지구	10개	1,956
건조물수경지구		6,704
연도(沿道)경관형성지구	1개	17.1
역사적경관보전수경지구	3개	14.1
주변일대경관정비지구	7개	118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4개	14.9
역사적풍토보존구역	14개	8513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	24개	2861
풍치지구	17개	17,831
자연풍경보전지구		25,780
근교녹지보전구역		3,333
근교녹지특별보존지구	2개	212
특별녹지보전지구	2개	26
옥외광고물규제구역	교토시 전역	53,343
연도(沿道)형옥외광고물규제지역		1,089
옥외광고물등특별규제지구	6개	19.6

출처 : 京都市都市計劃局 都市景觀部 都市景觀課. 風致保全課. 2007(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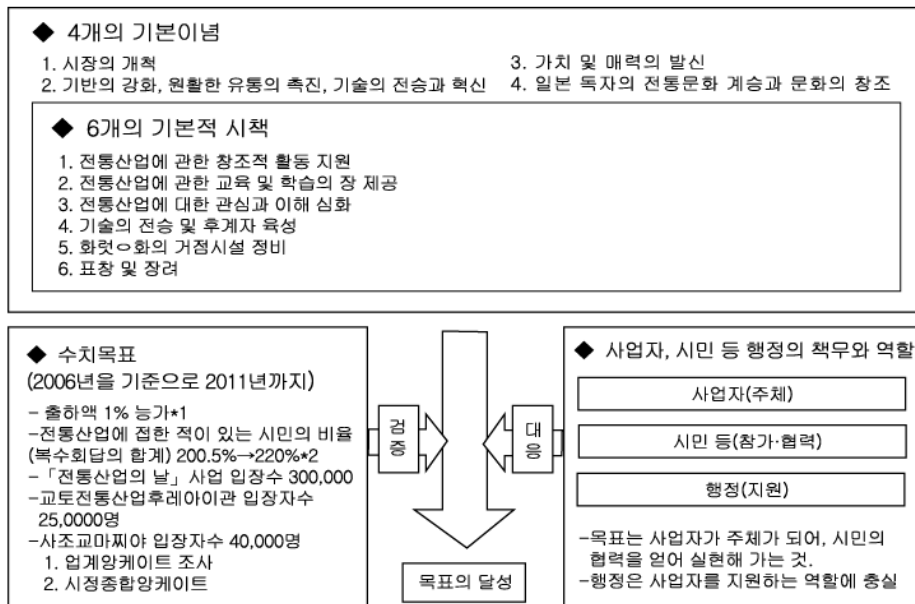
지구는 미관형성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되어 있으나 2007년 9월 이후부터는 이들 모두를 통합, 경관지구로 명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별(5종)에 따르던 디자인 기준을 지구별 기준(8 유형 18 지구 60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색채 기준에서 먼셀표를 도입하는 등 디자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건조물수경지구(경관법에 근거한 신고제도)는 남부 시가지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종별(2종)에 따르던 디자인 기준을 지구별 기준(4지구 16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디자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풍치지구의 경우 세계유산 주변으로 확대·지정하여 종별의 변경 시 높이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풍치경관 상 중요한 일부의 지역에는 지역별 기준을 마련해 규제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 27) 전망경관·차경의 보전을 위한, 전망경관창생조례는 개개의 전망경관이나 차경의 특징에 맞추어 건축물의 높이·디자인을 섬세하게 규제·유도하고자 전망경관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사원 경내의 경치, 대로의 경치, 수변의 경치, 정원으로 부터의 경치, 산맥에서의 경치, 표시에서의 경치, 전망 경치, 내려다 보이는 경치 등이 있으며 현재 28곳이 지정되어 있다. 조망을 위한 시점장은 공공성이 높은 하천변으로 설정하였으며, 조망점 선정 시에는 역사적 경관을 토대로 하여 선정된 대상들과 주민의견, 주민설문 결과를 토대로 심의에서 30여개를 선정하였다.
- 28) 현행 옥외광고물 규제를 재검토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점멸 조명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옥외광고물의 높이, 크기, 색채 규제를 강화하고 도심부 간선도로변 등에서는 돌출형 간판을 금지하였다. 우수 옥외광고물을 유도를 위해 허가기간 연장, 허가기준 완화 등의 조치와, 위반 옥외광고물에 대해 시공업자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결과 공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법광고물 행정지도를 위한 공무원을 확충하였다.

라. 산업경제 - 전통산업²⁹⁾

교토시는 「교토시전통산업활성화추진조례」에 기초하여 2006년 11월 「교토시전통산업활성화추진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통산업의 진흥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동 조례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업자, 시민, 행정의 협력을 통하여 향후 5년간에 걸친 목표와 시책을 담았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 교토시의 전통산업진흥 기본이념 및 목표



자료 : 京都市産業観光局, 2007

① 교토 전통산업제품의 활용

▶ 전도시의 전시장화

시민 및 관광객에게 교토 전통산업의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시설 이외에도 민간시설의 협력을 얻어 교토의 전통산업제품을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하고 있다. 전시기간은 「전통산업의 날³⁰⁾」을 지정하고 그 기간을 이용하고 있다.

○ 전통산업의 날

교토의 전통사업 제품을 일본 전국에 알리기 위해 교토시에서는 2001년부터 독자적으로 춘

29) 교토의 전통산업부문에 대한 내용은 강형기(2008), “일본 교토시와 가나자와시의 문화산업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1호 p47-50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하여 인용하였음

30) 교토시는 2001년 독자적으로 춘분을 「전통산업의 날」로 지정하였다.

분을 「전통산업의 날」로 정해 2002년부터 이 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통산업의 날」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팸플렛, 포스터 등을 작성하여 정보를 발신
- 기모노 착용자가 대중교통 및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할 시 우대조치를 함으로써 기모노 착용의 기회를 넓히려 노력한다. 이는 기모노의 보급을 확대하고 또 기모노 착용자가 시내를 다님으로써 「기모노의 마을 교토」를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 교토시의 시설에 전통산업제품 우선활용

시의 시설을 새로 개소할 때 교토의 전통산업제품을 내부물품으로써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통산업제품의 매력을 알리고, 이를 통하여 시민 및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② 교토 팬 창출사업

교토시는 2007년 4월 1일에 교토의 전통산업을 사랑하는 「교토 전통산업제품 팬」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팬클럽을 창단하였다. 회원에게는 교토의 정보가 담긴 회보를 송부하고, 전통산업관련 업체 등의 협력을 얻어서 회원한정 행사, 체험교실, 전통산업 제품의 우대판매 등을 통하여 교토의 전통산업에 계속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토시의 기획·편집 하에 대형출판사인 고단사(講談社)를 통해 교토의 전통산업을 테마로 하는 정보지 「교토장인구락부(京都匠俱樂部)」를 연 2회 간행하고 있다.

▶ 교토 전통산업제품 팬클럽 운영

교토시는 (재)교토전통산업교류센터를 설립하여, 년 회비 1,000엔을 내는 1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 회원에게 전통산업제품의 우대판매, 체험교실 및 문화관광시설 입장을 우대하는 것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생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정보지 발행

교토시는 매년 가을(9월경)과 봄(2월경), 즉 연 2회에 걸쳐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홍보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지는 교토시와 (재)교토전통산업교류센터가 공동으로 기획 및 편집한다.

③ 교토의 전통산업제품에 대한 마케팅조사·연구

전통산업은 소규모기업이 대부분이므로 독자적으로 마케팅조사의 독자실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요층을 정확히 포착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이에 교토시는 전통산업의 사업자가 다양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에 의해 소비자 수요를 조사연구하여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교토「전통산업학」의 구축

교토의 전통산업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넓히기 위해, 전문가 및 전통문화·전통산업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토의 전통산업에 대한 역사 및 기숙 등에 관한 강좌를 연다. 이 강좌는 「대학 컨소시엄 교토³¹⁾」의 코디네이터 과목으로서 실시하는 동시에, 교토산업대학에서는 취득단위로 인정을 하고 있다.

⑤ 교토 브랜드 마찌야(町家)공방 사업

새로운 수요개척 및 젊은 전통산업 종사자에게 활동의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교토시 전통산업진흥관」(2002년 4월 오픈)을 개관했고, 전통산업 종사자와 소비자가 모여 교류하는 장소로서 활용하는 외 전통거리(町家)의 풍정을 살린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⑥ 인재 양성

▶ 젊은 후계자 육성

전통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의욕 있는 전통산업관련 단체 및 기업그룹이 실시하는 판로·수요개척사업, 전통적 공예품 보급 및 PR사업 및 인재육성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사업은 공모 후 「교토시전통산업활성화추진심의회」의 하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한편 그 내용을 보면 매년 45세 이하의 시민들 중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관련업 종사자 150명에게 월 18만엔 이하, 1인당 한도액 40만엔을 지급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 전통산업 공로자 표창

전통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랜 세월 전통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한 기술자를 표창하고 공로금을 지급한다³²⁾.

31) 재단법인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교토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 연계하고, 대학 상호간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이에 관련한 조사·연구를 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다.

32) 1967년 제도발족 이래 2006년 현재 표창자 874명임.

⑦ 교토전통산업 체험관(ふれあい館) 운영

교토 전통공예품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교토전통산업 후레이아관」을 설치하고 있다. 상설 전시장에서는 교토의 다채로운 전통공예품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하고 있고, 갤러리에서는 테마에 따른 기획전을 열어 우수한 공예품을 볼 수 있다. 또한 교토의 전통적인 기술에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체험코너 등도 설치되어 있다.

⑧ 미야코기술숙(みやこ技術塾) 운영

공업기술센터 및 섬유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전통산업에서 근대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강습회를 개최한다.

⑨ 교토「장인」과의 교류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장인의 고용창출 및 시민, 관광객에게 전통산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시민·아동·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장인들이 직접 체험교실을 연다.

▶ 전통공예·기술의 탐방사업

전통산업전시관 등으로 전통공예 제작에 관련된 장인들에 의한 체험교실, 제작실연 등을 행한다.

▶ 교토 「장인」 파견사업

전통공예품을 제작하는 기술자를 초·중학교 및 생애 학습실시 등에 파견하고, 배운 기술을 활용한 제작실습 및 제작실연을 행한다.


2)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 볼로냐

(1) 도시 개요

중세 이래 유럽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유명한 이탈리아³³⁾ 볼로냐는 인구 37만의 중소 도시로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있어 학문의 도시라고 불리며, 교회와 각종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도시³⁴⁾이다.

풍요한 농업지대에 위치하여 상공업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공업으로는 기계·자동차 제조·식품가공 등이 활발하다.

현재는 첨단 기술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써 전통·보수적 성향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의 도시가 되었다.

위치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동경 11°21' 5", 북위 44°30' 27")	
면적	140.73km ²	
인구	374,561명 (2008)	
산업	기계·자동차 제조·식품가공 산업 발달	
특징	중세 이래로 유럽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서 유명 - 11세기에 창설된 볼로냐대학은 법학의 볼로냐파와 함께 널리 알려졌으며, 17세기에는 회화(繪畵)에서 볼로냐파가 크게 활약	

33) 이탈리아는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기후나 풍토도 남과 북이 판이하여,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바닷가의 마을, 언덕 위의 마을, 산호초의 마을 등 그 입지상의 변화무쌍함이 이만큼 현란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이탈리아에서 도시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커다란 특징으로 되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각각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와 같은 존재(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자립성이 강하며, 시민들 간에서도 자신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것이 오늘의 역사나 문화를 소중히 다루는 거리 만들기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34) 1860년을 전후로 한 국가로 통일된 이탈리아 도시들은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역사적인 기념물은 보존되었지만,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거리 경관은 파괴를 겪게 된다. 특히, 전후 이탈리아는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 근대화, 도시 정체성을 상실이라는 위기를 경험하며 역사적인 도시공간의 보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1960년대, 도시의 역사적 중심부(첸트로 한 스토리코)를 보존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며,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에서는 다양한 역사 공간 만들기가 시행되게 되었다.

(2) 추진 배경

1970년대부터 볼로냐시 외곽지역에 기계제조 기업 들이 들어서며, 교외지역의 급격한 팽창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역사적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은 공동화되기 시작하였고, 볼로냐시는 ‘역사적 시가지 보존과 재생’이라는 도심 재생전략으로 역사적인 도시이미지를 살려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도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3) 도시 정책 및 특징

가. 역사유산 보존

① 역사적인 건축물의 수복·재생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볼로냐는 고도 성장기에 100만의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보존·재생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도시와 지역의 형성이라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보존은 종래의 문화재라는 틀을 크게 넘어 도시계획 그 자체와 깊게 연결되었다. 첸트로 스토리코를 관광이나 문화에 편중된 특수지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또한 시민생활의 무대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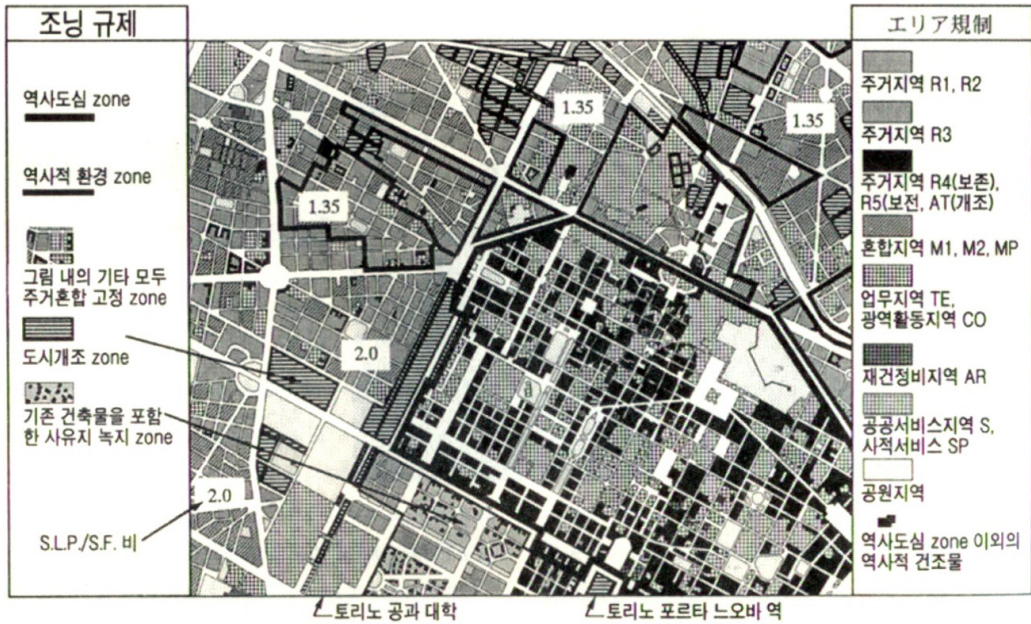
이를 위해 첸트로 스토리코를 구성하는 모든 건물이 조사되었고, 건축적인 특징과 그 활용의 가능성이 분석되었다. 몇 개의 건축유형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용적이나 공간구성에 어울리는 용도가 상정되었다.

특히, 산 레오나르도 지구, 솔페리노 지구 등 5개의 서민지구를 보존·재생한다는 획기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하여³⁵⁾, 역사적인 분위기를 남기면서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창조하였다. 이는 원래의 주민이 같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³⁶⁾ 물리적인 요소의 보존만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유지·재생이야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볼로냐에서는 강조되었다.

35) 오래된 부동산 관련 사료 등을 분석하여 건물의 역사적, 건축유형학적인 특징, 집합의 형식, 정원의 양태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개개의 거리 구획마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수복·재생의 계획이 세워지고, 각각의 건물에서 주거 내의 설계도 이루어졌다.

36) 수복 후에 집값이 올라, 원래의 주민들이 쫓겨 나는 것이 파리의 말레지구 등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4-3] 토리노(Torino)市の 도시마스터플랜에서의 도시 조닝규제와 area 규제



주 : 원래 도면을 수정 · 보완

〈표 4-3〉 역사도심 zone의 재개발 수법의 타입분류

건축parts 분류		공공공간의 외부공간			동선시스템				중정 · 사유의 정원			건물내부	
등급(a)부터 점차 높아짐		a	b	c	a	b	c	d	a	b	c	a	b
건물군 분할 6개 타입	특히 귀중한 건물	보존	보존		보존	보전	보존	보전	보존	보존	보전	보존	
	관심이 높은 건물	보존	보전	개조	보존	보전	보존	보전	보존	보전	개조	보존	개조
	1800년대의 건물	보존	보전	개조	보전	개조	보전	개조	보전	보전	개조	보전	개조
	로마도로변의 복합건축물	보전			보전	개조	보전	개조	보전	보전	개조	보전	개조
	2개 세계대전 중 만들어진 건축물		보전	개조	보전	개조	보전	개조	보전	보전	개조	보전	개조
	최근 건축물	보전	보전	개조	개조	개조	개조	개조	개조	개조	개조	보전	개조

출전 : Piano Regolatore Generale 야 Torino. 1995 수정 · 보완

종래 교외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던 저가형 서민주택의 법률을 적절히 해석하여 역사적인 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사업을 넘은, 주택정책과 연동된, 역사적 거리의 재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볼로냐의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그 후 다른 이탈리아 도시의 보존재생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만들어졌다.³⁷⁾

② 레스타우로 기술의 전개

첸트로 스토리코의 재생을 기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건물의 수복·재생이다. 이는 이탈리아어로는 ‘레스타우로’라고 불리며, 시민들의 일상회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한다.³⁸⁾ 레스타우로의 방법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적용된다.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기념물의 경우, 원래의 내부공간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설비를 정비하여 현대적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⁹⁾ 사회적인 활용이 있고 나서 비로소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일반적인 오래된 건물인 경우, 구조벽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버리는 일도 있다. 외부는 역사적 표정⁴⁰⁾을 지니고 있지만 내부는 극히 모던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외부의 입면(facade)이 공공성을 지님에 비하여 내부공간⁴¹⁾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의 무대라고 하는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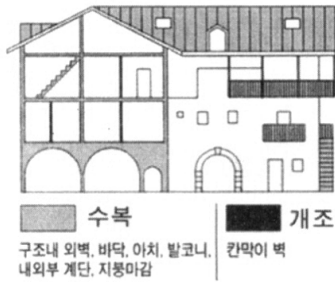
37) 볼로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공사업으로서 역사적 거리의 보존·재생을 행한 곳으로는 안코나, 타란트, 벨로나, 비첸차 등의 도시가 있었다.

38) 첸트로 스토리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부터는 공공사업만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건설 활동에서도 레스타우로는 활발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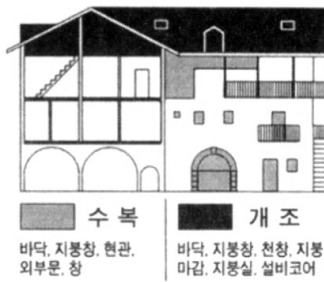
39) 층층이 시대가 쌓여 겹쳐지고 복합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 역사적 건축물을 상대로, 그 역사나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여 기존의 건축요소를 남김없이 활용하면서도 상상력을 발동시켜 공간을 되살려 내고 또한 재디자인을 해내는 ‘레스타우로’는, 신축 설계보다 오히려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이탈리아 건축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건축가라면 누구나가 수복·재생을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다. 수복의 전문가와 신축 설계의 전문가 사이의 구별은 없다. 오랜 건물의 수복·재생은 이제 상식이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건설시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40)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오랜 건축은 인간의 감성이나 신체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독특함이 있으며 현대 건축에는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랜 건물을 활용하자면 기획과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경관자원의 활용은 물론 긴 안목으로 보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역시 경제의 논리이기보다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에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41) 실내장식이나 가구의 디자인이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입면보존’이라는 사고방식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거리 보존의 초기에는 역사적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 중요한 입면만을 보존하고 내부는 근대건축으로 바꿔 만든다는 발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건축의 한계가 인식됨에 따라 오랜 건축 내부의 공간적인 재미가 높게 평가되게 되었고, 건축가들은 그곳밖에 없는 독창적인 소재를 살린 디자인을 의욕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그림 4-4] 수복 타입



[그림 4-5] 보전 타입



[그림 4-6] 개조 타입

나. 문화·예술

1960년대 이전 볼로냐는 상업문화 힘으로 인해 고급 예술 중심의 축제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 문화 위기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청년 계층과 정치 조직들 간의 마찰로 인해 문화 정책이 변화시켰다.

시민들의 연극과 공연 예술 문화 소비가 높으나 시의회는 이러한 현상을 정책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으며, 청년 계층의 반발로 movimento 운동 확산되었다.

- movimento운동 이란, 1977년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운동으로 공공기관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나, PCI (Italian Communist Party)의 반발에 부딪힘

현재는 박물관과 아트 콜렉션 등에 일반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박람회와 이벤트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연간 65회의 박람회, 400여개의 국제 회의 개최 : 이탈리아에서 2번째로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상황에 맞는 문화 전문성 개발이 문화정책 성공의 열쇠 : 대도시의 도시 계획을 모방하기보다 문화적 능력을 보유한 인재, 소규모이지만 다양화된 시장,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와 기간시설을 최대한 이용

① Colombari (1975~1980)

문화서비스의 현대화 노력으로 ephemera(일시적 문화 이벤트)로 효과 거두고 있다. 극장 수요 증가와 뮤지컬 및 페스티벌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에 대응하고자 볼로냐 예능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극, 음악, 민속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볼로냐를 전국적인 아방가르드 연극 중심지로 개발하고 문화 관광 확대시키는데 있다.

② Sandra Soster

문화 정책을 시위원회의 우선 과제로 삼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의 현대화사업으로 현대적인 시설과 안내시스템을 구비하고, 합동연구 센터 등을 조성하였다.

소극장 협회와 시네 클럽의 창의적인 젊은 인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③ Nicola Sinici

문화가 경제발전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스폰서, 파트너, 광고를 통해 재원 마련하고,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④ Progetto Giovani

1981년 만들어진 Progetto Giovani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소규모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유럽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젊은 예술가 대상으로 비엔날레 개최하고 있다.

시장 및 공개매체와 젊은 예술가를 연계하여 기업, 개인 갤러리, 광고회사, 소매상, 문화센터,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괄하는 유럽 네트워크 구상하고 있다.

특히, 볼로냐가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한 ‘볼로냐 2000프로젝트’는 도심 건축물의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첨단문화공간으로 바꾸었다. 옛 주식거래소는 이탈리아 최대의 디지털도서관으로 변신했고, ‘팔라초 디 렌초’ 등 중세 귀족들의 저택은 대규모 이벤트와 회의를 열 수 있는 시설로 복원됐다. 이같은 노력으로 볼로냐는 국제아동도서전, 체르사이에(타일 인테리어 국제전시회) 등 세계적인 컨벤션과 이벤트를 개최하는 박람회 도시로 발돋움했다.

빵공장	현대 예술 박물관
도살장 건물	시립영상자료관
담배공장	최첨단 영상교육센터
귀족저택	중세사박물관
시청부속 건물	시립박물관

다. 경관

볼로냐시에서는 19세기 후반으로부터 20세기 전반의 건물도 옛 건물을 해체시키지 않고 문화적으로 재창조하여 역사와 전통을 살려 문화적 가치를 높여 관광도시와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⁴²⁾

특히, 시가지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포티코(portico: 柱廊)는 볼로냐 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합의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포티코는 지붕이나 아치가 씌워진 보행가를 말한다. 모든 건물 1층에는 포티코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포티고는 보행자를 눈, 비,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카페나 식당에는 이곳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을 맞이한다.

포티코의 유래는 대학교 때문이다. 유럽각지에서 볼로냐 대학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시내 중심가에는 방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냈다. 인도 위에 기둥을 세워서 2층부터는 건물을 인도 위로 증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나무기둥 포티코이다. 이렇게 나무로 기둥으로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증축하여 생긴 방에 유학생들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나무기둥으로 만든 포티코는 점차 석재 포티코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 4-7) 볼로냐의 상징인 포티코



42) 근년 들어 이탈리아에서도 근대 초기에 만들어진 소위 ‘산업고고학’의 대상이 되는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이들 중요한 사회적인 경관자원은 내부 공간이 큰 만큼 현대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산업·경제

도시인구 약 37만명, 주변부를 포함하여 약 90만명의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볼로냐시의 경우, 카르피와 같이 니트 산업만으로 특화된 ‘산업지구’와는 달리, 섬유 및 가구 등 소비재(생활재)뿐만 아니라, 식료품·음료·담배·약품 등의 자동포장기계부터 페라리와 부카티로 대표되는 최고급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폭 넓은 분야의 기계공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품질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수많은 중소영세기업으로 구성된 하는 수 ‘산업지구’의 복합체, 즉 산업 크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까지 지역경제의 돈줄이었던 섬유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지역경제의 위기를 걱정한 사람들이 선진지역에서 기술을 배워, 20세기 초부터 독자적으로 산업혁명을 이루고 기계공업을 이 지역에 정착시켰다.

이후, 농업기계 및 수송기계가 산업화되고, 현재는 각종 자동포장기계(Package machine) 제조기업이 모여 있으며, 특히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벤처기업이 독립 개업(Spin up)을 하였고, 그러한 발전상황이 세계적인 주목을 끌게 되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교하여 ‘패키지 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했다.

‘패키지 밸리’ 성장요인으로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아르디니 발레리아니 공업학교에 의한 우수한 인력공급, 우수한 부품공급업체를 뒷받침해 주는 기능인 연합의 활동, 행정기관 등의 지원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기능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바코드용 광전자입력장치로 유명한 데이터 로직사와 같은 하이테크 기업과 멀티미디어 콘텐츠인 마이크로 기업을 육성하여 ‘멀티미디어 산업지구’를 지향하고 있다.

3)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한 가나자와

(1) 도시 개요

가나자와는 일본 이시카와현에 위치하며 면적 467.7km², 인구 45만명의 도시이다. 지방 대영주(大領主)의 성읍으로 발전하여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직후까지 일본 5대 도시의 하나로 꼽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옛 거리나 주택, 문화유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본의 전통적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봉건영주의 보호와 장려로 발달한 구타니도자기[九谷焼]·염색·칠기·건축물·금박제조 등 전통공업이 활발하다.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 인견직물·합섬직물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직기·공작·목공기계·전기야금·인쇄·식료품 등의 공업도 활발하다.

위치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縣] (동경 136°39' 22", 북위 36°33' 42")	
면적	467.7km ²	
인구	455,952명 (2008)	
꽃	매화나무	
산업	도자기·염색·칠기·건축물·금박제조 등 전통공업, 직물공업이 발달	

(2) 추진 배경

가나자와는 지역정체성 확보와 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상적인 도시방법으로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시정책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내·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경관 자원들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역사경관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생활문화, 근대경관 까지도 포함하는 통합적 도시이미지 경관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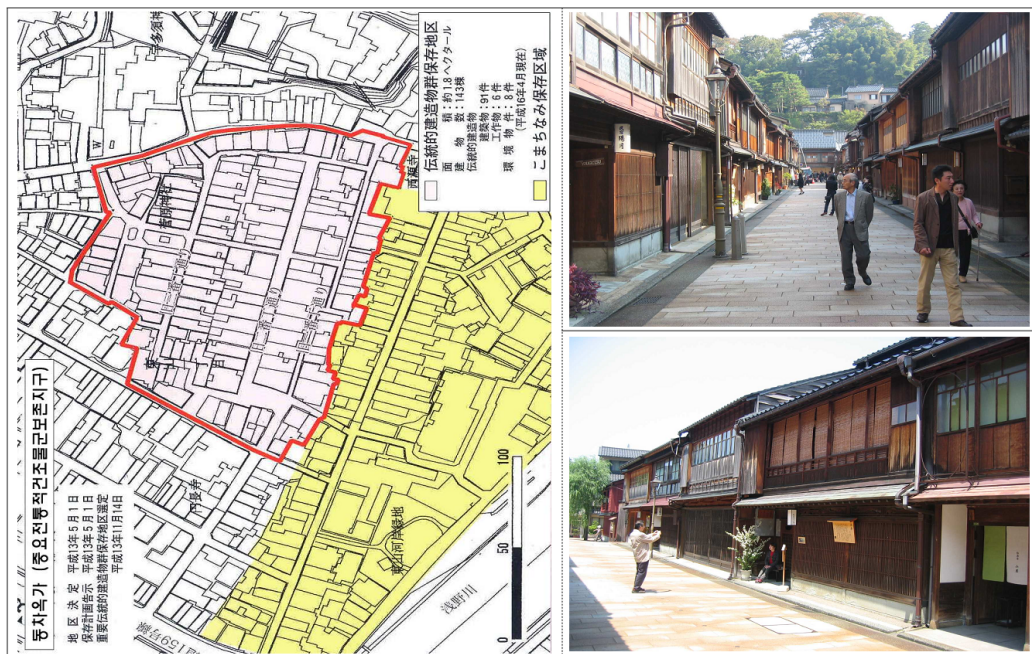
(3) 도시 정책 및 특징

가. 역사유산 보존

가나자와는 약40년 전부터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역사경관관련 조례인 ‘가나자와전통환경보존조례’를 1968년에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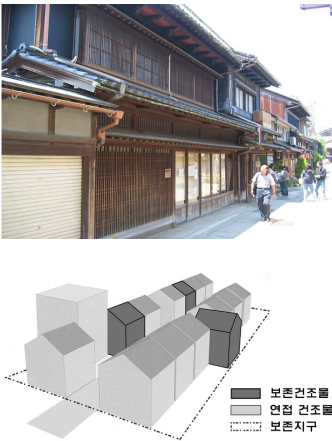
이후 1975년 중앙정부에 의해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가 수립되면서, 시에서는 1977년 ‘가나자와시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를 제정하게 된다.

이후 많은 논란을 거쳐오다 2001년 비로서 ‘히사시차야가이’를 가나자와시전통적건조물 군보존지구로 지정하고, 2003년 카즈에마치차야가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역사적인 건축물 및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그림 4-8〕 히사시차야가이 2001년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로 지정

〈표 4-4〉 코마치나미보존지구의 보조금 지원 내역(가나자와시)

보조사업종류	보존지구	보존건 조물	보존계획 체결건조 물 (연접건조 물)	비고
개축·수선등 설계 경비	30% (30만엔 이내)			
신축·개축의 외관 변경	70% (200만엔 이내)			
외관의 수선·수복	-	70% (500만엔 이내)	70% (700만엔 이내)	
담(塙)의 수복·정비	70% (300만엔 이내)			
담(나무,생단) 수복·정비	70% (100만엔 이내)			
문의 수복·정비	70% (150만엔 이내)			
외벽체 수복·정비	90%			
방화시설의 정비	-	90% (300만엔 이내)		
방화구조의 정비	-	90% (300만엔 이내)		
보존단체의 활동비	연간 10만엔 이내			



나. 문화·예술

가나자와는 도시의 역사문화이미지와 경관 관리를 기반으로 전통산업 및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경관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상품개발 등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고유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알리기(가꾸기) 및 지역주민의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는 하쿠만고쿠축제와 히가시아마지역(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의 전통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아사노강원유회’를 들 수 있다.



〔그림 4-9〕 하쿠만고쿠 축제 홍보 포스터



〔그림 4-10〕 하쿠만고쿠 축제

‘하쿠만고쿠’ 축제는 1583년에 마에다 토시이에라는 무사가 현재의 가나자와성인 오야마 성에 입성한 위업을 기리기 위한 계기로 시작되어온 전통행사로 현재는 가나자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쿠만고쿠 행렬은 크게 시작행사, 1부, 2부, 3부를 끝으로 입성행사로 마무리 지어진다. 각 부에서는 도시형성과정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카가날이행렬과 사자무용행렬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행렬행사를 통한 전통공연이 이어지며, 행렬로 구간이 전통환경보존구역을 통과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행렬과 같이 움직이면서 전통거리 풍경 및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림 4-11) 하쿠만고쿠 축제의 가가사다리 오름 공연



(그림 4-12) 가나자와 전통예능자들의 전통공연

아사노강원유회는 히가시아마 지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지역의 전통예능자(예기)들과 일본의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있는 보존단체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가나자와 축제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중세의 일본 도시형태라 할 수 있는 성하정도시의 역사성 보존 및 가나자와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 둘째,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 셋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 경관

가나자와는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시책과 함께, 도시미관형성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새로운 도시공간 등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양호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야간경관형성조례’, ‘가로경관형성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역사문화경관을 시민들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차적으로 역사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시설)들을 조성하고 있다.

문화공간 조성의 예로는 ‘관광회관’, ‘문화홀’, ‘시민예술홀’, ‘공예공방’, ‘시민공방’, ‘시민예술촌’ 등이 있고, 대부분 공연장 및 음악실, 연습실, 공방 등 시민들이 직접 활용,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 위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시민예술촌’은 시민누구나 직접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공연하며 동시에 그 기술을 직접 지도받을 수 있는 개발된 시민참가형 생활문화공간이다.

〈표 4-5〉 가나자와의 주요 교육·체험공간

목적	공간명	공간 특성
공연 전시	관광회관(1963년), 문화홀(1982년), 시민예술홀(1994년)	공연장, 음악실, 담화실, 집회실 등
전통 공예	공예공방(1989년), 시민공방(1990년), 시민예술촌(1996년)	공예살롱, 공예품수장소, 공예품전시장
전통 문화	21세기미술관(2004년)	대부분이 문화공간으로 활용(이전적지)

〔그림 4-13〕 시민예술촌 전경 1



〔그림 4-14〕 시민예술촌 전경 2



라. 산업·경제 - 전통문화산업육성⁴³⁾

가나자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소 전통산업의 진흥

가나자와는 전통공예산업이 크게 발전한 도시로서, 6개 업종을 ‘국가전통공예산업’으로 지정받아 보호산업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여개 업종은 ‘회소전통산업’으로 분류하여 가나자와시가 별도의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다.

〈표 4-6〉 전통산업 유형

목적	내용	비고(전통상점)
전통공예품	구타니아키, 가가유젠, 가나자와철기, 가나자와금박, 가나자와불단, 가가수 등이 유명	가가유젠(1579년 창업) 금박공예(1919년 창업)
전통음식	일본식 된장, 간장, 조림식품, 과자	조림식품(1946년 창업) 일본식된장/간장(1909년 창업)
전통차	가나자와의 전통차 (가가차)	전통차거리
기타	근린생활상점	약국/목조4층 건물(1667년 창업) 쌀집(1860년 창업)

○ 회소 전통산업 전문숙(塾) 개설

회소전통산업의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시민용 체험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 회소 전통공예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다.

▶ 전통산업 후계자 육성

○ 후계자육성 장려비 지급

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3년에서 4년 이상 계속 전통산업에 종사한 젊은 기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통산업에 관련된 조합이 추천하면 시에서 선정하며, 지원 규모는 2,000만엔으로 매년 28명에게 교부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통산업기술연수자에게 월 6만엔, 회소

43) 가나자와시의 전통산업부문에 대한 내용은 강형기(2008), “일본 교토시와 가나자와시의 문화산업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1호 p52-55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하여 인용하였음

전통산업후계자에게 월 12만 엔, 가나자와 우다츠산(卯辰山) 공예공방⁴⁴⁾ 기술연수자에게는 월 10만 엔을 지급한다.

- 전통공예 유학생파견

전통공예에 관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교부대상은 가나자와시에 거주하는 4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경비의 2/3 이내로 하며 그 한도액은 200만 엔이다.

- 전통산업 공헌자 표창

1977년 발족한 제도로 전통산업의 기술향상, 후계자육성 등에 공헌한 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 가나자와 브랜드 공예품개발

- 현대생활에 걸맞는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욕있는 조합에게 한도액 20만엔, 기업, 개인, 그룹에게는 한도액 1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 크래프트(craft)몰 히로사카(廣坂) 조성

히로사카도오리(廣坂通り) 주변의 빈점포에 공예계 인큐베이션 실시 및 갤러리를 조성하였다,

- 크래프트 몰 겐로쿠(兼六) 조성

산간에 형성된 공방의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작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가나자와 공예품 보급 추진

- 수도권 안테나숍 운영

수도권에 공예품 등의 안테나숍을 개설하여 판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전통공예의 해외진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공예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람회개최비와 해외유학비를 각각 1백만엔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미니개인전 개최 지원

젊은 전통공예가를 육성하기 위해 이들이 개인전 또는 그룹전을 개최할 시 조성금을 지급하

44) 가나자와 우다츠산에 세운 공방으로, 고도의 공예기술과 예술 감각을 갖춘 젊은 기술자를 육성하는 동시에 가나자와의 전통공예의 전승과 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기관이다.

고 있다. 지급규모는 대도시권에서 개최 시에는 30만 엔, 기타의 경우에는 15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 산간지역 공방군(群)정비

○ 산간지역의 빈집 등을 공예가의 창작활동 장으로서 활용하여 산간지역 공방군을 형성하는 사업을 1995년부터 시작했다. 2005년 현재 30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공방을 개설한 사람들이 교류회를 전개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경우, 200만 엔의 한도 내에서 공방 개설비를 그리고 공방개조비로는 75만 엔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장인공방 개설 장려

중심시까지 상점가의 빈 점포 및 빈집을 공예가 및 장인의 창작활동 장으로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250만 엔의 한도 내에서 공방 개설비를 그리고 100만 엔의 한도 내에서 공방 개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3. 조사종합

형성요소별 시책		교토	볼로냐	가나자와
역사 부분	역사적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보존법 -역사적풍토특별보존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첸드로스토리코 (역사도심지구) 	
	역사 유산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존지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스타우로 -‘레스타우로’ 건축물 복원 기법을 적용하여 역사도시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존지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역사 유산 독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 -산네키자 -기온신바시 -후시미 		
문화 부분	역사 문화 시책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토 Re-image project -기온마즈리 -아오이마즈리 -지다이마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뿌리문화운동 -1970년대 청년, 학생들에 의해 시작 • 볼로냐 2000 -유럽문화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쿠만고쿠 축제 개최 -아사노강원유회
	문화 시설	교토국립박물관, 교토국립현대미술관, 교토문화박물관, 차도자료관, 문화예술회관, 교토국제만화박물관	현대예술박물관, 시립영상자료관, 영상교육센터, 중세사박물관, 시립박물관, 산업박물관 조성	관광회관, 문화홀, 시민예술홀, 공예공방, 시민공방, 시민예술촌, 21세기미술관 조성
경관	경관 독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관지구, 건조물수경지구, 연도경관형성지구 외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역사적풍토보존구역 외 풍치지구, 자연풍경보전지구, 옥외광고물규제지역 외 -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 -전망경관창생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랏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치지구, 미관지구,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건축협정을 통해 경관형성 -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 -야간경관형성조례 -가로경관형성조례
산업 경제	경제적 지속성	전통산업후계자지원/표창 교토브랜드마찌야공방사업 전통의 날/교토판 클럽 교토전통제품활용사업 교토상품 마케팅조사연구 교토 전통산업학 구축 전통산업활성화조례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능인기업연합 • 볼로냐시립대학-산업인재양성 • 패키지 벨리형성 • MAMBO프로젝트 추진 	전통산업후계자지원/표창 희소전통산업 진흥 전문숙 산간지역공방군 조성 안테나숍 운영 미니개인전 개최지원 장인(craft)몰 운영 제조조례

제 5 장 부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조사 분석

1. 현황조사분석

1) 역사 - 역사적 장소성, 보존성, 독특성, 미래가치성

(1) 부여의 역사 - 역사적 장소성

부여는 백제시대에 들어와 5-6세기 대에 금강연안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고, 백제 성왕 16년인 538년에 공주(당시 웅진)에서 부여(당시 사비)로 도읍을 옮긴 이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3년간 백제의 수도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신라 이후, 부여는 쇠퇴하게 되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공주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일제시대 부여군으로 통합되고, 1960년 대한민국 수립에 따라 부여읍으로 승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부여가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시기는 삼국시대의 백제국의 123년간(AD 538-660년)으로서 수도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당시에는 사비로 명명되었으며 현재의 부여읍 중심지가자이다.

따라서, 부여는 백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도시로서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백제의 고도로서의 역사성을 인정받아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경주, 공주, 익산과 함께 고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역사도시 연맹에 경주, 공주, 안동과 함께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부여에는 사비로 도읍을 옮긴 성왕과 의자왕을 비롯하여, 승려, 예술가, 장군, 정치외교가, 삼충신 등 백제시대에 활동한 다방면에 걸친 인물들이 있다.

구체적인 인물로서 계백장군과 의자왕에 대한 설화가 널리 알려져 있고, 역사적인 사건은 주로 백제의 패망시기에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밖의 내용들은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해져서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1〉 부여의 도시연혁

시 대	역사적 변천
백제시대	6대왕(26대 성왕 16년-31대 의자왕 20년) 123년간 (AD 538-660년)왕도
통일신라	도독부 설치(2군 2현)
고려시대	감무설치(4현-부여, 가림, 석성, 홍산)
조선시대	1군 3현(임천군, 부여, 홍산, 석성현)
일제시대	1914.3.1 부여군으로 통합(16면)
대한민국	1960.1.1 부여읍승격(1읍15면)

〈표 5-2〉 부여 인물들

시대	인 물	업 적
고대	온조	고구려를 건축한 주몽의 아들로 백제 건국자
	무왕	왕권강화와 선화공주를 왕비로 맞이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
	겸익	인도로 유학을 다녀와 백제 불교에 영향을 미친 승려
	아비지	황룡사 9층탑을 세운 예술가
	계백장군	의자왕 20년(660) 나·당 연합군에 대항하여 5천 결사대와 싸우다 전사한 명장
	성충(成忠), 흥수(興首)	의자왕의 충신으로 백제 멸망기에 계백과 함께 3충신으로 알려짐
	윤충	신라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의자왕대의 장군
	의직	의자왕대에 활동한 명장
	은상	의자왕대에 활동한 명장
	경흥	백제 멸망기를 전후하여 저술가로 활동한 승려
	관록	일본에 승관제를 설치하고 초대 승정이 된 승려
	발정	양나라에 유학하여 백제 갈등해소에 노력한 승려
	현광	무상행을 바탕으로 일체중생의 평등을 위해 노력한 승려
	혜현	수덕사에서 불법전파한 승려
	미마지	오나라에서 기악무를 익히고 돌아온 백제의 무용가로서 왜에 가서 기악을 가르침
	아좌태자	일본 쇼쿠토태자의 초상화를 그린 백제 왕자
	왕진이	일본에 유교 사상을 전한 책략가
	복신	백제 부흥군을 이끈 왕족
	억례복류	백제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달솔
	지수신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휘한 장군 가운데 한 사람
	노리사치계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정치가
	목협마나	성왕대에 활동한 고위 귀족으로 가야와의 관계에서 활동

(2) 역사문화자원 - 역사유산의 보존성

부여군에는 총 222건의 귀중한 백제시대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중 국가지정문화재 47건, 도 지정문화재 55건, 문화재자료 40건, 향토유적 77건 등이 있다. 시대별로는 백제 57, 고려 29, 조선 86, 선사 14, 미분류 33개 등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산은 조선시대이나, 국가지정 문화재 47개 중 백제시대 유산이 28개로서 전체의 59.6%를 차지하는 측면에서 백제시대 유적이 역사도시로서의 부여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백제금동대향로, 금동관세음보살입상,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등이 있으며 온전한 백제시대의 유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진정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 부여 문화재 현황

구 분		계 (개소)	선사 시대	백제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일본 침략기	근대	미분류
국가 지정 문화재	소계	47	1	28	1	5	9	-	-	3
	국보	4		4						
	보물	16		5	1	5	5			
	사적	21	1	19			1			
	무형문화재	1								1
	민속자료	3					3			
	천연기념물	1								1
	사적/명승	1								1
도지정 문화재	소계	55	1	20	-	8	23	-	-	3
	유형문화재	25		1		7	17			
	기념물	25	1	18		1	5			
	무형문화재	5		1			1			3
국가등록문화재		3								3
도문화재자료		40		4		10	21	1		4
군향토유적		77	12	5		6	33		1	20
합 계		222	14	57	1	29	86	1	1	33

자료: 부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www.buyeotour.net>)

〈표 5-4〉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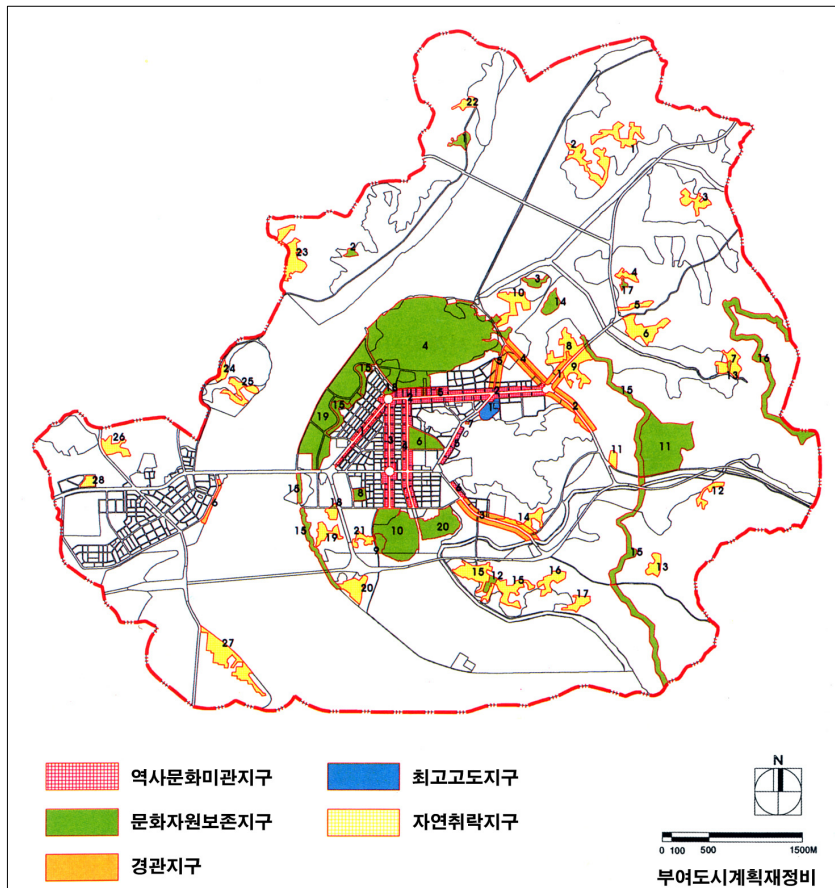
구분	명칭	소재지	시대	보존상태	진정성
국보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부여읍 동남리 379	백제	○	○
	백제금동대향로	부여읍 동남리 산16-1	백제	○	○
	금동관세음보살입상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백제	○	○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부여읍 동남리 산16-1	백제	○	○
보물	당유인원기공비	부여읍 동남리 산16-1	백제	○	○
	부여석조	부여읍 동남리 산16-1	백제	○	○
	금동석가여래입상	부여읍 동남리 산16-1	백제	○	○
	군수리석조여래좌상	부여읍 동남리 산16-1	백제	○	○
	군수리금동미륵보살입상	부여읍 동남리 산16-1	백제	○	○
사적	부여성흥산성	임천면 군사리 산1-1	백제	○	△
	부여부소산성	부여읍 관북리 산1	백제	○	○
	부여능산리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16-1	백제	○	○
	부여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1-1	백제	△	△
	부여군수리 사지	장암면 정암리 41	백제	○	×
	부여나성	부여읍 염창리 565	백제	△	×
	부여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	백제	△	×
	부여석성산성	석성면 현내리 83	백제	△	×
	부여쌍북리 요지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백제	×	×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6-1	백제	○	△
	증산성	규암면 신성리 산86	백제	△	×
	부여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254	백제	○	○
	부여정암리 와요지	장암면 정암리 14	백제	△	△
	부여능안골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75-7	백제	○	○
	부여화지산 일원 유적	부여읍 동남리 105	백제	△	○
	부여왕흥사지	규암면 신리 32-7	백제	△	△
	부여관북리 백제유적	부여읍 관북리 33	백제	△	×
	부여능산리 사지	부여읍 능산리 산15-1	백제	△	×
	부여금강사지	은산면 금공리 13-1	백제	×	×
천연기념물	내산면 은행나무	내산면 주암리 148-1	백제	○	○
사적/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부여읍	백제	○	○

주 : ○양호, △보통, ×미흡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체계로서는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도시계획법에 의해 보존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 문화재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개발 행위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문화재에 대한 영향력 검토 후 사업이 승인되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 부여의 경우 중심시가지 내 문화재가 분포하여 주민의 도시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은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좀 더 강화된 보존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적으로 지정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심시가지 지역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시가지에 경관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5-1) 용도지구계획도

(3) 역사적 환경과 도시구조 - 역사유산의 독특성⁴⁵⁾

가. 백제시대

현재 부여군 내 도시경관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여읍 중심지 경관의 형성기원은 백제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변천을 거듭해 왔다.

초기의 백제시대의 경관은 산수문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으로 중첩된 위요경관을 형성하고 소나무가 울창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삼산(三山)인 일산·오산·부산은 오늘날의 지금의 금성산·오산·부산으로 추정된다.

부여 역사경관의 원형은 백제시대의 사비도성⁴⁶⁾으로 백제 도성제는 평지의 있는 평상시의 왕성과 배후인 부소산에 도피산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소산성을 두고 있는 한편 평야지대를 도성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다.

초기 사비도성의 경관은 부소산성을 배후로 평지역에 왕궁(내성)+나성+청마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었고, 외곽에 석성산성을 비롯하여 부산성, 울산성, 증산성, 성흥산성 등 방위목적의 성으로 위요된 내부에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면적경관을 가졌다. 방어목적으로 생겨난 나성은 사비도성내부로 강한 선적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현재 부여읍 중심지는 백제시대에는 왕도(王都)로서 번창하다가 고려,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적 소 중심지가 되었고, 일제시대 때의 신궁조영지(神宮造營地)로서 토지이용과 도시의 구조, 경관이 대대적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부여읍의 도시구조는 일제시대 때에 시행된 신궁조영공사 때에 조성된 공간구조가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유지되던 백제시대의 경관은 일제시대에 형성된 시가지 구조에 묻혀서 일부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나. 조선시대

① 읍성과 관아배치

부여는 1413년(태종 13)에 현이 설치된 이후, 1914년 군·면폐합 이전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통치, 군사, 교육, 종교 등의 목적에 필요한 관아가 옛 박물관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된 읍성구조를 보인다. 부소산을 진산(鎭山)으로 하여 옛 박물관(현 부여 문화재연구소)을 중

45) 역사적 환경과 도시구조 부분의 내용은 부여군(2005), 부여 고도보존을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 p77~85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정리하였음

46) 사비도성은 도심주위가 비교적 얇은 산지와 평야로만 구성되어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곽으로 나성을 조성하였다. 사비도성의 구조를 보면 5부 5향으로 편제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향은 조방제라 하는 사각형 불력을 단위로 공간을 구분하였다.

심으로 한 곳에 여러 관아 시설이 밀집되어 있었음을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 조선시대 부여현 내에 설치되었던 관아 시설로는 객사, 동헌, 내아, 책방, 청원당, 지인청, 급창청, 작청, 장청, 형방청, 사무학당, 군기청, 화약방, 신사당 등이 있었다.

② 가로망 및 가옥분포

○ 가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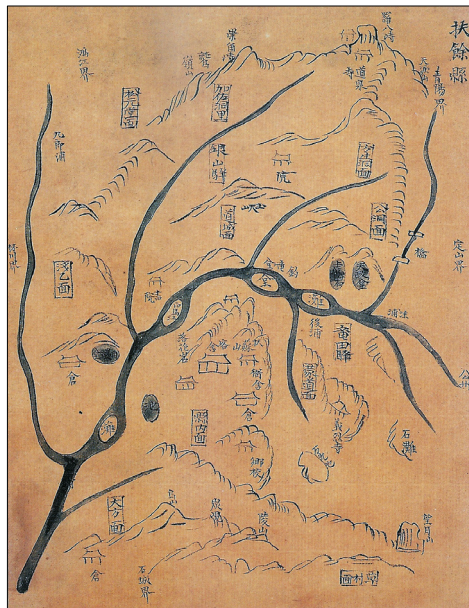
조선시대 현내면 내의 가로망은 「호서읍지」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부여현도」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의 중심 관아로(官衙路)는 옛 박물관과 부여여고 앞을 통과하는 폭 8m 정도의 동서도로로서 부여초등학교 앞의 부근에서 공주와 석성을 향하여 분기되었다. 백제시대의 추정 주작대로(朱雀大路)로 생각되는 옛 박물관~양조장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향교 앞을 지나 부여고교를 통과하여 고성진(古省津)에 이르는 가로가 있었다.

○ 가옥분포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호서읍지(湖西邑誌)』에 의하면 호구가 현 부여초등학교~옛 박물관~옛 경찰서에 이르는 관아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동헌의 남쪽 1리에 위치한 동산리, 현 동남리의 구릉지역과 현재의 군수리, 가담리 및 중정리 일대에도 가옥이 산발적으로 위치하였다.



[그림 5-2] 조선시대 부여의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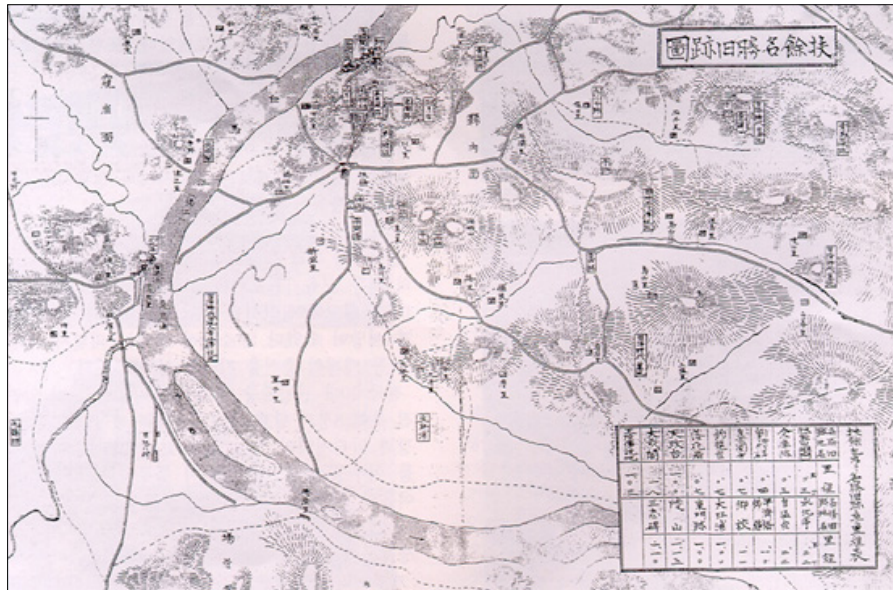
[그림 5-3] 조선시대 부여의 고지도

다. 일제강점기 부여의 역사경관 변천

① 부여신궁계획 이전의 부여의 도로경관

신도계획 이전의 도로망은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동서대로와 주작대로가 골격을 이루고 있었고 백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부여의 동서간 도로는 현 부여여고와 옛 박물관의 앞 도로로 이 도로의 동쪽 부여초등학교 앞에서 공주와 논산으로의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일제의 부여신도건설계획 이전까지, 부여시가지 내에는 몇몇 군행정기관이 옛 박물관~경찰서~부여보건소에 이르는 지역에 있었을 뿐, 한산한 농촌취락으로서 시가지 대부분의 지역은 논, 밭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림 5-4) 일제시대 부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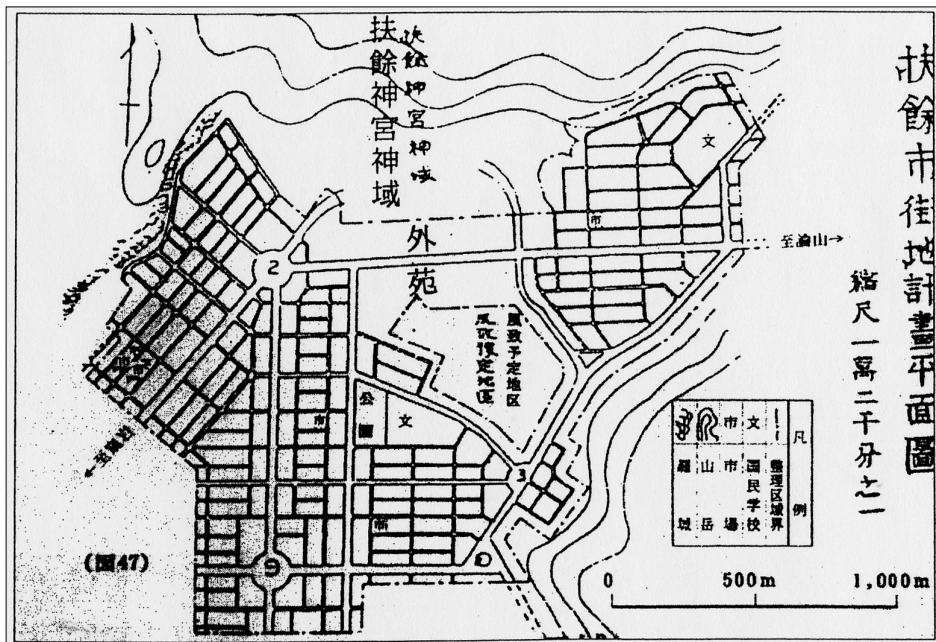
② 일제강점기 부여신도(神都)건설계획의 기본개요

부여시가지계획인 신도계획은 1939년에 결정되어 규암을 포함, 그 면적이 4,424만 m^2 이었다. 실제 착수된 곳은 현재의 부여읍 시가지 지역이다.

계획내용으로는 계획구역면적이 44,240,000 m^2 (1,338만평), 광장이 11개소, 계획가도가 37개 노선으로 제1지구 계획지역은 현재의 부여읍 지역 중 대부분 지역에 해당된다. 시가지계획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면적은 부여면과 규암면 각 일부의 2개소로서 총 1,229만 m^2

(372만평)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제1지구, 즉 부여신궁경내와 인접한 부여면 내 369,798평에 대한 시행자로 충청남도 지사가 지정되었다.

- 가로 교차점에 11개의 광장을 두었고, 현 백제초등학교 앞에 제1호 광장을 설치하였다. 제2호 광장의 경우 옛 경찰서 앞의 로타리가 되고, 제3호 광장은 현 향교 앞길과 공주~논산으로 향하는 외곽도로와의 교차점이 되며, 제4호 광장은 공주와 논산의 교차로에 해당된다. 제9호 광장은 현재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계백장군 동상이 있는 로타리이고, 제10호 광장은 구 1·2·3 주유소 앞 로타리이다.
- 부여 구획정리에 있어 일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넓은 면적의 신궁 외원(外苑)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부여~논산간 국도의 북쪽으로부터 남령공원에 이르는 약 40,000평 정도의 공원용지를 지정하였다.



(그림 5-5) 일제시대 부여의 토지구획 정리도

③ 부여 신도건설계획이 현재의 부여시가지 형성에 미친 영향

부여신궁조영 및 신도건설계획은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공사가 부진하다 8·15해방이 되면서 중단되었으나, 현재 부여 시가지 내에 있는 도로, 가로망 등 도시골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단계였다.

모든 관청 및 공공건물이 밀집해 있었던 동서대로의 주변이 신역 및 외원으로 지정됨에 따

라 모든 관공서는 지금의 위치로 이동하였다. 공원용지도 경계만 정하였고, 신궁건설지에 남겨진 주춧돌은 1957년 삼충사가 건립되면서 일부 사용되었다.

해방이후 6·25사변 및 산업화과정 속에서 부여도 변화되는데, 모든 관공서의 집결지가 지금의 위치로 이동되었고, 과거의 동서대로변에는 부여초등학교, 부여여고 등의 시설이 위치하였다. 계획된 제1호 광장 부근에는 백제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다,

부소산 외원의 공원용지는 55,000㎡(16,700평)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남령공원이 되었고, 궁남지의 동쪽 산은 망월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부여신궁조영 및 신도건설은 부여의 시가지 경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4) 미래가치성⁴⁷⁾

가. 학문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

① 동아시아 해상제국으로서 백제의 위상

중국 사서들의 기록으로 볼 때, 백제는 고이왕 연간에 이미 대륙에 진출하여 요서지역을 장악하고, 후에 세력이 확장되면서 진평군(산둥반도)을 차지하여 대륙백제를 일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차이나반도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해상세력이 확장되었던 것을 두고 학자들은 ‘동방의 로마제국’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백제왕국의 왕성한 문화 창조력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넓고 기름진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있어 농업생산력이 뛰어났으며, 길게 뻗은 해안선은 중국 대륙과의 교류에 유리하여 일찍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 6세기경에서는 중국 양나라의 수준 높은 문물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받아들인 외래 문화에 자신의 독자적인 미의식을 가미하여 국제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지닌 문화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창조적인 백제문화는 후대에서도 그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

③ 일본문화 원류로서의 백제문화

백제의 문화는 4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사이에 황금기를 이루었으며, 특히 불교가 진흥하여 일본으로 불경, 불구, 불상, 백제의 건축양식·문화 등을 전파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양국

47) 미래가치성 부분의 내용은 충청남도(2008), 백제 역사문화도시 기본구상 보고서 p20~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서 백제 문물의 일방적인 왜국전파였으며 이러한 교류의 과정에서 백제의 기술자·예술인들이 이주하게 되었고 백제의 선진 기술과 창조적인 문화를 습득하면서 일본 고대문화형성에 기반을 제공하였다.

④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

백제의 충의·절의 정신은 유교와 불교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사회정의를 유지하고, 국가를 존속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사고의 팽배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나 도덕적 윤리의식이 부재한 상황에 있어,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통사상의 현대적 도입 가치는 충분하다.

나. 교육적 가치

① 백제 역사·문화의 정체성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문화가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시대 백제국의 도읍이 위치하였던 부여는 백제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인배, 2002)

② 백제의 후예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자부심

부여 지역주민들에게 백제의 후예로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심어주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다. 과거의 부여의 이미지가 근대화에 뒤쳐진 패망국의 기억이었다면, 현재의 이미지는 위대한 고대국가이며 해양 국가였던 백제라는 대국 역사를 도시이미지로 인식하게 하고 지역 재생에 대한 의지를 모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문화·예술 - 문화적 전통성, 문화예술기반

(1) 역사문화적 전통성

유교와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백제에는 일찍부터 도가사상이 백제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토착의 천신이나 지신신앙과 연계된 신성사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백제는 도가적인 삼신산(三神山)을 구축하였는데, 그것은 토착적인 신선사상에 바탕한 것으로, 이러한 신선사상은 백제의 동경(銅鏡)이나 산경문전(山景文壇) 또는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 등의 유물에 나타나고 있다.



[그림 5-6] 백제의 산경문전과 백제금동대향로

백제의 정신의 유교사상은 중국 남조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유교의 경학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 주서(周書) 백제전(百濟傳)에 “백제는 책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고, 들들 가운데 뛰어난 자는 글을 잘 지었다” 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유학 중에서도 예학(禮學)이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관제의 정비와 함께 백제의 중앙집권적 통치 질서가 구축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백제의 유학은 일본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백제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때에 아직기와 박사 왕인 및 진손왕 등을 일본에 보내어 경전과 유학을 전하게 된다.

한편, 백제의 유학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백제의 의자왕은 무왕의 아들로써 태자가 되었을 때,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서 당시에 해동증자로 불리었다고 한다.

또한 백제의 충의 정신과 연계되어 백제 말기에 충신이었던 성충, 홍수, 계백장군 등의 충신을 낳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중국 남조와 교류한 백제사회에는 일찍부터 유학이 들어와 예가 강조되고 있었는데, 교류과정에서 불교가 전래되게 된다. 백제의 불교의 특징은 첫째, 계율을 중시하며, 둘째, 미륵신상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도가사상과 유학과 함께 백제는 불교를 일본에 전파함으로써 고대 일본의 불교문화, 불교예술의 성립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문화예술창조성

가. 문화예술 인력

부여의 문화예술관련 인력으로서 문화예술담당공무원, 문화예술 공연인력, 연구기관, 학교, 관련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담당공무원은 문화관광과에 총27명이 종사하고 있고, 문화예술 공연인력으로는 국악단 34명이 있으며,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연구기관은 3곳으로 연구직 89명이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가 설립되어 매년 150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졸업자의 대부분이 외부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화예술 단체로는 부여문화원을 비롯하여 총9개 기관이 있으며, 회원은 955명을 확보하고 있다.

〈표 5-5〉 공연예술인력 현황

총계	교향악단	국악단
34명	-	34명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2008)

〈표 5-6〉 CT(Culture Technology) 관련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인력(명)		
		합계	연구직	사무직
합 계		109	89	20
(재)백재문화재연구원	부여읍 구아리 208-3	49	44	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읍 관북리 28-4	42	27	15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설 한국전통문화연구소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18	18	-

〈표 5-7〉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

기관명	소재지	교수자원			직원	학 생			
		전임 교원	초빙 교수	시간 강사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한국전통 문화학교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24	18	108	50	144	209	176	152

주 : 2009년 현재까지 졸업자수는 309명임

〈표 5-8〉 문화예술 단체 및 회원

기관명	소재지	인력현황(명)	회원수(명)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722	임원: 17, 사무국: 2	434
백제사적연구회	부여읍 동남리 604-4		18
부여국악원	부여읍 관북리 128-1		120
산유화가 보존회	세도면 청송리		100
내포제시조 보존회	부여읍 관북리 128-1		100
부여서예협회	부여읍 동남리 752		36
사비문학회	부여읍 구아리 68-3		56
아사달회	규암면 외리 217-31		50
백제기악보존회	부여읍 염창리		41

나. 문화시설

부여에는 총 12개의 문화시설이 있는데 공연시설 3개소, 전시시설 2개소, 기타 문화원 1개소, 국악원 1개소, 전수관 4개소 등이 있다. 그러나, 국공립의 박물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이 중소규모이며, 영세하여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9〉 부여군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공공도 서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기타시설			
		소 계	영화 관	공공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 계	박 물 관	미 술 관	화 랑	소 계	문 화 원	국 악 원	전 수 관
12	1	3	2	1	-	2	2	-	-	6	1	1	4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2008)

다. 문화제 및 문화행사

문화제 및 문화행사는 주로 백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5-10〉 문화제 및 문화행사 현황

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제, 유항산 추모제, 팔충제, 임천충혼제, 최영장군 홍산대첩문화제 등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흥산 해맞이 축제, 정월대보름 축제, 갯개포구 우어축제, 백마강 수박축제, 궁남지 연꽃축제 등
세시민속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산 행단제, 은산 금공리 산신제, 홍산 북촌리 장승제, 규암 자온당산제 등
전통민속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유화가, 내지리 단잡기 놀이, 세도두레놀이, 용정리 호상놀이, 세도장군제 등
체험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종합관광안내소 : 백제8문양 탁본체험, 백제의상 입어보기, 투호놀이 체험 등 백제요(부여읍), 선도예(내산면) : 백제토기만들기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옥산면) : 사물놀이 체험 주요 유적지 : 백제대왕행차 체험 등 다양한 행사 인동마을(은산면) : 백제인동마을 체험 한국곤충체험장(규암면) : 한국곤충학습 체험 남면·홍산관광농원체험 농촌체험관광(사비장터) : 부여그린투어(다양한 패키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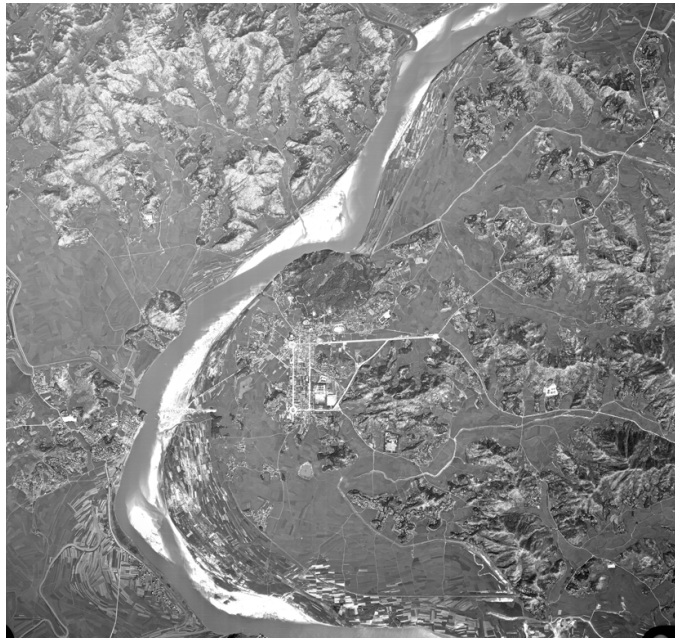
3) 경관 - 도시경관의 독특성⁴⁸⁾

(1) 자연경관요소

부여의 자연경관요소는 부소산 등 삼산을 배경으로 하는 산지배경형과 백강을 배경으로 하는 수변인접형이라 볼 수 있다.

부여의 산지배경 경관은 금성산을 중심으로 한 삼산(금성산, 오산, 부산)의 축과, 금성산, 부소산, 화지산이 위요되어 있는 형국으로 매력적 경관요소이나 일제 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지반고가 상승되었고 간선도로가 경관축(조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부여 시가지 내에서 이러한 자연경관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지형적으로 접근도로가 진산인 부소산을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어 있어 도시 산지경관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있다.

수변인접 경관에는 명승으로 지정된 백강과 백강주변지역에 역사적 사건과 얽힌 뛰어난 유적경관이 위치하여 있으나, 구드래로 접근하는 도로와 제방도로가 있으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접근성이 좋지 못하여 독특한 경관을 체험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변경관의 원경조망을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와 경관조망을 위한 조망점 형성이 필요하다.



〔그림 5-7〕 1967년 부여의 항공사진

48) 경관 부분의 내용은 부여군(2005), 부여 고도보존을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 p82~85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재정리하였음

(2) 인공경관요소

가. 부여의 도로축 경관

① 부여읍 진입도로

부여의 내부 간선도로는 공주와 논산방향에서 접근하여 백제대교를 통해 서천방향으로 나가며 읍의 내부를 관통하는 노선이 진출입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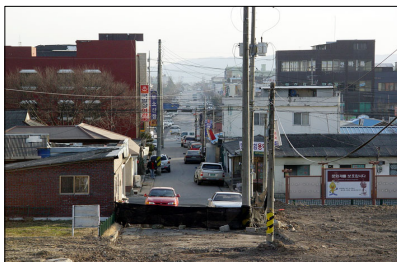
부여읍의 진입도로 양편으로는 1~3층의 상가와 근린생활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로축선상에는 수직적인 요소인 전봇대와 수평적인 전선이 혼재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진입부 경관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금성산 자락을 관통하여 남령공원과 부여박물관 방향의 도로는 일제 때 땅의 기운을 자르기 위해 설치한 도로로서 최근 지맥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구릉지경관을 일부 복원하였으나 주변의 건축물이 정비되지 않아 역사도로로서의 자연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지 내 주요 간선도로들은 계백장군동상이 있는 광장과 백제 기념비가 있는 광장에서 교차되는데 매력적인 결점부로서의 경관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백제대교를 건너 서쪽의 서천방향에는 규암의 수북정이 있으나 시각적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② 내부 간선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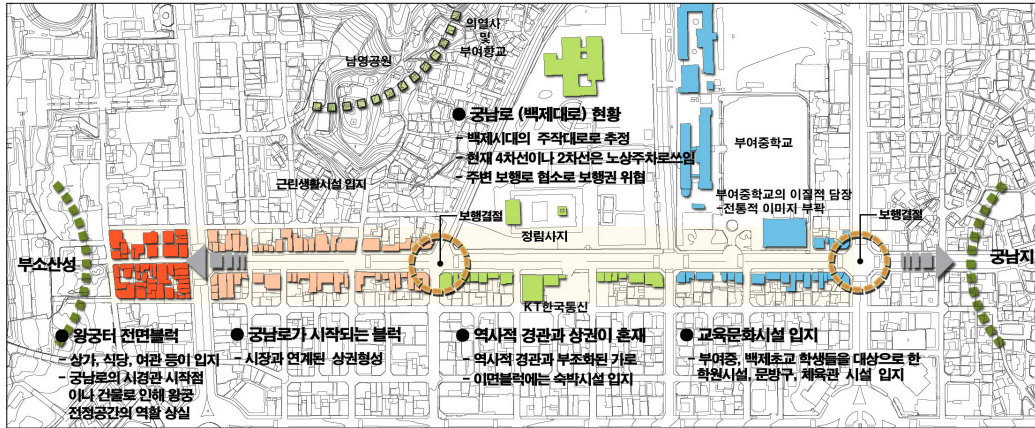
부소산성에서 궁남지에 이르는 정림사지 앞 도로(궁남로)는 백제시대의 주작대로로 추정되는 곳으로서 부소산을 배경으로 부여읍 내에서 가로 경관 조망이 가장 좋은 곳이다. 상가건물이 주로 분포하여 1-2층의 건물이 대부분으로 차분한 가로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나, 정림사 5층석탑과 담장 등의 매력적인 경관요소와 조화되지 않은 주변 가로시설물, 건축물 입면 등으로 인해 역사적이며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그림 5-8〕 혼잡한 도로경관



〔그림 5-9〕 정림사지 북쪽 가로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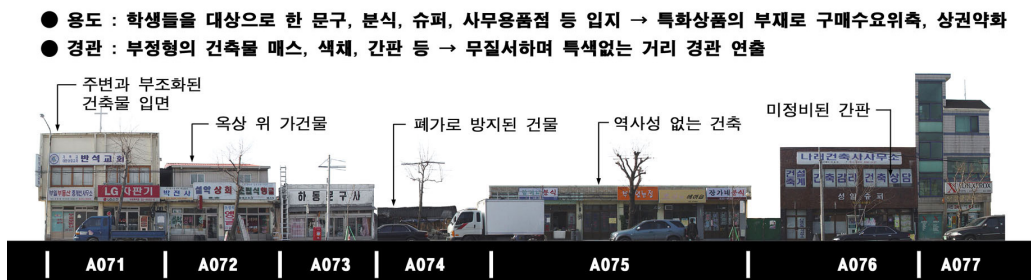


(그림 5-10) 정림사지 앞 주작대로 가로 현황

계백장군 로타리~백제 기념비 로타리는 부여에서 가장 변화하지만 도로지만, 도로변에는 1~5층까지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주차를 허용 주차차량이 2줄로 늘어서 있어 무질서한 가로 경관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각축으로 부소산을 배경으로 하나 전선지주와 전선 등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 건축물의 간판 또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있고 인도에 상업용 입간판과 노점상들이 늘어서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 조망점이 없어 원경을 느끼기 어렵다.

나.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부여의 간선도로변에는 자전거 주차대, 화분, 공중전화박스, 광고간판대 등 많은 옥외시설물이 설치되어있다. 이 옥외시설물은 정리되지 못한 형편이며 좁은 인도 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의 쾌적성을 저하시킨다.



(그림 5-11) 부여중학교 앞 가로변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현황

광고간판은 상가규모가 작아 상가마다 각각의 간판을 설치한 관계로 간판이 난립 혼잡한 느낌을 준다. 광고물의 색상은 원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디자인의 정체성이 부족, 부여의 이미지가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간판의 수량 또한 한 점포마다 여러 개를 설치하였고 임의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보행의 쾌적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로의 건축물은 건축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로와 단절된 이미지를 보이며, 건물간의 형태나 재료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건물의 색상도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색상을 지정하지 않은 관계로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각각 설계되어 있는 가로시설물의 경우도 가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지 못하다.

4) 산업·경제 - 문화(콘텐츠)산업에 의한 경제적 지속성

본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제적 지속성은 전통의 역사문화자원에 근간한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 개발되어 도시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문화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및 콘텐츠산업 측면에서 경제적 지속성을 조사하였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자원에 기인한 문화산업과 IT와 결합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화산업 현황

전통산업의 범위에 있어 역사적 문화적 자원에 기인한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충남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산업에서의 문화상품 개발은 산업적 기반이 약한 부여군에 상당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여군의 경우는 공예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순 재현상품이나 문구류 및 소품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구성이 단조롭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여 백제 고유의 온아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상품은 많지 않고, 상품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표 5-11〉 문화상품 개발 가능 업체(백제문화관광 기념품 관련업체 현황)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태안	예산
업체수 (개소)	63 (100%)	15 (23.8)	8 (12.7)	11	2	1	10	2	1	2	6 (9.5)	1	1	3
종사자 (명)	258 (100%)	66 (25.6)	40 (15.5)	41	1	-	33	5	1	5	29 (11.2)	-	15	22

〈표 5-12〉 부여 문화상품 개발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위치	전화번호	주생산물	종업원
백제요	신승복	부여군	836-0300	도자기 · 체험관 · 전시장	6
선도에	백선희	부여군	834-7544	토기, 천연염색, 야생화	
영일석재	신영열	부여군	833-9528	석재, 석탑 등	4
흙내	김원희	부여군	836-6993	흙 · 도자기	2
대산요	이재성	부여군	832-1886	도자기 · 다완 · 다기세트	1
한국곤충(사)	임태교	부여군	836-7231	곤충체험, 만들기, 액자	16

자료 : 부여 백제문화상품화사업 운영전략 개발 보고서, 부여군·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08.3

(2) 부여 문화콘텐츠 산업

먼저 부여군이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문화콘텐츠는 가지고 있지만, 산업의 발달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지난 2007년 충남문화산업진흥원⁴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내 문화콘텐츠사업체는 전체 128개업체중 부여군 소재기업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역사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산업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고급인적자원을 기본으로 하는 대도시중심지향형 산업이기 때문이다.

〈표 5-13〉 충남 CT산업 현황

구분	전체		주요 사업분야							
	개소	%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에듀 테인먼트	영화/영상	출판	디자인	기반기술
천안시	74	57.8	4	3	3	2	9	10	28	15
공주시	9	7.0		2		1		1	3	2
아산시	9	7.0		1	1		1	1	3	2
연기군	8	6.3	1	1				1	4	1
홍성군	7	5.5		1		1	1	2		2
기타	21	16.4		4		1	1	8	5	2
전체	128	100.0	5	12	4	5	12	23	43	24

기타 : 계룡시(1), 금산군(1), 논산시(3), 당진군(3), 보령시(4), 부여군(2), 서산시(4), 서천군(1), 청양군(1), 태안군(1)

자료 : 충남 CT산업기반조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07.

49) 2007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CT산업분류기준을 근거로 도내 CT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CT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은 총 173개 업체중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43개 기업을 제외한 130개 기업을 조사하였다.

(3) 문화산업 육성정책

현재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관련 정책은 대부분 백제문화자원과 그 큰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55회를 맞고 있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하여 내년도 개최되는 「2010년 세계대백전」 까지 백제역사자원과 백제문화에 정책육성 방향을 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여군 5개 지구 13개 유적에 대해 세계유산 잠정목록등록에 선정(문화재청)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문화상품 등과 연계된 산업육성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2008년 부여군과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가 부여군 문화상품화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점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주요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14〉 부여 문화상품화사업계획 주요사업 및 예산

구분		2010세계대백제전 이전				2010세계대백제전 이후
단계		1단계-기획	2단계-개발	3단계-생산	4단계-적용	5단계-확산
추진기간		2007~08	2008	2009	2010	2011
추진목표		기반 구축	문화상품 개발	문화상품 생산	문화상품 유통	고도화 및 세계화
사업수			5개	6개	7개	7개
예산	백제역사 문화상품화 지원센터사업	140	560	260	270	280
		1,510				
	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		400	930	800	720
		2,850				
주요내용	백제역사 문화상품화 지원센터 사업	- 추진체계구성 - 기초조사 - 문화브랜드개발 - 상품전략수립 - 액션플랜구축	- 백제문화정보 터미널 구축 - 문화상품 생산 인프라 구축 - 사업 조직 가동	- 문화상품 생산 인프라 구축	- 문화상품 생산 인프라 구축	- 문화상품 생산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		- 상품브랜드 개발 및 관리 - 문화상품디자인 개발 및 생산 (2009 백제 문화제 적용) - 생산업체지원	- 관리시스템운영 - 문화상품디자인 개발/생산 (2010 세계대백제전 적용) - 생산업체지원 - 판매장 설치 - 홍보, 마케팅	- 관리시스템운영 - 문화상품디자인 개발 및 생산 (국내유통) - 생산업체지원 - 판매장 설치 - 해외수출지원 - 홍보, 마케팅	- 관리시스템운영 - 문화상품디자인 개발 및 생산 (해외유통) - 생산업체지원 - 국내유통망 확보/수출지원 - 홍보, 마케팅

자료 : 부여 백제문화상품화사업 운영전략 개발 보고서, 부여군·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08.3

5) 분석종합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 부여는 역사부문에서 우수한 요소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활용측면에서의 역사자원을 브랜드화하고 이미지 형성화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문화예술, 경관, 경제부문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문별로 체계적인 기반시설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5〉 역사문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 현황분석 종합

구성요소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역사적 장소성	문-11. 부여 역사도시로서의 장소성	○ 123년간 백제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
	11.1. 역사적 장소	○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등 역사의 중요장소 보존
	11.2. 역사적 사건	○ 백제의 불교 및 공예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곳
역사유산 보존성	11.3. 역사적 인물	○ 성왕에서 의자왕, 계백장군 등이 활동
	문-12.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 보유	○ 정림사지5층석탑, 백제금동대향로, 부소산성, 궁남지 등 백제시대 국보, 사적 등을 보유
	문-12.1. 중요한 역사유적의 진정성	○ 백제시대 관련 진정성 있는 유적을 보유
역사유산 독특성	문-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법이 적용 시행되고 있음
	문-13.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을 유지	△ 백마강, 삼산(금성산·오산·부산) 등 역사적 환경 유지
미래가치성	문-13.1.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도시구조	× 일제시대 이후 도시정비사업으로 백제시대 도시구조가 훼손

〈표 5-15〉 역사문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 현황분석 종합 (계속)

구성요소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문화예술 창조성	문-2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	○ 백제의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보유
	문-21.1. 부여 고유의 역사적 전통(사상, 철학, 문학, 예술 등)	○ 역사적 전통 보유
	문-21.2. 역사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 발전	× 역사적 전통계승 및 발전 미흡
	문-2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	× 문화예술 창조 기반이 약함
	문-22.1. 문화예술 인력	△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통해 인력 배출
	문-22.2. 문화시설 보유	× 문화시설이 양적으로 부족
	문-22.3. 문화예술 활동	△ 공연·전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함
	문-22.4.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지원을 위한 법제도	× 법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경관 독특성	문-31.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	× 도시경관이 매력적이지 못함
	문-31.1.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경관 정비	× 역사문화유산과 혼잡한 도시경관이 혼재
	문-31.2.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체계 미흡
	문-31.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반시설 미흡
경제적 지속성	문-41. 부여 대표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부재
	문-41.1.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	△ 백제 역사문화콘텐츠 보유하고 있으나 상품화 미흡
	문-41.2. 문화산업지원 법제도, 자원, 인력	× 문화산업지원체계 미흡
	문-41.3.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	× 경제기반 취약 및 미래문화산업 자원미흡

2. 도시이미지 조사분석

1) 부여 도시이미지 조사 - 1차 예비설문

(1) 조사개요

예비조사에서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의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적 요소와 비공간적 요소로 구분한 후, 각 요소들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 상위 10가지 요소들을 선정하여 그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로 정의하였다. 설문은 총355부를 진행하였다.

지 역	부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조사일시	6월19일	6월25일	7월19일	7월 8일	7월15일	7월17일	7월16일
장소	부여읍 일원	목동일원	인계동 일원	둔산동 일원	이곡동 일원	치평동 일원	서신동 일원
조사대상	부여주민	서울시민	수원시민	대전시민	부산시민	광주시민	전주시민
조사방법	1대1 면접조사						
표본수	총355부 (7개 도시 각50-53부)						

설문자 특성		합계	부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유효 표본수		355	53	51	50	50	50	51	50
성별	남	198	38	18	25	24	30	34	29
	여	157	15	33	25	26	20	17	21
연령	20세미만	8	·	4	2	·	·	·	2
	20~29세	154	10	31	20	15	25	31	22
	30~39세	99	17	10	16	14	14	16	12
	40~49세	60	10	5	8	16	10	2	9
	50세이상	34	16	1	4	5	1	2	5
거주 기간	10년이하	83	1	13	21	13	3	13	19
	11~20년	95	4	15	13	24	9	17	13
	21~30년	109	19	17	13	7	29	13	11
	31~40년	37	12	5	2	3	5	5	5
	41~50년	17	7	·	·	3	3	2	2
	51년이상	10	10	·	·	·	·	·	·
	무응답	4	·	1	1	·	1	1	·

(2) 조사 분석

가. 부여에 대한 연상이미지 요소

부여에 대한 연상 이미지는 부여주민과 부여 외 지역 주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미지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과 함께 연상순위에 따른 연상강도 분석을 통해 이미지 요소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부여주민들은 백마강, 백제, 낙화암, 삼천궁녀, 궁남지, 의자왕, 부소산성, 계백장군, 부소산, 구드레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여 외 주민들에게서는 백제, 낙화암, 백마강, 의자왕, 삼천궁녀, 백제수도, 공주, 역사, 궁남지, 주몽 순으로 응답하였다.

- 부여 내외 주민들이 공통적 연상이미지요소는 백제, 백마강, 궁남지 등이었음. 부여주민들에게서 높게 나온 이미지는 부소산성, 계백장군, 부소산, 구드레 등이었으며, 부여외 지역 주민들이 높게 나온 이미지는 백제수도, 공주, 역사, 주몽 등이었음

〈표 5-16〉 부여 연상이미지 요소

대상	부여 주민				부여 외 지역주민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전주)			
	이미지 요소	연상 강도	이미지 요소	빈도	이미지 요소	연상 강도	이미지 요소	빈도
1	백마강	108	낙화암	32	백제	619	백제	156
2	백제	97	백마강	28	낙화암	347	낙화암	101
3	낙화암	95	백제	26	백마강	257	백마강	76
4	삼천궁녀	73	삼천궁녀	25	의자왕	135	의자왕	47
5	궁남지	59	궁남지	20	삼천궁녀	126	삼천궁녀	40
6	의자왕	55	의자왕	19	백제수도	108	백제수도	26
7	부소산성	36	계백장군	14	공주	74	서동요	23
8	계백장군	33	부소산성	12	역사	68	역사	21
9	부소산	27	부소산	11	궁남지	56	공주	15
10	구드레	26	구드레	8	주몽	36	문화재	14
11	기타	186	기타	70	기타	2,689	기타	986
합계		795		265		4,515		1,505

〈표 5-17〉 부여 연상이미지 요소 종합

순위	이미지 요소	연상 강도	비율 (%)	누적 비율(%)	이미지 요소	빈도	비율 (%)	누적 비율(%)
1	백제	716	13.5	13.5	백제	182	10.3	10.3
2	낙화암	442	8.3	21.8	낙화암	133	7.5	17.8
3	백마강	365	6.9	28.7	백마강	104	5.9	23.7
4	삼천궁녀	199	3.7	32.4	의자왕	66	3.7	27.4
5	의자왕	190	3.6	36.0	삼천궁녀	65	3.7	31.1
6	궁남지	115	2.2	38.2	궁남지	33	1.9	33.0
7	백제수도	108	2.0	40.2	백제수도	26	1.5	34.4
8	공주	74	1.4	41.6	서동요	23	1.3	35.7
9	역사	68	1.3	42.9	계백장군	22	1.2	37.0
10	부소산성	62	1.2	44.0	역사	21	1.2	38.2
11	계백장군	57	1.1	45.1	부소산성	19	1.1	39.2
12	주몽	36	0.7	45.8	공주	15	0.8	40.1
13	박물관	34	0.6	46.4	문화재	14	0.8	40.9
14	충남	29	0.5	47.0	충남	13	0.7	41.6
15	연꽃	27	0.5	47.5	주몽	12	0.7	42.3
16	부소산	27	0.5	48.0	부소산	11	0.6	42.9
17	수박	26	0.5	48.5	금동대향로	9	0.5	43.4
18	구드레	26	0.5	49.0	수박	9	0.5	43.9
19	금동대향로	25	0.5	49.5	박물관	9	0.5	44.4
20	고구려	25	0.5	49.9	연꽃	9	0.5	44.9
21	굿뜨레	24	0.5	50.4	구드레	8	0.5	45.4
22	서동요	23	0.4	50.8	정림사지5층석탑	6	0.3	45.7
23	정림사지	23	0.4	51.2	고란사	6	0.3	46.1
24	서동	22	0.4	51.7	충청도	6	0.3	46.4
25	정림사지5층석탑	21	0.4	52.1	정림사지	6	0.3	46.7
26	역사도시	20	0.4	52.4	관광	6	0.3	47.1
27	충청도	20	0.4	52.8	시골	5	0.3	47.4
28	관광	19	0.4	53.2	고구려	5	0.3	47.6
29	문화재	17	0.3	53.5	유적지	5	0.3	47.9
30	문화	16	0.3	53.8	문화	4	0.2	48.2
31	유적지	15	0.3	54.1	국사	3	0.2	48.3
32	국사	12	0.2	54.3	백제문화유산	3	0.2	48.5
	무응답	658	12.4	66.7	무응답	324	18.3	66.8
	기타	1,769	33.3	100.0	기타	588	33.2	100.0
합계	계	5,310	100.0		계	1,770	100.0	

나. 부여 도시이미지에 대한 가치 평가 - 인지도, 호감도, 독특성

부여 도시이미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여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에 비해 독특성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여주민들은 부여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인지도, 호감도, 독특성이 낮다고 설문하였으며, 특히, 독특성이 약하다고 응답하였다.

- 부여주민과 유사한 응답을 한 도시는 수원으로 조사됨

전주, 대전, 대구 주민들은 부여에 대한 도시이미지 호감도, 인지도, 독특성에 대해 좋거나 높게 응답하여 부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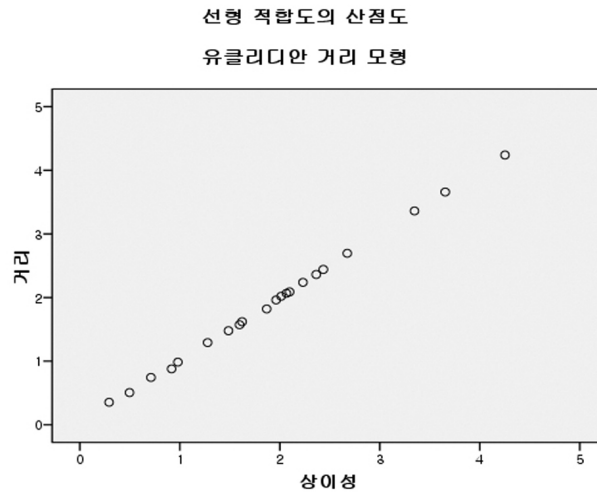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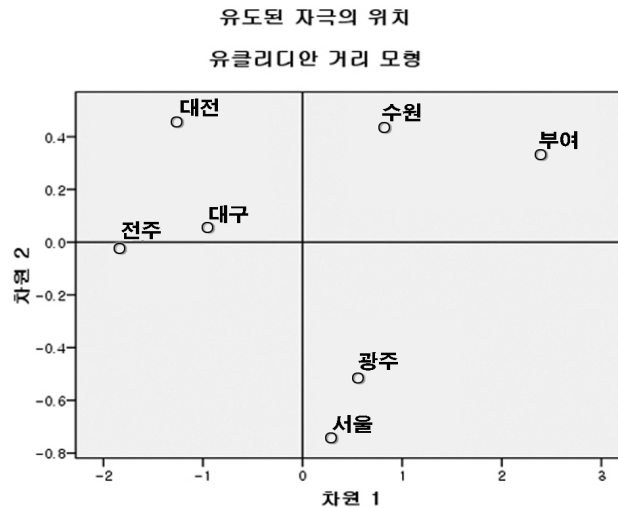
서울, 광주 등은 도시이미지에 대한 호감도는 있으나 인지도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평균	부여	대전	전주	대구	수원	광주	서울
인지도	2.78	2.36	3.30	3.22	3.10	2.68	2.43	2.41
높다(5)-보통(3)-낮다(1)								
호감도	3.39	2.70	3.72	3.94	3.54	3.32	3.24	3.31
좋다(5)-보통(3)-싫다(1)								
독특성	2.94	2.06	3.24	3.54	3.30	2.48	2.92	3.08
독특(5)-보통(3)-싫다(1)								

For matrix Stress = .01042 RSQ = .99950 Configuration derived in 2 dimensions			
Stimulus Coordinates			
Stimulus Number	Stimulus Name	Dimension	
		1	2
1	부여	2.3913	.3329
2	대전	-1.2661	.4568
3	전주	-1.8339	-.0230
4	대구	-.9585	.0554
5	수원	.8224	.4342
6	광주	.5580	-.5148
7	서울	.2868	-.7416

이를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도상에 분포시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으며, 3개의 유형의 응답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는 부여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가 높은 도시는 전주, 대전, 대구, 두 번째는 호감도는 있으나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서울, 광주,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도시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낮으며 특히 독특성이 낮다는 부여, 수원 등이다.



다. 부여 미래이미지

미래 부여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부여주민들은 관광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역사도시, 문화, 인구증가, 백제관광단지 등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부여 외 지역 주민들은 역사도시에 대한 연상이미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도시, 관광도시, 백제, 백제수도, 전통, 문화재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부여주민들은 부여가 역사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반면, 부여 외 지역주민들은 부여가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여 부여주민과 외 지역주민들이 서로 미래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18〉 부여의 미래도시이미지 상에 대한 설문분석

순위	부여 미래이미지	합계		부여		대전		전주		대구		수원		광주		서울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1	역사도시	128	36.2	14	26.4	27	54.0	15	30.0	21	42.0	21	42.0	13	26.0	17	33.3
2	관광도시	54	15.3	26	49.1	5	10.0	6	12.0	5	10.0	4	8.0	6	12.0	2	3.9
3	문화도시	41	11.6	-	-	-	-	8	16.0	2	4.0	9	18.0	9	18.0	13	25.5
4	문화	20	5.6	5	9.4	-	-	5	10.0	5	10.0	-	-	-	-	5	9.8
5	전통	8	2.3	-	-	2	4.0	-	-	-	-	3	6.0	-	-	3	5.9
소계	(15번항)	251	70.9	45	84.9	34	68.0	34	68.0	33	66.0	37	74.0	28	56.0	40	78.4
	기타	79	22.3	8	15.1	14	28.0	16	32.0	10	20.0	16	32.0	6	12.0	9	17.6
	무응답	24	6.8	-	-	2	4.0	-	-	4	8.0	-	-	16	32.0	2	3.9
합계		354	100.0	53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1	100.0

2)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조사 - 2차 설문

(1) 조사개요

예비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유효부수 60부 확보를 기준으로 부여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2부, 부여 지역 외 주민(대전시민)을 대상으로 68부를 시행하여 총130부를 진행하였다.

설문항목별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항목별 설명은 ⑤=그렇다, ④=약간그렇다, ③=보통, ②=약간그렇지 않다, ①=그렇지 않다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자 특성		합계(%)	부여 주민 (공무원/주민)	부여 외 주민 (대전시민)
유효 표본수		130(100%)	62(100%)	68(100%)
성별	남	90(69.2%)	43(69.4%)	47(69.1%)
	여	33(30.9%)	19(30.6%)	21(30.9%)
연령	20~29세	27(20.8%)	12(19.4%)	15(22.1%)
	30~39세	44(33.8%)	15(24.2%)	29(42.6%)
	40~49세	44(33.8%)	29(46.8%)	15(22.1%)
	50세이상	15(11.5%)	6(9.7%)	9(13.28%)
직업	공무원	50(38.5%)	42(67.7%)	8(11.8%)
	회사원	27(20.8%)	8(12.9%)	19(27.9%)
	학생	14(10.8%)	2(3.2%)	12(17.6%)
	주부	7(5.4%)	4(6.5%)	3(4.4%)
	전문직	17(13.1%)	1(1.6%)	16(23.5%)
	기타	15(11.5%)	5(8.1%)	10(14.7%)
거주 기간	10년이하	52(40.0%)	14(22.6%)	38(55.9%)
	11~20년	29(22.3%)	10(16.1%)	19(27.9%)
	21~30년	18(13.8%)	13(21.0%)	5(7.4%)
	31~40년	22(16.9%)	18(29.0%)	4(5.9%)
	41~50년	6(4.6%)	5(8.1%)	1(1.5%)
	51년이상	3(2.3%)	2(3.2%)	1(1.5%)

(2) 조사 분석

가. 평균에 의한 집단통계분석

분석 결과,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의 장소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유, 진정성, 가치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다 또는 약간그렇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반면,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역사적 환경을 유지, 독특한 도시구조의 보유여부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약간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5-19〉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통계분석

설문 내용		거주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역사 부 문	문-11. 부여가 인류, 국가,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시	대전	68	3.7353	1.15407	0.13995
		부여	62	4.1452	1.06889	0.13575
	문-12.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 보유	대전	68	4.1471	0.88545	0.10738
		부여	62	4.4355	0.76009	0.09653
	문-12.1.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재는 진정성	대전	68	4.1471	0.85107	0.10321
		부여	62	4.4355	0.78136	0.09923
	문-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대전	68	2.8382	1.11449	0.13515
		부여	62	3.2581	1.03916	0.13197
	문-13.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을 유지	대전	68	2.8971	1.08090	0.13108
		부여	62	3.2258	1.29841	0.16490
	문-13.1.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도시구조	대전	68	2.4706	0.98452	0.11939
		부여	62	2.9677	1.35462	0.17204
	문-14. 부여 역사문화유산 또는 전통의 학문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	대전	68	3.8971	0.97949	0.11878
		부여	62	4.2419	0.96980	0.12316

문화예술부문에 있어 부여의 역사문화적 전통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또는 약간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역사적 전통의 전승 또는 창조적 변화발전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 로 설문하여 부여주민과 외 지역주민 모두 전통이 계승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 기반, 인력, 문화시설, 예술활동,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약간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도시경관과 교통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또는 약간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문화자원과 콘텐츠 보유에 대한 항목에서는 ‘보통’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지만, 법제도, 재원, 인력 등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약간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보유에 대한 설문에서도 ‘보통 또는 약간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5-19〉 역사문화도시 형성요소에 대한 통계분석(계속)

설문 내용		거주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문화예술후문 문화예술부문	문-2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	대전	68	3.8088	0.91842	0.11138
		부여	62	4.1290	0.94927	0.12056
	문-21.2. 부여의 역사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 발전	대전	67	2.3582	0.99547	0.12162
		부여	62	2.8710	1.28655	0.16339
	문-2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	대전	68	2.7353	1.08748	0.13188
		부여	62	2.8387	1.16216	0.14759
	문-22.1. 문화예술 인력	대전	68	2.4265	0.85197	0.10332
		부여	62	2.5000	0.98763	0.12543
	문-22.2. 문화시설 보유	대전	68	2.5735	0.91938	0.11149
		부여	62	2.0484	0.98226	0.12475
	문-22.3. 문화예술 활동	대전	68	2.8529	0.95049	0.11526
		부여	62	2.7097	1.07714	0.13680
경관부문	문-22.4.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지원을 위한 법제도	대전	67	2.5075	0.94345	0.11526
		부여	62	2.6613	0.86732	0.11015
	문-31.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	대전	68	2.5147	1.05791	0.12829
		부여	62	2.7581	1.11157	0.14117
	문-31.1.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경관 정비	대전	68	2.5147	0.88928	0.10784
		부여	62	2.5484	1.11145	0.14115
	문-31.2.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대전	68	2.6324	0.92888	0.11264
		부여	62	2.5000	0.97089	0.12330
산업경제부문	문-31.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대전	68	2.3529	0.85979	0.10427
		부여	62	2.3871	0.94704	0.12027
	문-41. 부여 대표 문화(콘텐츠)산업	대전	68	2.8235	1.06422	0.12906
		부여	62	2.8710	1.22118	0.15509
	문-41.1.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	대전	68	2.8971	1.02418	0.12420
		부여	62	2.8548	1.23934	0.15740
	문-41.2. 문화산업지원 법제도, 재원, 인력	대전	68	2.3824	0.79230	0.09608
		부여	62	2.3710	0.81450	0.10344
	문-41.3.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및 산업	대전	68	2.7353	1.10112	0.13353
		부여	62	2.6290	1.07481	0.13650

주민들의 문화적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문에서 역사문화적 자긍심, 미래 대표이미지로서의 인식, 행사참여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또는 약간그렇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약간 그렇지 않다’ 로 답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5-19〉 역사문화도시 형성요소에 대한 통계분석(계속)

설문 내용		거주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주 민 의 식	문-51. 부여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	대전	68	3.0882	0.78674	0.09541
		부여	62	2.9516	0.96543	0.12261
	문-51.1. 부여주민들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대전	68	3.3382	1.08738	0.13186
		부여	62	3.4032	1.07825	0.13694
	문-51.2. 역사문화도시를 부여의 미래 대표이 미지로 인식	대전	68	3.4118	1.01091	0.12259
		부여	62	3.5323	1.03572	0.13154
	문-51.3.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에 참여	대전	68	3.4706	0.96924	0.11754
		부여	62	3.0806	1.02906	0.13069
	문-51.4.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대전	68	2.7500	1.05625	0.12809
		부여	62	2.7419	0.92214	0.11711

부문별 통계분석결과, 역사부문과 문화적 공동체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화도시로서의 창조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역사부문에서도 도시구조의 독특성과 전통의 계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부여주민과 부여 외 지역주민(대전시민) 간 인식 비교분석

인식 비교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 < 0.05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 ≥ 0.05 로 판별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부여주민들은 부여 외 지역주민들보다 부여가 역사도시로서의 장소성, 문화재 보유, 진정성, 법제도, 도시구조, 전통의 계승 항목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부여 외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해 주민들 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부문에서 대부분 항목에 있어서 여건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문화시설 항목에 있어서, 부여주민들이 부여 외 지역주민들 보다 문화시설이 미흡하다고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0〉 역사문화도시 형성요소에 대한 부여주민과 지역 외 주민 간의 인식 비교분석

설문 내용		등분산	Levene의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등분산 검정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F	유의 확률						하한	상한
역사 부문	문-11.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	가정됨	0.298	0.586	-2.095	128.000	0.038	-0.40987	0.19567	-0.79703	-0.02271
		가정되지 않음			-2.102	127.966	0.037	-0.40987	0.19497	-0.79565	-0.02408
	문-12.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 보유	가정됨	0.131	0.718	-1.984	128.000	0.049	-0.28843	0.14541	-0.57614	-0.00071
		가정되지 않음			-1.998	127.552	0.048	-0.28843	0.14439	-0.57413	-0.00272
	문-12.1. 중요한 역사 유적의 진정성	가정됨	0.141	0.707	-2.007	128.000	0.047	-0.28843	0.14374	-0.57285	-0.00400
		가정되지 않음			-2.015	127.993	0.046	-0.28843	0.14317	-0.57172	-0.00513
	문-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가정됨	0.382	0.537	-2.215	128.000	0.029	-0.41983	0.18951	-0.79482	-0.04484
		가정되지 않음			-2.222	127.932	0.028	-0.41983	0.18890	-0.79360	-0.04606
	문-13. 역사도시로서 역사환경 유지	가정됨	6.695	0.011	-1.574	128.000	0.118	-0.32875	0.20888	-0.74205	0.08456
		가정되지 않음			-1.561	119.136	0.121	-0.32875	0.21065	-0.74585	0.08835
문화 예술 부문	문-13.1.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구조	가정됨	5.868	0.017	-2.408	128.000	0.017	-0.49715	0.20642	-0.90559	-0.08872
		가정되지 않음			-2.374	110.558	0.019	-0.49715	0.20941	-0.91212	-0.08218
	문-14. 역사문화유산 전통의 가치	가정됨	0.537	0.465	-2.015	128.000	0.046	-0.34488	0.17119	-0.68360	-0.00615
		가정되지 않음			-2.016	127.120	0.046	-0.34488	0.17111	-0.68347	-0.00629
	문-21.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	가정됨	3.010	0.085	-1.954	128.000	0.053	-0.32021	0.16388	-0.64447	0.00405
		가정되지 않음			-1.951	125.998	0.053	-0.32021	0.16413	-0.64502	0.00460
	문-21.2. 고유한 역사 전통의 전승 발전	가정됨	3.784	0.054	-2.542	127.000	0.012	-0.51276	0.20170	-0.91188	-0.11364
		가정되지 않음			-2.517	114.758	0.013	-0.51276	0.20368	-0.91623	-0.10929
	문-22. 문화예술 창조에 기반이 조성	가정됨	0.000	0.992	-0.524	128.000	0.601	-0.10342	0.19732	-0.49384	0.28701
		가정되지 않음			-0.522	124.837	0.602	-0.10342	0.19793	-0.49514	0.28831
	문-22.1. 문화예술 인력	가정됨	1.214	0.273	-0.456	128.000	0.649	-0.07353	0.16140	-0.39288	0.24582
		가정되지 않음			-0.452	121.101	0.652	-0.07353	0.16250	-0.39524	0.24818
	문-22.2. 문화시설	가정됨	0.244	0.622	3.148	128.000	0.002	0.52514	0.16680	0.19511	0.85517
		가정되지 않음			3.139	124.847	0.002	0.52514	0.16731	0.19401	0.85627
	문-22.3.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	가정됨	1.614	0.206	0.806	128.000	0.422	0.14326	0.17785	-0.20864	0.49517
		가정되지 않음			0.801	122.257	0.425	0.14326	0.17888	-0.21085	0.49737
	문-22.4. 문화예술 창조,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가정됨	0.935	0.335	-0.962	127.000	0.338	-0.15383	0.15995	-0.47035	0.16269
		가정되지 않음			-0.965	126.995	0.336	-0.15383	0.15943	-0.46931	0.16166

〈표 5-20〉 역사문화도시 형성요소에 대한 부여주민과 지역 외 주민 간의 인식 비교분석(계속)

설문 내용		등분산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경 관 부 문	문-31.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	가정됨	0.168	0.682	-1.279	128.000	0.203	-0.24336	0.19032	-0.61993	0.13322
		가정되지 않음			-1.276	125.456	0.204	-0.24336	0.19075	-0.62087	0.13416
	문-31.1. 역사문화유산 주변도시경관	가정됨	4.696	0.032	-0.192	128.000	0.848	-0.03368	0.17583	-0.38159	0.31423
		가정되지 않음			-0.190	116.772	0.850	-0.03368	0.17764	-0.38549	0.31812
	문-31.2.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 교통 인프라	가정됨	0.293	0.589	0.794	128.000	0.429	0.13235	0.16667	-0.19742	0.46213
		가정되지 않음			0.792	125.635	0.430	0.13235	0.16701	-0.19816	0.46287
	문-31.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	가정됨	0.957	0.330	-0.216	128.000	0.830	-0.03416	0.15846	-0.34770	0.27939
		가정되지 않음			-0.215	123.588	0.830	-0.03416	0.15918	-0.34922	0.28091
산 업 경 제 부 문	문-41.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가정됨	0.916	0.340	-0.237	128.000	0.813	-0.04744	0.20048	-0.44413	0.34925
		가정되지 않음			-0.235	121.630	0.815	-0.04744	0.20176	-0.44686	0.35198
	문-41.1.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	가정됨	1.742	0.189	0.212	128.000	0.832	0.04222	0.19875	-0.35104	0.43548
		가정되지 않음			0.211	118.712	0.834	0.04222	0.20050	-0.35479	0.43924
	문-41.2. 문화산업지원을 위한 법제도, 재원, 인력	가정됨	0.875	0.351	0.081	128.000	0.936	0.01139	0.14100	-0.26760	0.29037
		가정되지 않음			0.081	126.162	0.936	0.01139	0.14118	-0.26800	0.29077
	문-41.3. 미래 문화콘텐츠 및 산업	가정됨	0.048	0.828	0.556	128.000	0.579	0.10626	0.19117	-0.27200	0.48452
		가정되지 않음			0.556	127.394	0.579	0.10626	0.19095	-0.27159	0.48411

공동체의식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역사문화행사 참여 부문에 대해 부여 외 지역주민들은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부여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행사참여에 대한 인식이 외부 지역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0〉 역사문화도시 형성요소에 대한 부여주민과 지역 외 주민 간의 인식 비교분석(계속)

설문 내용		등분산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주 민 의 식	문-51. 부여주민의 문 화 공동체 의식	가정됨	1.013	0.316	0.888	128.000	0.376	0.13662	0.15390	-0.16790	0.44115
		가정되지 않음			0.879	117.885	0.381	0.13662	0.15536	-0.17103	0.44427
	문-51.1. 부여주민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가정됨	0.031	0.861	-0.342	128.000	0.733	-0.06499	0.19018	-0.44129	0.31131
		가정되지 않음			-0.342	127.088	0.733	-0.06499	0.19011	-0.44117	0.31119
	문-51.2. 역사문화도시 를 부여의 미래 대표 이미지로 인식	가정됨	0.003	0.959	-0.671	128.000	0.504	-0.12049	0.17960	-0.47587	0.23488
		가정되지 않음			-0.670	126.262	0.504	-0.12049	0.17981	-0.47632	0.23533
	문-51.3. 부여주민의 역사문화행사 참여	가정됨	0.678	0.412	2.225	128.000	0.028	0.38994	0.17528	0.04312	0.73677
		가정되지 않음			2.218	125.082	0.028	0.38994	0.17577	0.04207	0.73781
	문-51.4.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정책, 사 업참여 제도기반	가정됨	1.849	0.176	0.046	128.000	0.963	0.00806	0.17465	-0.33751	0.35364
		가정되지 않음			0.046	127.769	0.963	0.00806	0.17356	-0.33535	0.35148

다. 세부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분석

다음은 부문별로 세부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으로서 ① 역사적 장소, 사건 또는 인물, 독특한 역사유산, ② 문화전통과 문화자원, ③ 도시경관, ④ 문화산업 관련 문화(콘텐츠)자원 순으로 연상이미지 자원을 조사하였다.

① 역사적 장소, 사건 또는 인물

○ 역사적 장소

부여를 생각했을 때 연상되는 대표적인 역사적 장소에 대한 설문에서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오는 장소는 1~5번째까지 낙화암, 궁남지, 백마강, 정림사지, 부소산 등이었다.

장소적 자원을 특징을 보면 금강과 관련된 낙화암, 백마강, 연지로 되어있는 궁남지 등 수변 자원과 관련된 역사자원에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특히 궁남지가 높은 인지이미지를 가진 것은 부여군에서 궁남지를 중심으로 한 연꽃축제 등의 장소마케팅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지차체의 성공적인 장소마케팅이 장소의 인지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역사적 장소자원 개발과 브랜드화에 있어서 금강수변지역을 중심으로한 개발과 함께 낙화암, 구드래나루, 부소산성을 일차적으로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궁남지와 정림사지와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1〉 역사적 장소에 대한 이미지 요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궁남지	33	부소산	119	115	낙화암	49	낙화암	214	189	낙화암	73	304	276
2	부소산	25	궁남지	114	110	백마강	25	백마강	85	75	궁남지	57	195	182
3	정림사지	25	낙화암	90	87	부소산성	25	부소산성	85	75	백마강	41	142	130
4	낙화암	24	정림사지	82	79	궁남지	24	궁남지	81	71	정림사지	41	135	126
5	백마강	16	백마강	57	55	정림사지	16	정림사지	53	47	부소산	29	134	128
소계	(1-5번항)	123		462	446		139		518	457		241	910	842
6	기타	187	기타	468	454	기타	201	기타	502	443	기타	409	1040	958
소계	응답	207	응답	707	684	응답	204	응답	731	645	응답	411	1438	1329
	무응답	103	무응답	223	216	무응답	136	무응답	289	255	무응답	239	512	471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지이미지로서는 백제멸망, 황산벌전투, 사비천도, 삼천궁녀, 나당연합군 등을 연상하여, 주민들 상당수는 백제말기의 패망과 연상된 사건을 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2〉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미지 요소

대상	부역지역 주민					부역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연상강도	비율보정
1	백제멸망	14	사비천도	62	60	백제멸망	17	백제멸망	80	71	백제멸망	31	138	127
2	사비천도	14	백제멸망	58	56	황산벌전투	16	황산벌전투	76	67	황산벌전투	27	123	113
3	황산벌전투	11	황산벌전투	47	45	삼천궁녀	6	서동요	25	22	사비천도	17	73	70
4	나·당연합군	5	나·당연합군	21	20	서동요	6	삼천궁녀	23	20	삼천궁녀	9	33	30
5	백제부흥운동	4	수도천도	20	19	백제천도	5	백제천도	22	19	나·당연합군	5	30	28
소계	(1-5번항)	48		208	200		50		226	199		89	397	368
6	기타	262	기타	722	700	기타	290	기타	794	701	기타	561	1553	1432
소계	응답	88	응답	358	346	응답	96	응답	400	353	응답	184	758	699
	무응답	222	무응답	590	571	무응답	244	무응답	620	547	무응답	466	1210	1118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 역사적 인물

연상되는 역사적 인물로는 계백장군, 의자왕, 성왕, 무왕, 성충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상이미지 인물의 특징을 보면, 계백장군과 의자왕은 백제 멸망과 관련된 인물이며, 성왕은 사비천도, 무왕은 서동왕자로서 백제의 부흥시대의 인물이었다.

〈표 5-23〉 역사적 인물에 이미지 요소

대상	부역지역 주민					부역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연상강도	비율보정
1	계백장군	50	계백장군	212	205	계백장군	45	계백장군	194	171	계백장군	95	406	376
2	의자왕	39	의자왕	131	127	의자왕	44	의자왕	187	165	의자왕	83	318	292
3	성왕	31	성왕	108	105	선화공주	11	선화공주	41	36	성왕	39	126	121
4	무왕	22	무왕	78	75	삼천궁녀	10	서동	33	29	무왕	28	100	94
5	성충	17	성충	56	54	서동	9	삼천궁녀	29	26	성충	22	56	54
소계	(1-5번항)	159		585	566		119		484	427		267	1,006	937
6	기타	151	기타	345	334	기타	221	기타	536	473	기타	383	944	863
소계	응답	196	응답	691	669	응답	190	응답	712	628	응답	386	1403	1297
	무응답	114	무응답	239	231	무응답	150	무응답	308	272	무응답	264	547	503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 독특한 역사유산

독특한 역사유산 또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백제금동대향로가 가장 높은 독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전략적 차원에서의 연구, 문화마케팅 및 상품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정림사지5층석탑, 궁남지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24〉 독특한 역사유산 이미지 요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백제금동 대향로	47	백제금동 대향로	206	199	백제금동 대향로	32	백제금동 대향로	132	116	백제금동 대향로	79	338	315
2	정림사지 5층석탑	31	정림사지 5층석탑	135	131	정림사지 5층석탑	28	정림사지 5층석탑	116	102	정림사지 5층석탑	59	251	233
3	궁남지	22	궁남지	70	68	정림사지	17	정림사지	72	64	궁남지	36	118	110
4	부소산성	12	부소산성	41	40	부소산성	15	부소산성	61	54	부소산성	27	102	94
5	무량사	9	정림사지	24	23	궁남지	14	궁남지	48	42	정림사지	24	96	87
소계	(1-5번항)	121		476	461		106		429	378		225	905	839
6	기타	189	기타	454	439	기타	234	기타	591	522	기타	425	1,045	961
소계	응답	195	응답	687	665	응답	177	응답	642	566	응답	372	1,329	1,231
	무응답	115	무응답	243	235	무응답	164	무응답	378	334	무응답	279	621	569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 독특한 역사적 장소

독특한 역사적 장소로서는 궁남지가 가장 많이 응답하여 장소마케팅의 장소로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백마강, 부소산성, 정림사지, 낙화암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5〉 독특한 역사적 장소 이미지 요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궁남지	13	궁남지	61	59	궁남지	10	궁남지	40	35	궁남지	23	101	94
2	정림사지	6	백마강	25	24	부소산성	9	부소산성	37	33	백마강	6	54	50
3	부소산성	4	정림사지	23	22	정림사지	7	백마강	29	26	부소산성	13	53	48
4	왕릉원	4	부소산성	16	15	낙화암	6	정림사지	28	25	정림사지	13	51	47
5	구드래	3	시가지	14	14	백마강	6	낙화암	26	23	낙화암	6	26	23
소계	(1-5번항)	30		139	134		38		160	142		61	285	262
6	기타	280	기타	791	766	기타	302	기타	860	758	기타	589	1,665	1,538
소계	응답	70	응답	286	277	응답	62	응답	258	228	응답	132	544	504
	무응답	240	무응답	644	623	무응답	278	무응답	762	672	무응답	518	1,406	1,296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② 문화전통과 문화자원

○ 역사문화적 전통

부여를 대표하는 고유한 역사적 전통으로는 불교, 은산별신제, 백제문화제, 백제문화, 유교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26〉 역사문화적 전통 이미지 요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불교	10	불교	50	48	불교	21	불교	100	88	불교	31	150	136
2	은산 별신제	8	은산 별신제	35	34	백제문화	5	백제문화	24	21	은산 별신제	10	43	41
3	백제 문화제	7	백제 문화제	32	31	유교	4	유교	16	14	백제 문화제	9	42	40
4	산유화가	3	산유화가	10	10	백제 문화제	2	백제 문화제	10	9	백제문화	5	24	21
5	용정리 상여소리	3	도교	8	8	보부상	2	보부상	9	8	유교	4	16	14
소계	(1-5번항)	31		135	131		34		159	140		59	275	252
6	기타	279	기타	795	769	기타	306	기타	861	760	기타	591	1,675	1,548
소계	응답	56	응답	233	225	응답	62	응답	261	230	응답	118	494	456
	무응답	254	무응답	697	674	무응답	278	무응답	759	670	무응답	532	1,456	1,344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 대표적인 문화자원(문화예술 인물, 문화시설, 공연 등)

문화자원으로서는 백제문화제, 국립부여박물관, 신동엽, 백제역사재현단지, 대백제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27〉 대표적인 문화자원 이미지 요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백제 문화제	13	백제 문화제	62	60	국립부여 박물관	14	국립부여 박물관	53	47	백제 문화제	24	111	103
2	국립부여 박물관	12	신동엽	50	48	백제 문화제	11	백제 문화제	49	43	국립부여 박물관	26	97	90
3	신동엽	12	국립부여 박물관	44	43	대백제전	9	대백제전	41	36	신동엽	15	63	59
4	백제역사 재현단지	7	유홍준	26	25	백제역사 재현단지	7	백제역사 재현단지	31	27	백제역사 재현단지	14	55	50
5	유홍준	6	백제역사 재현단지	24	23	낙화암	5	구드래	18	16	대백제전	9	41	36
소계	(1-5번항)	50		206	199		46		192	169		88	367	338
6	기타	260	기타	724	701	기타	294	기타	828	731	기타	562	1,583	1,462
소계	응답	115	응답	439	425	응답	121	응답	476	420	응답	236	915	845
	무응답	195	무응답	491	475	무응답	219	무응답	544	480	무응답	414	1,035	955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③ 부여를 대표하는 도시경관

부여를 대표하는 도시경관으로서 궁남지, 백마강, 낙화암, 구드래, 부소산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궁남지와 백마강은 장소의 독특성과 함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8〉 대표적인 도시경관 이미지 요소

대상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연상강도	비율보정
1	궁남지	17	궁남지	73	71	궁남지	20	궁남지	84	74	궁남지	37	157	145
2	구드래	9	구드래	40	39	백마강	16	백마강	70	62	백마강	20	89	80
3	구드래 공원	9	구드래 공원	36	35	낙화암	13	낙화암	57	50	낙화암	18	78	70
4	부소산	7	부소산	31	30	정림사지	9	부소산성	36	32	구드래	15	65	61
5	낙화암	5	낙화암	21	20	부소산성	8	정림사지	32	28	부소산	13	55	51
소계	(1-5번항)	47		201	195		66		279	246		103	444	407
6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소계	응답	100	응답	401	388	응답	110	응답	455	401	응답	210	856	789
	무응답	210	무응답	529	512	무응답	230	무응답	565	498	무응답	440	1,094	1,010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④ 부여 경제를 이끌 미래 문화산업 관련 문화(콘텐츠)자원

미래 부여의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문화자원 이미지요소로는 백제문화제, 백제역사재현단지, 관광, 문화재, 백제 순으로 응답하여, 축제와 문화관광단지가 부여경제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인식하였다.

〈표 5-29〉 미래 문화산업 관련 문화자원 이미지 요소

대상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연상강도	비율보정
1	관광	6	백제문화제	28	27	백제문화제	7	백제문화제	35	31	백제문화제	13	63	58
2	백제문화제	6	관광	22	21	백제역사재현단지	7	백제역사재현단지	32	28	백제역사재현단지	11	46	42
3	궁남지	5	문화재	22	21	낙화암	5	백제	24	21	관광	9	37	34
4	문화재	5	궁남지	20	19	백제	5	낙화암	20	18	문화재	5	32	30
5	백제역사재현단지	4	백제역사재현단지	14	14	구드래	4	백제문화	20	18	백제	5	24	21
소계	(1-5번항)	26		106	102		5.60		131	116		43	202	185
11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소계	응답	83	응답	315	305	응답	116	응답	469	414	응답	199	784	719
	무응답	227	무응답	597	578	무응답	224	무응답	551	486	무응답	451	1,148	1,064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제 6 장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방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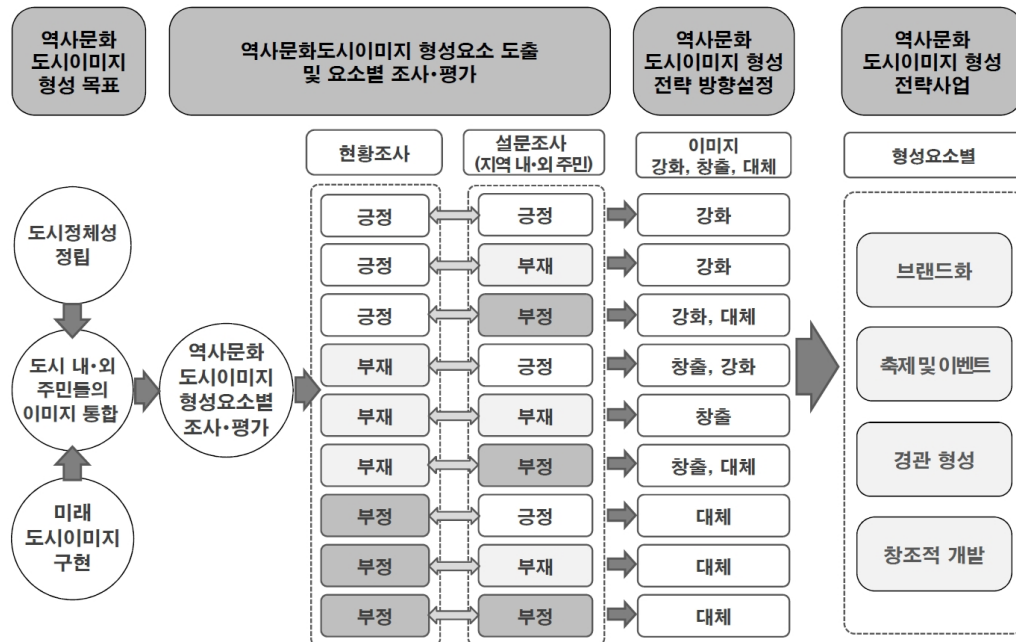
형성방안의 도출은 5장에서 현황조사와 설문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미지 형성 전략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미지 형성전략의 기본방향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 강화, 대체, 창출로 설정하여, 기본방향별 정의를 아래 표와 같다.

〈표 6-1〉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전략 방향과 정의

도시이미지 형성전략 방향	정 의
이미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긍정적, 잠재적 이미지 가치를 강화 기존의 평범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
이미지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전략
이미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하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전략

(그림 6-1)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방안 도출 모형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부문별, 요소별 현황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형성전략 방향설정을 검토한 결과, 역사부문은 이미지 강화·대체전략이 필요하며, 문화부문은 이미지 강화·창출, 경관, 산업·경제부문은 이미지 창출, 주민의식부문은 이미지 창출·강화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6-2〉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방향

부문	설문 내용	현황 조사	설문 조사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역사	문-11. 부여 역사도시로서의 장소성	긍정	긍정 (3.94)	강화
	문-12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 보유	긍정	긍정, 부정 (4.29)	강화, 대체
	문-12.1.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재는 진정성	긍정	긍정 (4.29)	강화
	문-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긍정	보통 (3.05)	강화
	문-13.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을 유지	보통	보통 (3.06)	강화
	문-13.1.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도시구조	미흡	부정 (2.72)	강화
	문-14. 부여 역사문화유산 또는 전통의 학문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	긍정	긍정 (4.07)	강화
문화 예술	문-2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	긍정	긍정 (3.97)	강화
	문-21.2. 부여의 역사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 발전	미흡	부정, 부재 (2.61)	창출
	문-2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	미흡	미흡 (2.79)	창출
	문-22.1. 문화예술 인력	보통	미흡 (2.46)	창출
	문-22.2. 문화시설 보유	미흡	미흡 (2.31)	창출
	문-22.3. 문화예술 활동	보통	미흡 (2.78)	창출
	문-22.4.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지원을 위한 법제도	미흡	미흡 (2.58)	창출

〈표 6-2〉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요소별 형성전략 방향(계속)

부문	설문 내용	현황 조사	설문 조사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경관	문-3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	미흡	미흡 (2.64)	창출
	문-32.1.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경관 정비	미흡	미흡 (2.53)	창출
	문-32.2.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미흡	미흡 (2.57)	창출
	문-32.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미흡	미흡 (2.37)	창출
산업	문-43. 부여 대표 문화(콘텐츠)산업	미흡	미흡 (2.85)	창출
	문-43.1.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	보통	보통 (2.88)	창출
	문-43.2. 문화산업지원 법제도, 재원, 인력	미흡	미흡 (2.38)	창출
	문-43.3.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	미흡	미흡 (2.68)	창출
주민 의식	문-54. 부여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	보통 (3.02)		창출, 강화
	문-54.1. 부여주민들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긍정 (3.37)		강화
	문-54.2. 역사문화도시를 부여의 미래 대표이미지로 인식	긍정 (3.47)		강화
	문-54.3.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에 참여	긍정 (3.28)		강화
	문-54.4.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긍정 (2.75)		창출

2. 도시이미지 형성방안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역사, 문화, 경관, 산업, 주민의식부문별, 세부형성 요소별 형성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부문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는 역사적 장소성, 문화재 보유, 진정성 등에 대해 이미지 강화전략이 필요한 분석되었다.

전략 사업으로서는 역사도시 브랜드화사업, 문화재 중심 장소마케팅 사업이 필요하며, 연계하여 현재 부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볼과 상징체계는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역사유산의 정비는 이미지 연상강도가 높게 나온 낙화암, 백마강, 부소산성 등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정비·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궁남지와 정림사지 순으로 정비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물리적인 문화재 정비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역사적 스토리텔링) 중심의 이미지 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절실하다. 백제에는 선진문화와 전파, 해상교류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화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스토리적 전개가 이미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부여 도시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여의 현 도시구조는 일본의 신도(神都)건설계획에 의해 새로 조성된 가로에 따라 가로망이 구성되어 있어 도시구조에 대한 변형이 있었지만, 점적인 문화유산의 위치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도시구조가 변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과거의 옛 모습을 완벽히 재현한다는 개념보다는 도시의 분위기를 역사도시의 분위기에 걸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유산과 도시정비가 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정비는 기존 시설물의 철거 후 조성보다는 조경, 시설물 디자인, 색채,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가치성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형성은 역사문화도시로 부여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근간이며, 부여주민과 부여지역 외 주민들간의 인식공유가 절실하다. 학술적인 체계적 연구를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가치의 조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홍보계획이 필요하다.

〈표 6-3〉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역사부문

부문	설문 내용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전략사업
역사 부문	문-11. 부여 역사도시로서의 장 소성	강화	▶ 역사도시 브랜드화사업 • CI, 슬로건 등의 재정립 • 상징물 및 랜드마크 조성 ▶ 역사문화 장소마케팅 추진
	문-12.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 보유	강화, 대체	▶ 인지도 높은 역사유산의 정비 • 수변자원 중심의 자원개발 • 백마강 유람관광 상품개발 ▶ 역사 스토리텔링 발굴·개발 -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 로 전환할 수 있는 역사자원 발굴
	문-12.1.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 재는 진정성	강화	▶ 역사유산의 지속적 보존·정비
	문-12.2.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강화	▶ 보존법의 체계적 시행
	문-13.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 경을 유지	강화	▶ 역사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역사적 환경정비
	문-13.1.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도 시구조	강화	
	문-14. 역사문화유산 또는 전통 의 학문·교육적 가치	강화	▶ 학술, 교육연구의 정책적 지원 • 학술, 교육연구 지원체계 구축 • 학술, 교육 Tour 개발

2) 문화예술부문

백제에는 도교, 불교, 유교 등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융성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존하는 백제금동대향로, 정림사지5층석탑, 금동관세음보살입상 등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창조적으로 계승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서, 현대적 계승을 위한 관련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의 단순한 전달이 아닌 창조적 계승을 위해서는 교육,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부족한 문화예술 인력의 양성과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국

립부여박물관은 전시·수장기능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여군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제정, 재정 지원 등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칭 ‘백제문화예술협의체’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여군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6-4〉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문화부문

부문	설문 내용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전략사업
문화 부문	문-2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	강화	▶ 백제정신의 계승 • 백제정신의 가치 재조명 • 현대적 계승을 위한 시책 마련
	문-21.2. 부여의 역사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 발전	창출	
	문-2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	창출	▶ 문화예술 창조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적 육성계획 마련 • 전통문화학교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문화예술 인력 육성 • 국립부여박물관의 기능강화 - 전시, 공연 등 창작예술 활동지원 - 창작예술가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 창작예술스튜디오 지원 - 문화예술 평생학습기능 강화 • 문화예술 진흥 법제도 마련
	문-22.1. 문화예술 인력	창출	
	문-22.2. 문화시설 보유	창출	
	문-22.3. 문화예술 활동	창출	
	문-22.4.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지원을 위한 법제도	창출	

3) 역사문화적 도시경관 정비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의 시가지 도시경관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도시이미지 저하와 주민들의 불만요소로 작용하여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⁵⁰⁾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경관을 단기간에 새롭게 하는 것은 법제도적 차원, 재정적 차원에서 한계가 있

50) 내륙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강력한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도시경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인이 있다.

다. 따라서, 단기적, 장기적 차원의 도시경관정비 추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부여군과 주민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무질서한 간판 정비, 청결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정비, 아름다운 가로시설물 도입 등은 군과 주민차원에서 시행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시행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구드래, 부소산성 등의 지역과 도시경관을 연계 정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6-2] 부여 시가지 도시경관 정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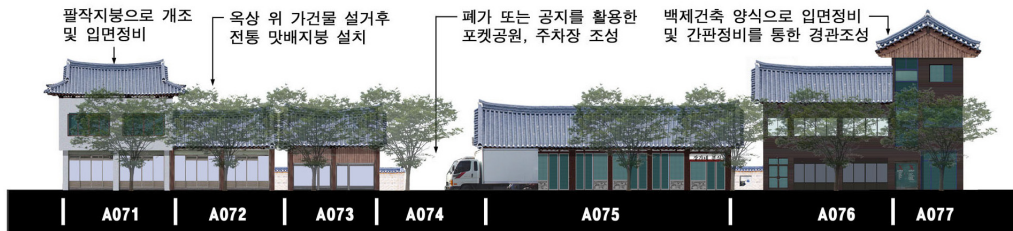
■ 현재의 거리 모습

- 용도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구, 분식, 슈퍼, 사무용품점 등 입지 → 특화상품의 부재로 구매수요위축, 상권약화
- 경관 : 부정형의 건축물 매스, 색채, 간판 등 → 무질서하며 특색없는 거리 경관 연출



■ 조성후 거리 모습

- ▶ 용도 : 전통을 소재로 한 기념품, 민구, 사무문구센터, 전통음식점의 유도, 유치 → 용도 특성화를 통한 상가 활성화
- ▶ 경관 : 백제양식의 지붕, 입면, 색채 등으로 건축물을 정비, 전통 수종 식재 → 백제시대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네트워크 구축은 이용주체에 따라 ‘역사문화’, ‘도시상업’, ‘자연경관’ 등의 요소로 분리하여 주제가 있는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단계별로 추진한다.

- 1단계 : 역사문화 도시상업 네트워크 - 주제 : 백제의 정치, 문화, 종교, 삶을 체험
- 네트워크-A : 구드래↔부소산성(백제왕궁)↔정림사지↔궁남지

- 2단계 : 자연경관 도시상업 네트워크 - 주제 : 백마강의 아름다움과 지역주민의 삶
 - 네트워크-B : 송림공원↔백마강↔구드래↔재래시장↔풍물거리
- 3단계 : 역사문화 자연경관 네트워크 - 주제 : 부여의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 네트워크-C : 백제역사재현단지↔왕흥사지↔구드래↔부소산성
 - 네트워크-D : 구드래↔백마강↔송림공원↔수북정

[그림 6-3] 부여 역사문화유산 연계네트워크 방안



〈표 6-5〉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경관부문

부문	설문 내용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전략사업
경관 부문	문-32. 아름답고 독특한 문화적 도시경관이 조성	창출	▶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한 시가지 정비
	문-32.1.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경관 정비	창출	• 구드래, 궁남지, 정림사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역사도시경관 창출
	문-32.2.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창출	- 역사자원을 연계하는 보차도 정비 - 안내사인, 휴게시설 등 가로시설물 - 가로변 건축물 입면 정비
	문-32.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창출	•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를 배려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4) 역사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부여에는 백제·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귀중한 역사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상품화산업화는 미흡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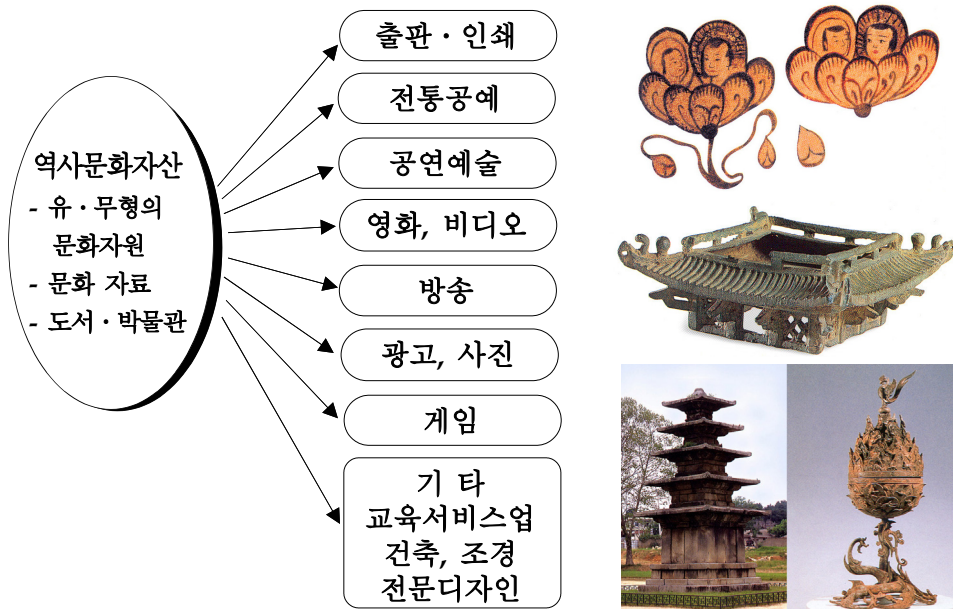
“백제예술은 매우 부드럽고 모나지 않으며 인간미가 넘치고 세련되었다. 이러한 특색은 5C~7C 중엽까지의 고분벽화, 불상, 와당을 비롯한 공예품, 탑등의 미술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다.”

부여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도시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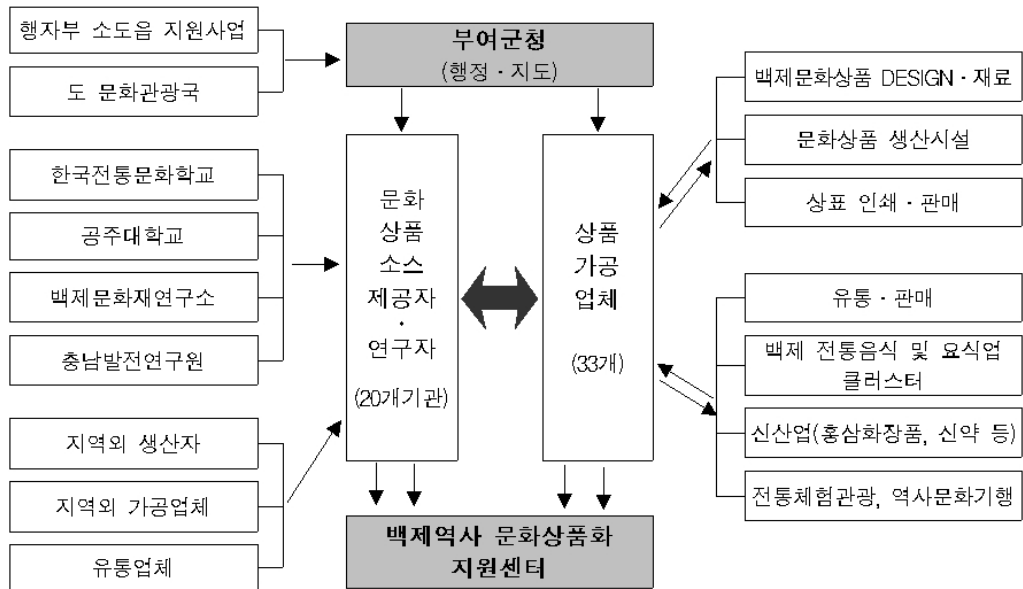
-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남의 백제문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타 지역에 없는 특정문화자산은 그 지위가 독점적이어서 그 효용성이 매우 큰데 부여에 산재한 백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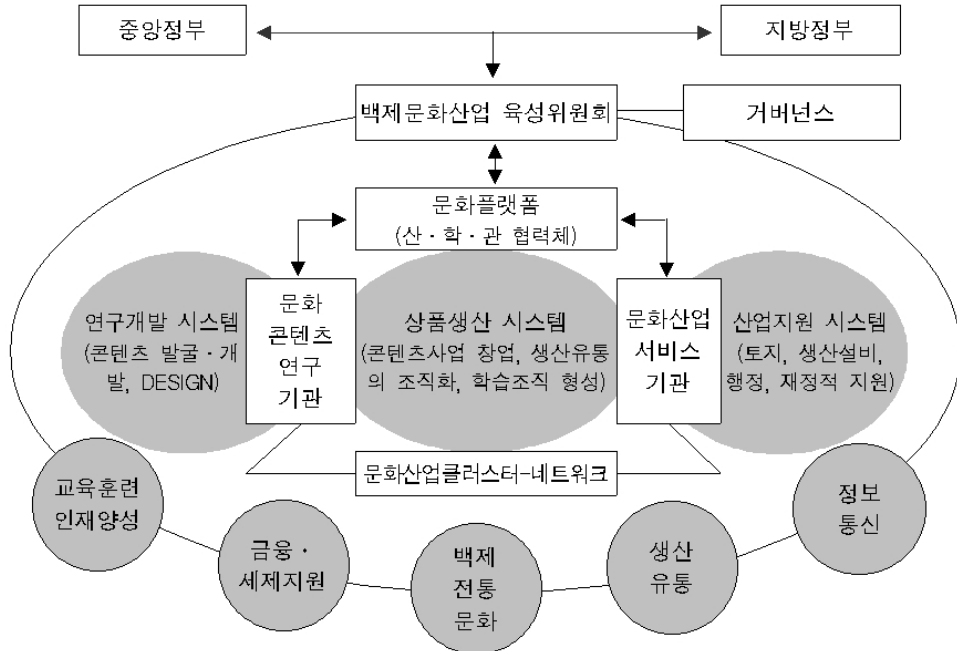
[그림 6-4] 역사문화자산의 문화산업 응용분야 및 콘텐츠 소재 (연화화생, 청동제모형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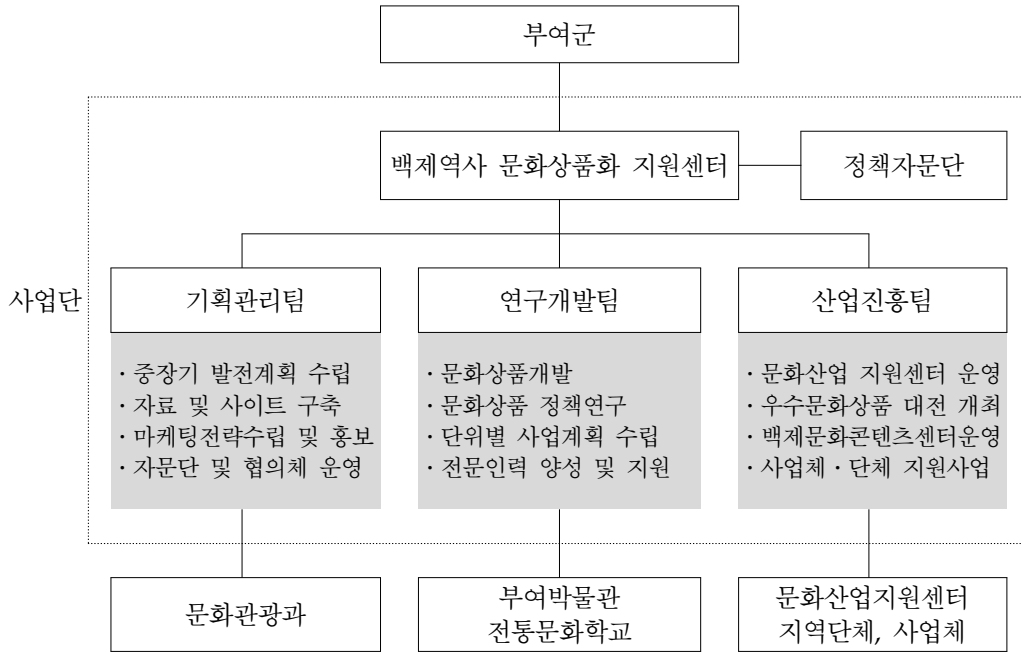
(그림 6-5)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체계-단기 (안)



(그림 6-6)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체계-장기 (안)



[그림 6-7] 부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직 체계 (안)



〈표 6-6〉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산업·경제부문

부문	설문 내용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전략사업
산업 경제	문-43. 문화(콘텐츠)산업	창출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문-43.1.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	창출	· 부여 '문화상품화사업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문-43.2. 문화산업지원 법제도, 자원, 인력	창출	· 부여 '문화상품화사업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문-43.3.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		· 문화산업 인큐베이션 센터 조성 - 문화산업 관련 창업보육 사업 ·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 육성

5) 도시 미래이미지의 공유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체 정서를 회복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부여의 도시미래상이 역사문화도시라는 이미지상을 공유하여 협력과 대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합의에 의해 부여의 미래상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공동체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1) 가칭‘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조직

부여의 특성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의 사업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 부여도시이미지 만들기’의 실천 및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주요기능은 부여의 주요시책들을 이미지 만들기 차원에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및 제시, 자문시행

(2) 공동체의식 회복

부여는 많은 역사문화, 지역 농·특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정책을 불신임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함과 함께, 자긍심과 애착심을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표 6-7〉 부여 역사문화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 - 주민의식부문

부문	설문 내용	이미지형성 전략방향	전략사업
주민의식	문-54. 부여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	창출, 강화	▶ 공동체 의식 형성 프로그램 및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 역사문화도시이미지 만들기 -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 희망 공공사업 • 지역별 핵심리더 육성 ▶ 주민참여사업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읍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시 주민참여제 시행
	문-54.1. 부여주민들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강화	
	문-54.2. 역사문화도시를 부여의 미래 대표이미지로 인식	강화	
	문-54.3.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에 참여	강화	
	문-54.4.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창출	

참고 문헌

- 이케가미 준, 황현탁 역, 문화경제학 文化經濟學, 나남출판
- 데이비드 트로스비, 성제환 역, 문화경제학 Economics and culture, 한울
- 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케빈레인컬러, 브랜드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북스
- 이길태 역(2002),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Richard Florida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 Literary Agency, Washington), 전자신문사, 서울
- 전영옥(2004),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전영옥(2006), “新문화도시 전략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효정 외2인(2004),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라도삼 (2006),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2006.1월호
- 정주환(2008), “문화도시의 요건과 법적 과제”, 『경영법률』, pp.73-104
- 강형기(2008), “일본 교토시와 가나자와시의 문화산업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1호
- 박훈, 정재용(2009), ‘도시공간정치학적 측면에서 역사도시의 가치설정 방법론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통권250호)
- 엄기철(1995), “외국의 역사도시 보존과 관리사례”, 『국토정보』
- 김동훈(2005), “수원 화성경내의 보전과 회복에 관한 연구 : 점·선·면 요소 분석에 의한”,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자(2009),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pp.81-101
- 이정수(1992), “고층아파트의 외관디자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지각·인지개념에 의한 시각적 선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태(2007),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경관 관리 방안 연구 :일본 가나자와(金澤市)를 중심으로, 경성대 대학원
- 추용욱(2006), “문화도시의 가로경관재생을 위한 연계전략 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2009),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안인향(2007),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재생·창조를 통한 도시만들기 :일본 교토시(京都市)를 중심으로, 國土研究 통권 제54권 (2007년 9월), pp.45-63
- 이우중, 김남정(2005),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6):177~192
- リムボヲン(2006), “歴史都市の「光」と「影」-超再生理論の構築をめざして-”, 立命館産業會論
- Nasar, J. L.(1998) The evaluative image of the city. CA: Sage Publications, Inc.
- Nasar, Jack L., Design by Competition-부제 Making Design Competition Work, Cambridge Univ Pr
- Parkes, D. & N. Thrift(1980) Times, spaces, and places: a chronogeographic perspective. NY: John Wiley.
- Snodgrass, J. and J. A. Russell (1986) Mapping the mood of a city. Paper presented at the 21st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Jerusalem, Israel.
- Stamps III, A. E.(1992) Bootstrap investigation of respondent sample size for environmental prefere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5: 220~222.
- Stamps III, A. E.(2000) Psychology and the aesthetics of the built environment.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teinitz, C.(1968) Meaning and the congruence of urban form and activity.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4(4): 233~248.
- WORLD HERITAGE CENTRE(2008),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Zube, E. H., R. O. Brush, and J. G. Fabos(1975) Landscape assessment: values, perceptions, and resources. PA: Dowden, Hutchinson & Ross, Inc..

부록 1 부여군 일반현황

1. 입지 및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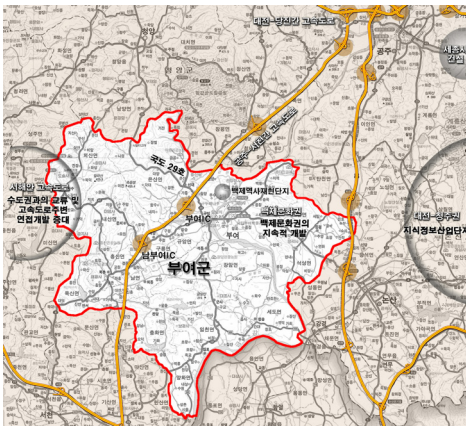
(1) 입지여건

부여는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하여 北으로 청양, 공주, 東으로 논산, 西로 보령, 南으로 서천 등을 접하고 있으며, 금강을 사이로 전라북도 익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과거, 금강을 따라 충남내륙 문화와 서해해양문화를 매개하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의 개통과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예정으로 수도권 및 주변광역도시권과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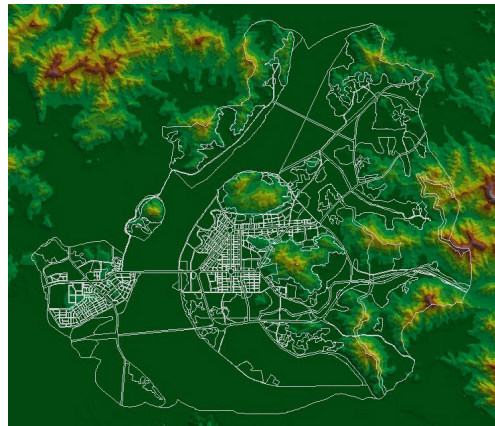
(2) 지형 및 지세

부여읍 지형은 北西高 南東底형을 가지며, 北으로 부소산, 東으로 금성산, 南으로 성흥산, 태봉산 등이 있으며, 南東측에는 완만한 구릉지를 형성하여 금강이 관류하고 있다. 표고는 100m미만이 98%, 경사 10° 미만의 환경사지가 68%로 도시 형성에 양호한 지형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부-1〕 부여 주변 현황도



〔그림 부-2〕 표고분석도



(3) 수계

금강수계에 포함되며, 부여읍 내를 흐르는 백마강은 부여군을 S자형으로 관류하며, 수력에 따라 규암면 외리, 부여읍 왕포리는 지속적인 침식, 부여읍 군수리와 장암면 정암리는 지속적인 퇴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여읍 내에는 직할하천 1개(금강), 준용하천 3개(석목천, 왕포천, 가증천)가 있다.



〔그림 부-3〕 광역수계현황



(그림 부-4) 부여읍 주변수계현황

(4) 기상 및 기후

연평균기온은 12.9℃로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고 일교차가 크다. 연평균 풍속은 1.4m/sec 주 풍향은 남서풍이나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대륙성 기후와 서해안의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온난다습한 기후에 다우지역으로 국지적 강우가 자주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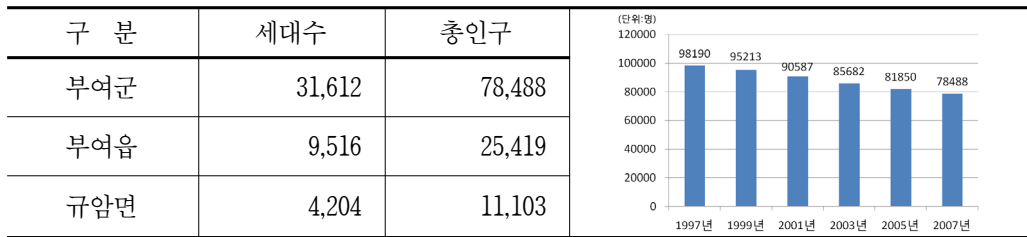
2) 인문·사회환경

(1) 인구 및 가구

군 전체인구는 총78,488명(2007년 현재)이며, 부여읍 인구는 25,419명으로서 1997-2007년까지 연평균 1.5%씩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규제, 교육문제 주택문제 등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부여지역의 발전 및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구분포는 20대 비율이 낮고 30-40대 비중이 높으며 특히 65세이상 고령자 비율이 23.1%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부여군 통계연보(2008)

〈그림 부-5〉 인구변화추이 및 현황

(2)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 321.7㎢(51.1%), 답 151.4㎢(24.2%), 전 7.4㎢(7.4%), 대지 2.5㎢(2.5%) 등으로 임야와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심 시가지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공업지역은 부여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전녹지로는 부소산, 금성산, 궁남지 주변지역이, 생산녹지로는 읍내에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는 도시외곽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역 상 녹지지역이 전체의 92.0%, 시가화구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8.0%를 차지하며, 유사규모의 도시에 비해 1인당 공원·녹지점유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부-1〉 토지지목별현황

지목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적 (㎢)	624.5	46.2	151.4	321.7	15.7	89.5
구성비 (%)	100	7.4	24.2	51.5	2.5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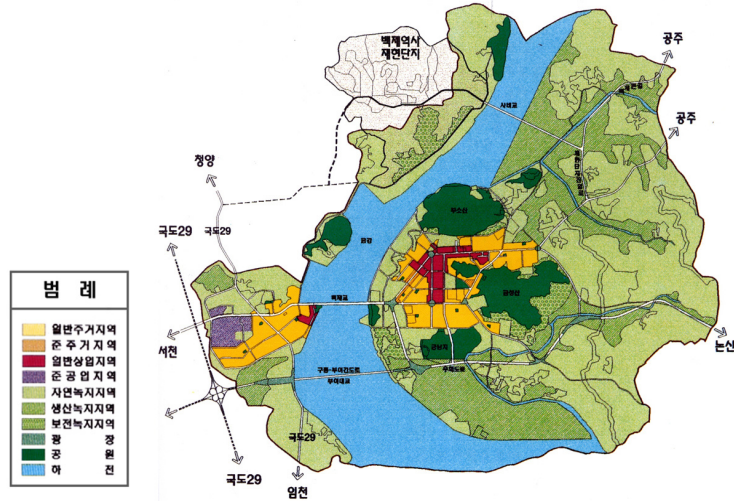
〈표 부-2〉 용도지역현황

구 분	계	읍면별 면적(천㎡)			구성비 (%)
		부여읍	은산면	홍산면	
합 계	44,206	39,751	1,646	2,809	100
주거지역	3,127	2,420	294	413	6.1
일반주거	3,061	2,354	294	413	5.9
준주거	66	66	-	-	0.2
상업지역	545	492	17	36	1.2
일반상업	545	492	17	36	1.2
공업지역	282	282	-	-	0.7
준공업	282	282	-	-	0.7
녹지지역	40,252	36,557	1,335	2,360	92.0
보전녹지	679	679	-	-	1.7
자연녹지	31,576	29,001	973	1,602	73.0
생산녹지	7,997	6,877	362	758	17.3

〈표 부-3〉 도시계획구역 현황

구분	도시계획구역 (㎢)			
	계	부여읍	은산면	홍산면
면적 (%)	44.206 (100%)	39.751 (89.9%)	1.646 (3.7%)	2.809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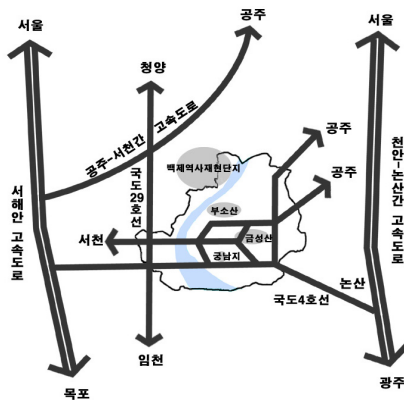
(그림 부-6) 도시계획 현황 및 도시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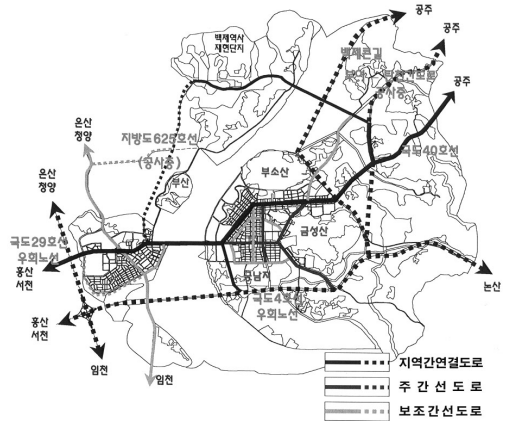
(3) 도로 및 교통

광역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공주~서천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확충으로 수도권 및 충청서남권, 중부권과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국도4호선, 국도29호선 등의 확포장공사 시행으로 중부내륙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 관광교통체계 구축으로 관광축이 형성되어, 관광수요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부-7) 광역 도로망도



(그림 부-8) 시가지내 가로망도



그러나, 도시내부에 입지한 자원간 연계 가로망 미흡으로 자원간, 생활권간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표 부-4〉 부여 도로현황

(단위 : m, %)

구분	연장	포장	포장율	미포장	미개통
총계	464,700	355,550	76.5	92,400	16,750
일반국도	117,680	117,680	100.0	-	-
지방도	139,900	89,940	64.3	38,710	11,250
시군도	205,100	145,910	71.1	53,690	5,500

자료: 부여군 통계연보(2008)

부여군 주차장 현황은 총 689개소로 노상 5개소, 노외 27개소, 건축물 부설 657개소로 나뉜

〈표 부-5〉 부여군 주차장 현황

구분	개소	면수	노상		노외		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부여군	689	7,599	5	368	27	1,411	657	5,820

자료 :부여시 통계연보(2008)

(4) 학교, 체육, 공원시설

가. 학교

부여군은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대전이나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는 학생수가 계속 증가추세이며,

부여군은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4명으로 조사됨

〈표 부-6〉 부여군 학교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보통교실수	학생수
부여	76	497	488	10,636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2008)

나. 체육시설

부여군에는 실내체육관 1개소와 종합 경기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기타 19개소와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등 신고체육시설이 43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부-7〉 부여군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기타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부여군	1,963㎡ (1)	131,320㎡ (1)	4,000㎡ (1)	198,493㎡ (19)	13	2	3	22	3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2008)

다. 공원

부여군 공원현황은 도시공원 32개소로 어린이 공원18개, 근린공원 6개, 도시자연공원 8개가 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36.8㎡로 대도시에 비해 양호함(총인구 73,464명)

〈표 부-8〉 부여군 공원 현황

(단위 : 천㎡)

구분	도시공원								자연공원	
	총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국립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부여군	32	2,710	18	31	6	305	8	2,374	-	-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2008)

(4) 경제 및 산업

백제고도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산업인구중 전체의 4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7년 현재 부여군의 농업 가구수는 13,523세대, 종사자 41,906명으로 연간 2,49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외에 산업별 구성은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 의존도가 높으며, 충남대비 산업별 종사자수 기준으로 부여군은 농업및임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금융및보험업, 기타공공,수리및개입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순으로 특화정도를 보였다.

〈표 부-9〉 산업구조

(단위: 명, %)

구분	총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충남	604,580(100)	3,482(0.6)	220,391(36.5)	380,707(63.0)
부여군	16,917(100)	317(1.9)	4,342(25.7)	12,258(72.5)
부여읍	8,223(100)	29(0.4)	1,550(18.8)	6,644(80.8)

주: 2차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

자료: 부여군, 부여통계연보, 2008,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8

〈표 부-10〉 산업별 기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충남 (개소)	부여군 (개소)	부여읍 (%)	부여군 충남대비 (%)	충남 (인)	부여군 (인)	부여읍 (%)	부여군 충남대비 (%)
농업 및 임업	238	40	4	16.81	3,443	317	29	9.21
어업	8	-	-	0.00	39	-	-	0.00
광업	117	3	1	2.56	1,026	60	9	5.85
제조업	11,883	436	143	3.67	189,353	3,348	829	1.7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93	4	3	4.30	5,264	80	55	1.52
건설업	3,915	134	92	3.42	30,012	934	712	3.11
도매 및 소매업	34,381	1,284	695	3.37	79,514	2,594	1,450	3.26
숙박 및 음식점업	28,676	958	519	3.34	68,355	1,873	1,092	2.74
운수업	9,975	496	227	4.97	24,277	735	357	3.03
통신업	499	24	4	4.81	5,192	139	51	2.68
금융 및 보험업	1,446	58	33	4.01	17,733	665	437	3.75
부동산 및 임대업	3,843	43	32	1.12	10,188	109	75	1.07
사업서비스업	2,453	58	47	2.36	19,379	227	209	1.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88	58	15	6.53	24,564	1,524	902	6.20
교육서비스업	5,174	198	93	3.83	55,747	1,812	699	3.25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078	125	63	4.06	25,193	1,085	638	4.31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	4,617	111	78	2.40	11,494	310	229	2.70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6,229	695	275	4.28	33,807	1,105	450	3.27
합 계	127,513	4,725	2,324		604,580	16,917	8,223	

자료: 부여군, 부여통계연보, 2008,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8

가. 농축산 및 임업

금강유역의 기름진 미사질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질 좋은 지하수 등으로 3,200여ha의 시설 채소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총생산량 중 양송이 45%, 토마토 13%, 수박 8% 등을 부여군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굿 트래 GOODTRAE」 공동브랜드 운용, 품질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부-11〉 주요농산물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ha)	생산량(천톤)	전국점유율	비고
토마토	357	26	13%	전국1위
양송이	70	8	45%	전국1위
수 박	2,100	110	8%	전국2위
표 고	135	3.9	16%	전국1위
밤	4,730	9.3	12%	전국1위

〈표 부-12〉 주요농산물 현황

작물류	계	식량작물	시설채소	일반채소	특용작물	과수
생산량(톤)	215,658	72,473	72,473	53,032	13,659	4,021

나. 공업 및 상업

4개 면 농공단지에 28개 업체를 유치하여 농외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상업에 있어서는 재래식 정기·상설시장을 중심으로 주요상권이 형성되어 왔으나, 농촌 인구 감소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업부문에 있어 부여군 내에 제조업체수는 162개이며, 이중 40여개 업체는 문화상품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부-13〉 업종별 제조업체수 및 종사원수

업종별	계	식 품	섬 유	목재 가구	종이 인쇄	화학 플라스 틱	비금속 광물	조립금속 기계장치	기 타
업체수	162	48	16	7	6	6	51	22	6
종사원수	3,412	1,358	175	74	309	246	551	676	23

자료 : http://buyeo.go.kr/buyeo02/05_1.php?menu=B

〈표 부-14〉 시장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m ²)	비고
부여시장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20	2,075	정기공설 · 인정시장
부여중앙시장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54	6,610	사설 · 인정시장
은산시장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362-1	517	정기공설시장
외산시장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2-4	384	정기공설 · 인정시장
홍산시장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32-1	2,700	정기공설
양화시장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83-1	330	정기공설
임천시장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88	570	정기공설

(5) 관광객 현황

부여군의 관광객은 2007년 현재 4,274,929명(내국인 1,605,201, 외국인 23,957명, 미구분 2,645,771)으로 연평균 14.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부여지역의 관광은 문화유적탐방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특히 수학여행철인 봄, 가을에 집중되고 있다.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과 관광자원이 입지함에도 자원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관광산업발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문화·관광자원간의 네트워크화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체류시스템 개발이 요망된다.

〈표 부-15〉 관광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내국인	2,113,138	2,929,236	2,964,825	1,863,675	1,605,201
외국인	63,716	81,394	71,510	31,130	23,957
미구분	.	.	.	2,319,437	2,645,771
합 계	2,176,854	3,010,630	3,036,335	4,214,242	4,274,929

부록 2 부여 도시이미지 분석을 위한 예비 설문 조사

ID

안녕하세요?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은 천편일률적이며 개성 없는 도시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주민들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부여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설문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6월

연락처 :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박철희 연구위원 [☎(041) 840-1161]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장창석 연구원 [☎(041) 840-1178]

☐ 문-01. 부여를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순으로, 5가지만 기록해 주십시오.

(예 : 서울 ⇒ 한강, 남산타워, 소음, 교통체증, 한국의 수도 등)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 문-02. 부여 도시이미지에 관련된 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부여 이미지 인지도	높다	약간높다	보통	약간낮다	낮다
부여 이미지 호감도	좋다	약간좋다	보통	약간싫다	싫다
부여 이미지 독특성	독특	약간독특	보통	약간독특 하지않음	독특하지 않음

☐ 문-03. 미래의 부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 개의 단어로 기록해 주십시오. _____)

☐ 문-04. 다음은 응답자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04.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04.2.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04.3.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군 _____ 년

부록 3 부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ID				
----	--	--	--	--

안녕하세요?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천편일률적이며 개성 없는 도시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바람직한 도시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설문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충남발전연구원장

연락처 :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박철희 연구위원 [☎(041) 840-1161]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장창석 연구원 [☎(041) 840-1178]

1. 역사부문

문-01. 귀하께서는 부여가 인류, 국가,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1. 부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사건 또는 인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 1) 역사적 장소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
| 2) 역사적 사건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
| 3) 역사적 인물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

문-02. 귀하께서는 부여가 (국가, 지역사회 차원에서)특기할 만한 역사유적이거나 기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1. 부여에 있는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재는 진정성(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2. 부여는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3. 부여의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3. 귀하께서는 부여가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공간 구조, 배치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1. 부여의 도시구조가 역사도시로서 타 도시(경주, 공주 등)와 비교하여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2. 부여의 도시구조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4. 부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유산 또는 전통은 학문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2. 역사문화 공통부문

문-0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1. 부여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1.2. 부여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3. 문화 부문

문-01.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1. 부여는 충분한 문화예술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2. 부여는 충분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3. 부여는 문화예술 활동(공연, 전시, 축제, 행사 등)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4. 부여는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5. 부여의 대표적인 문화자원(문화예술 인물, 문화시설, 공연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1. 부여는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경관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2. 부여는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3. 부여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를 배려한 안전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4. 부여를 대표적인 도시경관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3. 부여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1. 부여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2. 부여는 문화산업지원을 위한 법제도, 재원,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3. 부여의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4. 부여 경제를 이끌 미래 문화(콘텐츠)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4. 부여 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1. 부여주민들이 부여에 대해 역사문화적 자긍심(애착,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2. 부여주민들이 역사문화도시를 부여의 미래 대표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3. 부여주민들이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축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4. 부여주민들이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의체, 상설기구 등)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응답자 특성

본 설문항목은 통계처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DQ-0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DQ-02.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DQ-03. 귀하의 직업은?

-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학생 ④ 주부 ⑤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⑥기타(_____)

DQ-04. 귀하의 현재 살고계신 거주지와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거주지 : _____ 시(군) _____ 구(동, 읍, 면) , 거주기간 : _____ 년

DQ-05.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⑤ 400 ~ 500만원 미만
② 100 ~ 2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4 부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2차) 내용 분석

1) 역사부문

(1) 대분류

설문내용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평균
1. 부여가 인류, 국가,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4.14	3.73	3.93
2. 부여가 (국가, 지역사회 차원에서)특기할만한 역사유적이나 기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3	4.14	4.28
3. 부여가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공간구조, 배치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22	2.91	3.06
4. 부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유산 또는 전통은 학문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4	3.89	4.06
평 균	4.00	3.66	3.83

(2) 소분류

1. 부여가 인류, 국가,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33	11	13	4	1	62	4.14
부여지역 외 주민	22	19	17	7	3	68	3.76
계	55	30	30	11	4	130	3.93

1.1 부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사건, 또는 인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역사적 장소

대상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궁남지	33	부소산	119	115	낙화암	49	낙화암	214	189	낙화암	73	304	276
2	부소산	25	궁남지	114	110	백마강	25	백마강	85	75	궁남지	57	195	182
3	정림사지	25	낙화암	90	87	부소산성	25	부소산성	85	75	정림사지	43	143	138
4	낙화암	24	정림사지	82	79	궁남지	24	궁남지	81	71	백마강	41	142	130
5	백마강	16	백마강	57	55	정림사지	16	정림사지	61	54	부소산	29	134	128
6	부소산성	11	부소산성	46	45	정림사지 5층석탑	11	정림사지 5층석탑	48	42	부소산성	36	131	120
7	성흥산성	10	성흥산성	23	22	황산벌	10	황산벌	38	34	정림사지 5층석탑	15	63	57
8	무량사	9	구드래	20	19	고란사	5	부소산	15	13	황산벌	10	38	34
9	구드래	6	정림사지 5층석탑	15	15	부소산	4	백제수도	10	9	성흥산성	10	23	22
10	고란사	4	무량사	14	14	능산리 고분군	3	고란사	8	7	고란사	9	22	21
	정림사지 5층석탑	4	고란사	14	14	무량사	3	능산리 고분군	8	7				
11	기타	40	기타	113	109	기타	29	기타	70	62	기타	88	243	221
소계	응답	207	응답	707	684	응답	204	응답	731	645	응답	411	1438	1329
	무응답	103	무응답	223	216	무응답	136	무응답	289	255	무응답	239	512	471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2) 역사적 사건

대상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연상강도	비율보정
1	백제멸망	14	사비천도	62	60	백제멸망	17	백제멸망	80	71	백제멸망	31	138	127
2	사비천도	14	백제멸망	58	56	황산벌 전투	16	황산벌 전투	76	67	황산벌 전투	27	123	113
3	황산벌 전투	11	황산벌 전투	47	45	삼천궁녀	6	서동요	25	22	사비천도	17	73	70
4	나·당 연합군	5	나·당 연합군	21	20	서동요	6	삼천궁녀	23	20	삼천궁녀	9	33	30
5	백제 부흥운동	4	수도천도	20	19	백제천도	5	백제천도	22	19	나·당 연합군	5	30	28
6	수도천도	4	백제 부흥운동	14	14	낙화암	4	낙화암	18	16	백제패망	5	25	22
7	무왕즉위	3	서동·선화 결혼	11	11	사비천도	3	의자왕	13	11	서동요	6	25	22
8	삼천궁녀	3	백제금동 대향로발견	10	10	의자왕	3	사비천도	11	10	백제천도	5	22	19
9	서동·선화 결혼	3	삼천궁녀	10	10	계백장군	2	나당 연합군	9	8	수도천도	4	20	19
10	최초인공 저수지	3	무왕즉위	9	9	나·당 연합군	2	서동	9	8	낙화암	4	18	16
			최초인공 저수지	9	9	서동	2	오경박사 파견	9	8	백제 부흥운동	4	14	14
						선화공주	2							
						오경박사 파견	2							
11	기타	24	기타	87	84	기타	26	기타	105	93	기타	72	262	241
소계	응답	88	응답	358	346	응답	96	응답	400	353	응답	184	758	699
	무응답	222	무응답	590	571	무응답	244	무응답	620	547	무응답	466	1210	1118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3) 역사적 인물

대상	부역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연상강도	비율보정
1	계백장군	50	계백장군	212	205	계백장군	45	계백장군	194	171	계백장군	95	406	376
2	의자왕	39	의자왕	131	127	의자왕	44	의자왕	187	165	의자왕	83	318	292
3	성왕	31	성왕	108	105	선화공주	11	선화공주	41	36	성왕	39	126	121
4	무왕	22	무왕	78	75	삼천궁녀	10	서동	33	29	무왕	28	100	94
5	성충	17	성충	56	54	서동	9	삼천궁녀	29	26	성충	22	56	54
6	홍수	8	홍수	24	23	성왕	8	성왕	23	20	서동왕자	4	53	48
7	김종필	4	신동엽	14	14	무왕	6	무왕	22	19	삼천궁녀	13	38	35
8	서동왕자	4	서동왕자	12	12	성충	5	왕인	21	19	서동	9	33	29
9	신동엽	4	김종필	11	11	왕인	5	성충	18	16	김종필	8	26	24
10	삼천궁녀	3	삼천궁녀	9	9	근초고왕	4	근초고왕	15	13	홍수	12	24	23
	선화공주	3				김시습	4	김종필	15	13				
						김종필	4							
						홍수	4							
11	기타	11	기타	36	35	기타	31	기타	114	101	기타	73	223	201
소계	응답	196	응답	691	669	응답	190	응답	712	628	응답	386	1403	1297
	무응답	114	무응답	239	231	무응답	150	무응답	308	272	무응답	264	547	503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2. 부여가 (국가, 지역사회 차원에서)특기할만한 역사유적이나 기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37	15	10			62	4.43
부여지역 외 주민	28	26	10	4		68	4.14
계	65	41	20	4		130	4.28

2.1 부여에 있는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재는 진정성(진실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37	16	8	1		62	4.43
부여지역 외 주민	28	24	14	2		68	4.14
계	65	40	22	3		130	4.28

2.2 부여는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8	16	25	10	3	62	3.25
부여지역 외 주민	5	14	22	19	8	68	2.83
계	13	30	47	29	11	130	3.04

2.3 부여의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이나 문화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백제금동 대향로	47	백제금동 대향로	206	199	백제금동 대향로	32	백제금동 대향로	132	116	백제금동 대향로	79	338	315
2	정림사지 5층석탑	31	정림사지 5층석탑	135	131	정림사지 5층석탑	28	정림사지 5층석탑	116	102	정림사지 5층석탑	59	251	233
3	궁남지	22	궁남지	70	68	정림사지	17	정림사지	72	64	궁남지	36	118	110
4	부소산성	12	부소산성	41	40	부소산성	15	부소산성	61	54	부소산성	27	102	94
5	무량사	9	정림사지	24	23	궁남지	14	궁남지	48	42	정림사지	24	96	87
6	낙화암	7	낙화암	23	22	능산리 고분군	14	낙화암	40	35	낙화암	18	63	57
7	정림사지	7	무량사	22	21	낙화암	11	능산리 고분군	33	29	능산리 고분군	14	33	29
8	무량사 5층석탑	6	무량사 5층석탑	22	21	고란사	5	고란사	16	14	고란사	9	28	26
9	고란사	4	부소산	18	17	부여산성	5	부여산성	14	12	무량사	9	22	21
10	부소산	4	고란사	12	12	무량사 5층석탑	3	무령왕릉	10	9	무량사 5층석탑	9	22	21
	왕릉원	4	왕릉원	12	12									
11	기타	42	기타	102	99	기타	33	기타	100	88	기타	88	256	238
소계	응답	195	응답	687	665	응답	177	응답	642	566	응답	372	1329	1231
	무응답	115	무응답	243	235	무응답	164	무응답	378	334	무응답	279	621	569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3. 부여가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공간구조, 배치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15	11	13	19	4	62	3.22
부여지역 외 주민	5	14	25	17	7	68	2.91
계	20	25	38	36	11	130	3.06

3.1 부여의 도시구조가 역사도시로서 타 도시(경주, 공주 등)와 비교하여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11	11	16	13	11	62	2.96
부여지역 외 주민	2	5	29	19	13	68	2.47
계	13	16	45	22	24	130	2.71

3.2 부여의 도시구조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궁남지	13	궁남지	61	59	궁남지	10	궁남지	40	35	궁남지	23	101	94
2	정림사지	6	백마강	25	24	부소산성	9	부소산성	37	33	백마강	6	54	50
3	부소산성	4	정림사지	23	22	정림사지	7	백마강	29	26	부소산성	13	53	48
4	왕릉원	4	부소산성	16	15	낙화암	6	정림사지	28	25	정림사지	13	51	47
5	구드래	3	시가지	14	14	백마강	6	낙화암	26	23	낙화암	6	26	23
6	부소산	3	왕릉원	14	14	부여산성	3	부여산성	14	12	부여산성	3	14	12
7	시가지	3	부소산	13	13	가로망	2	부여읍	10	9	시가지	3	14	14
8	도시계획	2	구드래	11	11	구드래	2	산성	9	8	왕릉원	4	14	14
9	로터리	2	로터리	9	9	부여읍	2	가로망	6	5	부소산	3	13	13
10	무량사	2	미개발	8	8	산성	2				구드래	5	11	11
	미개발	2												
11	기타	26	기타	92	89	기타	13	기타	59	52		53	193	178
소계	응답	70	응답	286	277	응답	62	응답	258	228	응답	132	544	504
	무응답	240	무응답	644	623	무응답	278	무응답	762	672	무응답	518	1406	1296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4. 부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유산 또는 전통은 학문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34	13	11	4		62	4.24
부여지역 외 주민	21	26	15	5	1	68	3.89
계	55	39	26	9	1	130	4.06

2) 역사문화 공통부문

(1) 대분류

설문내용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평균
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4.12	3.80	3.96

(2) 소분류

1.1 부여는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30	12	18	2		62	4.12
부여지역 외 주민	14	34	15	3	2	68	3.80
계	44	46	23	5	2	130	3.96

1.2 부여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불교	10	불교	50	48	불교	21	불교	100	88	불교	31	150	136
2	은산 별신제	8	은산 별신제	35	34	백제문화	5	백제문화	24	21	은산 별신제	10	43	41
3	백제 문화제	7	백제 문화제	32	31	유교	4	유교	16	14	백제 문화제	9	42	40
4	산유화가	3	산유화가	10	10	백제 문화제	2	백제 문화제	10	9	백제문화	5	24	21
5	용정리 상여소리	3	도교	8	8	보부상	2	보부상	9	8	유교	4	16	14
6	도교	2	백제	8	8	신동엽 문학사상	2	은산 별신제	8	7	산유화가	3	10	10
7	백제	2	용정리 상여소리	8	8	은산 별신제	2	임전무퇴	8	7	보부상	2	9	8
8	유왕산 추모제	2	유왕산 추모제	6	6	임전무퇴	2	호국정신	8	7	도교	2	8	8
9						호국정신	2	신동엽 문학사상	6	5	백제	2	8	8
											용정리 상여소리	3	8	8
											임전무퇴	2	8	7
											호국정신	2	8	7
10	기타	19	기타	76	74	기타	20	기타	72	64	기타	43	160	171
소계	응답	56	응답	233	225	응답	62	응답	261	230	응답	118	494	456
	무응답	254	무응답	697	674	무응답	278	무응답	759	670	무응답	532	1456	1344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1.3 부여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부여지역 주민	8	12	17	14	11		62	2.87
부여지역 외 주민	1	7	22	22	15	1	68	2.32
계	9	19	39	36	26	1	130	2.59

3) 문화 부문

(1) 대분류

설문내용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평균
1.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83	2.73	2.78
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75	2.42	2.58
3. 부여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87	2.82	2.84
4. 부여 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95	3.08	3.01
평 균	2.85	2.76	2.80

(2) 소분류

1.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6	9	26	11	10	62	2.83
부여지역 외 주민	4	12	23	20	9	68	2.73
계	10	21	49	31	19	130	2.78

1.1 부여는 충분한 문화예술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2	5	26	18	11	62	2.50
부여지역 외 주민		7	24	28	9	68	2.42
계	2	12	50	46	20	130	2.46

1.2 부여는 충분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1	2	19	17	23	62	2.04
부여지역 외 주민	2	6	29	23	8	68	2.57
계	3	8	48	40	31	130	2.30

1.3 부여는 문화예술 활동(공연, 전시, 축제, 행사 등)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2	12	25	12	11	62	2.70
부여지역 외 주민	2	15	27	19	5	68	2.41
계	4	27	52	31	16	130	2.55

1.4 부여는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부여지역 주민	1	6	33	15	7		62	2.66
부여지역 외 주민	2	4	31	19	11	1	68	2.47
계	3	10	64	34	18	1	130	2.56

1.5 부여의 대표적인 문화자원(문화예술 인물, 문화시설, 공연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순위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강도	비율보정	응답	빈도	연상강도	비율보정
1	백제 문화제	13	백제 문화제	62	60	국립부여 박물관	14	국립부여 박물관	53	47	백제 문화제	24	111	103
2	국립부여 박물관	12	신동엽	50	48	백제 문화제	11	백제 문화제	49	43	국립부여 박물관	26	97	90
3	신동엽	12	국립부여 박물관	44	43	대백제전	9	대백제전	41	36	신동엽	15	63	59
4	백제역사 재현단지	7	유홍준	26	25	백제역사 재현단지	7	백제역사 재현단지	31	27	백제역사 재현단지	14	55	50
5	유홍준	6	백제역사 재현단지	24	23	낙화암	5	구드래	18	16	대백제전	9	41	36
6	부여군 충남국악단	5	부여군 충남국악단	17	16	구드래	4	연꽃축제	18	16	유홍준	6	26	25
7	은산 별신제	4	은산 별신제	14	14	궁남지	4	낙화암	16	14	은산 별신제	7	26	25
8	서동요	3	청소년 수련원	14	14	연꽃축제	4	신동엽	13	11	구드래	4	18	16
9	연꽃축제	3	문화제	10	10	신동엽	3	궁남지	12	11	연꽃축제	7	18	16
10	청소년 수련원	3	부소산성	10	10	은산 별신제	3	은산 별신제	12	11	부여군 충남국악단	5	17	16
11	기타	47	기타	168	163	기타	57	기타	213	188		119	443	409
소계	응답	115	응답	439	425	응답	121	응답	476	420		236	915	845
	무응답	195	무응답	491	475	무응답	219	무응답	544	480		414	1035	955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2. 부여는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4	8	31	7	12	62	2.75
부여지역 외 주민	2	10	22	21	13	68	2.42
계	6	18	53	28	25	130	2.58

2.1 부여는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경관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2	10	22	14	14	62	2.54
부여지역 외 주민	1	6	29	23	9	68	2.51
계	3	16	51	37	23	130	2.52

2.2 부여는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1	7	25	18	11	62	2.50
부여지역 외 주민	1	10	28	21	8	68	2.63
계	2	17	53	38	19	130	2.56

2.3 부여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를 배려한 안전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1	2	32	12	15	62	2.38
부여지역 외 주민		4	29	22	13	68	2.35
계	1	6	61	34	28	130	2.36

2.4 부여를 대표하는 도시경관은 어디입니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 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궁남지	17	궁남지	73	71	궁남지	20	궁남지	84	74	궁남지	37	157	145
2	구드래	9	구드래	40	39	백마강	16	백마강	70	62	백마강	20	89	80
3	구드래 공원	9	구드래 공원	36	35	낙화암	13	낙화암	57	50	낙화암	18	78	70
4	부소산	7	부소산	31	30	정림사지	9	부소산성	36	32	구드래	15	65	61
5	낙화암	5	낙화암	21	20	부소산성	8	정림사지	32	28	부소산	13	55	51
6	정림사지	5	백마강	19	18	구드래	6	구드래	25	22	부소산성	12	55	50
7	국립부여 박물관	4	부소산성	19	18	부소산	6	부소산	24	21	정림사지	14	50	45
8	백마강	4	정림사지	18	17	백제대교	5	백제대교	22	19	구드래 공원	9	36	35
9	부소산성	4	국립부여 박물관	14	14	백제역사 재현단지	3	부여 박물관	12	11	백제대교	8	22	19
10	백제대교	3	서동공원	13	13	부여 박물관	3	구드래	9	8	국립부여박 물관	4	14	14
	사비문	3						금강	9	8				
	서동공원	3						백제역사 재현단지	9	8				
11	기타	27	기타	117	113	기타	21	기타	66	58		60	235	219
소계	응답	100	응답	401	388	응답	110	응답	455	401		210	856	789
	무응답	210	무응답	529	512	무응답	230	무응답	565	498		440	1094	1010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3. 부여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7	11	21	13	10	62	2.87
부여지역 외 주민	5	12	23	22	6	68	2.82
계	12	23	44	35	16	130	2.84

3.1 부여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7	11	21	12	11	62	2.85
부여지역 외 주민	2	20	21	19	6	68	2.89
계	9	31	42	31	17	130	2.87

3.2 부여는 문화산업지원을 위한 법제도, 재원,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1	33	16	12	62	2.37
부여지역 외 주민	1	3	24	33	7	68	2.38
계	1	4	57	49	19	130	2.37

3.3 부여의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3	7	28	12	12	62	2.69
부여지역 외 주민	6	9	21	25	7	68	2.73
계	9	16	49	37	19	130	2.71

3.4 부여 경제를 이끌 미래 문화(콘텐츠)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순위	부여지역 주민					부여지역외 주민					종합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응답	연상 강도	비율 보정	응답	빈도	연상 강도	비율 보정
1	관광	6	백제 문화재	28	27	백제 문화재	7	백제 문화재	35	31	백제 문화재	13	63	58
2	백제 문화재	6	관광	22	21	백제역사 재현단지	7	백제역사 재현단지	32	28	백제역사 재현단지	11	46	42
3	궁남지	5	문화재	22	21	낙화암	5	백제	24	21	관광	9	37	34
4	문화재	5	궁남지	20	19	백제	5	낙화암	20	18	문화재	5	32	30
5	백제역사 재현단지	4	백제역사 재현단지	14	14	굿뜨래	4	백제문화	20	18	백제	5	24	21
6	역사	3	역사	13	13	백제문화	4	서동	19	17	궁남지	5	20	19
7	연꽃축제	3	연꽃축제	13	13	서동	4	관광	15	13	낙화암	5	20	18
8			백제금동 대향로	10	10	관광	3	서동전설	15	13	백제문화	4	20	18
9			사람	10	10	금동 대향로	3	굿뜨래	13	11	서동	4	19	17
10			구드래	9	9	서동전설	3	금동 대향로	10	9	서동전설	3	15	13
								대백제전	10	9				
								문화재	10	9				
								부여 박물관	10	9				
11	기타	51	기타	154	149	기타	71	기타	236	208	기타	135	488	449
소계	응답	83	응답	315	305	응답	116	응답	469	414	응답	199	784	719
	무응답	227	무응답	597	578	무응답	224	무응답	551	486	무응답	451	1148	1064
합계		310		930	900		340		1020	900		650	1950	1800

4. 부여 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3	12	32	9	6	62	2.95
부여지역 외 주민	2	16	38	10	2	68	3.08
계	5	28	70	19	8	130	3.01

4.1 부여주민들이 부여에 대해 역사문화적 자긍심(애착,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9	21	23	4	5	62	3.40
부여지역 외 주민	7	28	20	7	6	68	3.33
계	16	49	43	11	11	130	3.36

4.2 부여주민들이 역사문화도시를 부여의 미래 대표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11	22	21	5	3	62	3.53
부여지역 외 주민	10	22	24	10	2	68	3.41
계	21	44	45	15	5	130	3.47

4.3 부여주민들이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축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4	17	27	8	6	62	3.08
부여지역 외 주민	11	22	23	12		68	3.47
계	15	39	50	20	6	130	3.27

4.4 부여주민들이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의회, 상설기구 등)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계	평균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부여지역 주민	2	8	30	16	6	62	2.74
부여지역 외 주민	3	13	25	18	9	68	2.75
계	5	21	55	34	15	130	2.74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철휘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09-07 ·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글쓴이 · 박철휘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9년 12월 31일 / 발행 · 200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61(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95-6 03350

<http://www.cdi.re.kr>

©2009.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